

충청남도 충남학 종 합 계 획 수 립 연 구



재단
법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Chungcheongnam-do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제 출 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충청남도 충남학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9

충남연구원 원장 유 동 훈

01 계획의 개요	7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9
2. 수립방법 및 내용	11
02 이론 및 개념적 검토	15
1. 지역학의 개념과 의의	17
2. 충남의 지역 인식 현황	26
3. 충남학의 개념과 영역	32
03 국내외 사례 분석	39
1. 국내 지역학 정책운영 현황	41
2. 국외 지역학 정책운영 현황	61
3. 사례분석의 함의	65
04 충남학 추진현황과 인식	67
1. 충남학 정책 추진현황	69
2. 충남학 및 진흥정책의 인식	82
05 충남학 진흥의 방향과 과제	93
1. 충남학 지원정책의 진단과 방향	95
2. 충남학 정책과제와 실천사업	101
3. 충남학 정책 실행과 추진	117

TABLE OF CONTENTS

표 차례

[표 1] 지역 개념의 접근방식의 차이	13
[표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학 정의	15
[표 3] 지역학 개념정의 종합화	16
[표 4] 학술연구의 지역학 정의	16
[표 5] 지역학의 속성 요인	18
[표 6] 지역지리학의 개념적 변화	19
[표 7] 충남인의 공동체성 인식 수준	30
[표 8] 5가지 충남정신의 도출	37
[표 9] 충남학의 이해1 교재 구성	39
[표 10] 충남학의 이해2 교재 구성	40
[표 11] 지역학 관련 법률	43
[표 12] 지역학 관련 국내 조례 현황	44
[표 13]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학 운영기관 현황	46
[표 14] 국내 광역자치단체 지역학 운영 현황	47
[표 15] 제주학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프로그램	51
[표 16] 제주학 총서 발간 목록	52
[표 17] 제주학 총서 발간 목록	52
[표 18] 부산학 연구센터 자문위원단	54
[표 19] 부산학 연구센터 주요업무	55
[표 20] 부산학 연구센터 5년간 주요 발간물	56
[표 21] 울산학 포럼 구성 및 주요 활동	58
[표 22] 울산학 연구센터 연구사업 결과물	58
[표 23] 울산학연구센터 수탁 및 협약과제	59
[표 24] 전북학 연구센터 연구발간사업 현황	61
[표 25] 전북학 연구센터 학술대회 개최사업 현황	62
[표 26] 전북학 연구총서 발간 현황	63
[표 27] 충남 민선8기 충남학 역점과제 내용	71
[표 28] 충남학 진흥을 위한 주체의 역할	72
[표 29] 주체별 충남학 진흥정책 내용	72
[표 30] 충남학 지원예산의 변화(충남평생교육진흥원)	73
[표 31] 시군 충남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2021년 기준)	74
[표 32] 시군별 충남학 예산 현황	75
[표 33] 군단위 충남학 교육 운영 결과	77
[표 34] 시·군의 충남학 시군학 운영현황	78

[표 35] 충남학 대학지원사업 예산의 변화	80
[표 36] 충남학 교육 대학지원 선정 현황	80
[표 37] 2021년 충남학 거점대학 지원사업 결과	82
[표 38] 충남학 청소년 동아리 지원 현황	84
[표 39] 충남도정신문의 충남학 게재 주요 내용	86
[표 40] 2021년 충남학 영상공모전 선정 결과	86
[표 41] 충남학 FGI 담당집단 구성	88
[표 42]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주요 내용	88
[표 43] 충남학 종합계획 정책과제 및 실천내용	111

그림 차례

[그림 1] 과업의 연구수행 체계	10
[그림 2] 지역학 속성들의 관계도	19
[그림 3] 충남인의 삶의 만족 인식	27
[그림 4] 충남인의 공동체 도움 인식	28
[그림 5] 충남도민의 공동체 활동 인식	29
[그림 6] 충남인의 타인 신뢰 인식	31
[그림 7] 충남학 추진정책의 경과	33
[그림 8] 충남 금강과 내포지역의 특성	35
[그림 9] 공주학연구원의 3가지 핵심기능	63
[그림 10] 공주학연구원 조직도	63
[그림 11] 충남학 진흥정책의 추진 주체	77
[그림 12] 충남학 대학지원사업 운영결과	87
[그림 13] 지역학의 정책지형과 충남학의 현황	110
[그림 14] 충남학 분석 종합과 이슈 구조화	111
[그림 15] 충남학의 SWOT분석 결과	112
[그림 16] SWOT 분석 결과에 따른 전략 도출	112
[그림 17] 충남학 비전과 추진 전략	115
[그림 18] 충남학 정책추진 주체와 체계	151
[그림 19] 충남학 정책추진을 위한 인식조사	152
[그림 20] 지원체계와 기반구축 영역 정책실행 로드맵	153
[그림 21] 충남학 교육 내실화 정책실행 로드맵	154
[그림 22] 조사연구기능강화 / 충남학 인식확산 정책실행 로드맵	155
[그림 23] 충남학 정책의 평가와 환류 과정	157

01

충청남도 충남학 종합계획 수립연구

계획의 개요

-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 2. 수립방법 및 내용 5

1. 배경 및 목적

1) 과업배경

▶ 지방자치 확산으로 인한 지역 정체성과 지역연구 필요성 증가

- 국내에서 지방학, 지역학의 학문적 확산과 정책적 관심은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인해 지역차원의 연구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임
- 이와 함께 지방대학의 설립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도연구원의 설립과 2010년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연구원이 설립되면서 이로 인한 지역차원의 연구 지원체계의 확충도 주요한 배경
-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과소지역 확대 및 지역쇠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살펴보고 '충남형'과 같은 지역특색 기반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충남의 특성을 규정할 수 있는 충남학에 대한 심도있는 탐구와 정책활동이 필요
- 충남학과 같은 지역학의 과제는 지역의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로컬정체성과 지역문화를 재발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적용을 통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충남의 정체성과 문화적 기반을 발굴, 확산,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 확대

▶ 현대사회와 지역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충남학 전환의 필요

- 현재의 지역학은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민과 주체들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충남학 탐구와 실천을 수행하는 관점의 지역가치 마련과 발굴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음
- 지역차원에서 과거의 역사문화와 함께 주민 주도적이고 현장과 지역현실 중심주의적 접근의 관점에서 지역학의 접근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삶과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천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따라서 과거보다 미래지향적인 충남학의 전환과 함께 학술, 이론의 학문 탐구의 대상을 넘어서 현장의 실천이 가능한 정책행위 기반의 접근과 고려가 필요한 상황

▶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충남학의 진흥과 확산 필요

- 충청남도는 2013년부터 진흥계획수립 및 교재개발을 통해 충남학 진흥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강사양성 및 포럼,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
- 최근 2021년 8월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되었으며 이에 따른 5년단위의 충남학기본계획 수립 수립을 명시하였음
- 하지만 충남학 진흥을 위한 정책추진의 전담주체가 부재하고 추진체계도 대학 및 시군 등 혼재되어 있으며 충남학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의 연계 및 협력 등의 지원체계도 미흡한 상황
- 이에 조례에 따른 충남학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확립 및 주요 추진전략과 사업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출이 필요

2) 목적

▶ 조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충남학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 본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을 위한 도차원의 중장기 정책계획을 수립
- 지역학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 및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충남학에 대한 정책방향의 도출과 가치 확립

- 다양한 국내 지역학 진흥사례와 현장기반의 의견수렴 및 공론조사를 중심으로 충남학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의 도출

▶ 중장기적인 새로운 가치에 기반한 비전과 전략의 수립

- 새로운 지역학 접근방향에 기반하여 향후 5년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남학의 진흥을 위한 정책비전과 목표를 도출
- 과거에 기반한 충남학 범주에서 확대하여 충남의 현재와 현장, 주민의 적극참여와 삶의 현장에 기반한 충남학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수립

▶ 정책비전과 목표에 기반한 추진전략과 실천사업 도출

- 충남학의 새로운 정책방향과 비전에 기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추진전략으로 유형화하여 제시
- 향후 5년간 충남학의 중장기적 진흥을 위한 다양한 세부실천사업들을 추진전략 중심으로 발굴하여 도출
- 도출된 추진전략과 실천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로드맵과 실행주체 및 예산계획 수립

▶ 효과적 충남학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발굴된 추진전략과 세부사업의 효과적 실천을 위해서는 추진주체와 체계의 확립과 기능배분이 필수적임
- 본 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남학 진흥을 위한 전담 추진주체의 형태와 기능을 확립하고 이를 연계하여 협력하는 지원체계 도출을 제안할 것임

1.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전역

2) 시간적 범위

- ▶ 2023년~2027년(5개년)

3) 내용적 범위

▶ 충남학의 개념적 규정과 전환의 방향

- 현대적 의미에서 지역학의 개념규정 및 이론적 검토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충남학의 개념 및 추진 방향의 검토
- 특히 최근 지역학 흐름에 기반한 충남학의 새로운 개념 영역의 규정

▶ 지역학 관련 선행 연구 및 계획 검토

- 중앙차원의 종합적인 국내 지역학 관련 선행연구 검토
 - > 노영순 외(2018) 지역사회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과 문화정책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정정숙(2014)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충청남도의 충남학 관련 선행연구 검토
 - > 한기범 외(2014) 충남학 기본방향 및 교재개발 수립.
 - > 김경수 외(2020) 충남학 교육운영 개편방안 연구.
-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학 관련 선행연구 검토
 - > 문정화 외(2021) 국내 지역학 현황과 고양학 발전방안.
 - > 김양식(2016) 충북학 활성화방안 연구.
 - > 유영심(2016) 강원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체계정립 방안.
 - > 박찬식 외(2016) 제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 지역학 진흥을 위한 국내외 정책운영 사례 분석

- 1990년대 이후 활성화된 국내 지역학 진흥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 특히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학 정책계획과 정책 운영사례 조사
-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추진되는 지역학 및 도시학 진흥 사례조사

▶ 충청남도 충남학의 정책현황 및 추진주체 인식분석

- 최근 충청남도에서 추진된 충남학 정책사업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 시군 및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된 주요한 세부사업 추진자료의 정량적 분석
- 거점대학, 시군, 사업담당자로 구성된 3집단의 집단별 인터뷰(FGI) 실시
- 사업추진 현황과 인터뷰 조사자료 기반으로 다각적 충남학 현황과 수요분석 수행

▶ **충남학 진흥을 위한 지원방향과 실천사업 도출**

-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하여 충남학의 현재를 진단(SWOT분석)하고 진흥을 위한 비전 및 정책목표 도출
- 충남학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영역과 세부실천사업 발굴 도출
- 도출된 세부실천사업의 5년간의 추진 로드맵 제시와 이에 따른 예산 및 추진 주체 도출

▶ **충남학 사업추진을 위한 연계방향 도출**

- 제시된 정책과 사업추진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청남도 및 추진운영 주체(기관)의 로드맵 제시
- 추진주체와 함께 각각 전문영역에서 충남학 진흥을 위해 협력할 연계주체를 도출하고 협력분야에 대한 제시를 통해 충청남도 부서별 협력방안 마련

4) 기대효과

-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으로 충남학에 대한 충청남도 및 시군의 정책관심 유도 및 확산
- 충청남도의 충남학 진흥을 위한 향후 5년간 체계적 정책지원과 정책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 중장기적 정책지원 제시로 지속가능한 충남학 진흥과 인식확산을 통해 충남학의 정책적 효과 증대 도모
- 종합계획을 통해 충남학 관련된 충청남도 주무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연계의 기반 구축

2. 과업의 방법과 흐름

1) 과업의 방법

▶ **문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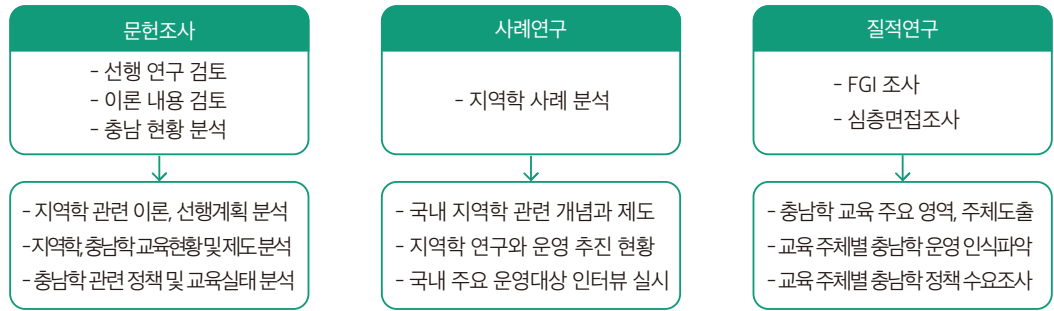
- 지역학 관련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선행연구와 계획수립 검토
- 지역학 관련 개념화와 이론적 배경의 논의 검토
- 충남에서 논의되는 충남학의 정의 및 개념화와 주요한 충남학 구성요인 검토

▶ **사례연구**

- 국내 지역학 진흥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충청북도, 강원도 등의 광역자치단체 사례조사
- 지역학 정책추진의 내용 및 주요사업, 운영기관 및 주체, 추진과정, 인식확산 등의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등의 지역학, 도시학의 진흥을 위한 실천활동의 사례 문헌검토

▶ **현황 및 의견수렴**

- 충청남도에서 현재 충남학 진흥을 위해 수행하는 세부사업 현황 검토
- 충남학 사업운영 주체 및 세부프로그램, 예산집행 규모 등의 사업현황 분석
- 충남학 운영주체를 3집단(거점대학 운영실무자, 시군담당자, 시군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충남학 인식 및 운영, 정책수요 등의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수행
-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한 정책수요 및 애로사항 등 다각적 의견수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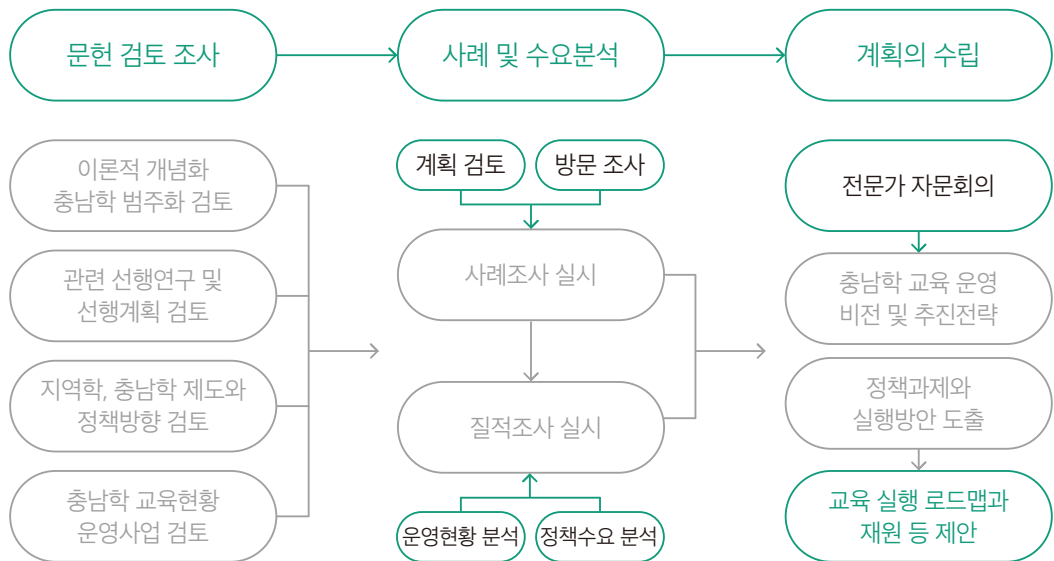


▶ 충남학 진흥의 기본구상과 계획수립

- 사례조사 및 인식조사와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SWOT분석 기반으로 현재 충남학 진단수행
- 충남학 현황분석 결과 기반 자문회의 실시하여 충남학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전과 목표 도출
- 충남학 현황분석 및 인식조사 의견수렴과 사례분석 결과 중심으로 추진전략 및 세부실천사업 도출과 5년간 추진 로드맵 구현
- 도출된 사업 중심으로 충남학 정책추진 주체의 제시와 협력 가능한 연계기관 및 수행업무 검토와 제안

[2] 과업추진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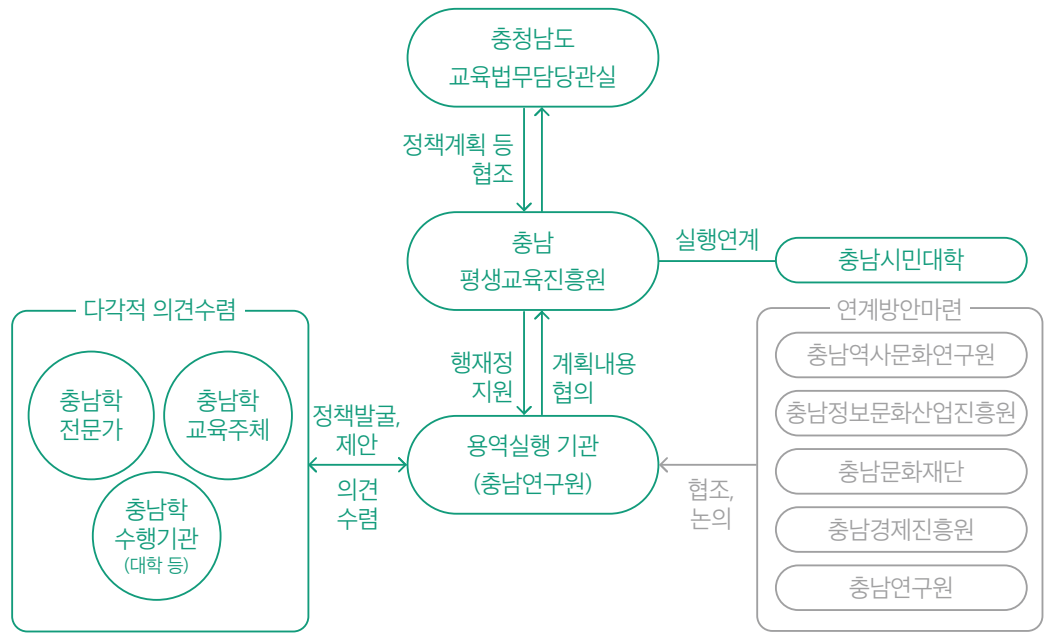
- 본 계획수립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문헌검토, 사례조사, 현황분석 및 인식수요조사의 연구방법론 절차를 거쳐 수행
- 연구방법을 거쳐 수행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중장기 방향의 기본구상과 구체적 정책사업을 도출



[3] 연구수행의 협력체계

- 본 계획수립을 위해 다음의 주체간 협력과 의견반영의 절차를 수행이 필수적
- 계획수립 발주기관인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및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과 수시로 협의과정을 수행
-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조사와 자문활동 수행을 위해 충남학 전문가 및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의견수렴의 활동 수행
- 충남학의 실제 수행을 위한 충남평생교육진흥원내 시민대학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충남학 학문영역과 연관된 충남 공공기관과 협력방안을 논의

[그림 1] 과업의 연구수행 체계



02

충청남도 충남학 종합계획 수립연구

이론 및 개념적 검토

- 1. 지역학의 개념과 의의 12
- 2. 충남의 지역 인신 현황 24
- 3. 충남학의 배경과 영역 32

1. 지역학의 이론적 배경

1) 지역학의 배경

▶ 지역의 접근과 문제

- 지역(Region)은 사전적 의미로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일정하게 구분된 지리적 공간으로 정의됨(이순자 외, 2015)
- 지역의 개념은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 주체의 관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의 발견보다는 그 자체의 문화적·기능적 가치와 내생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능동적 주체의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음
- 특히 지역은 다양한 공간요소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호 연계된 영역성으로 정의되고 제반 환경과 여건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성격이 강조
- 이러한 점에서 지역은 전통적 개념과 현대적 개념에서 차이가 있으며 연구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다음의 표처럼 종합될 수 있음

[표 1] 지역 개념의 접근방식의 차이

구분	전통적 개념	현대적 개념
개념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발견하는 것 - 주어진 지리현상의 이해 - 영토에 관한 지리적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영역적 실제로 사회적 행위에 의해 형성 - 자본주의의 분석 단위
연구함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알기위한 도구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 방법
변화의 동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부의 주체와 문제 - 지역내 자연, 인문요소의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구조와 과정에 구체적 내용에서 변화 - 인간·사회·환경의 상호작용 중심
주요개념	등질성, 기능성	지역성, 장소성, 로컬리티

자료: 손명철, 2017; 김양식, 2018; 노영순·이상열, 2018

- 지역은 고정된 공간적 개념화가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하며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환경(milieu)의 시각에서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처럼 지역의 변화적 속성은 경제, 사회, 정치 등의 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지역문제의 발생과 확대를 야기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농어촌 중심의 지역 과소화 문제, 신도시로 인한 원도심의 도심쇠퇴지역 문제, 지역간 양극화 문제 등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문제들이 발생
-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역문제의 해결은 지역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지역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며 타 지역과는 다른 극복방안의 모색이 중요함
- 특히 21세기 이후 지역정체성과 창의적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의 담론들이 확산되면서 지역의 문화적 현상과 정체성 기반의 지역발전전략들이 주목받고 있고 지역학은 새로운 로컬문화를 재발견하는 원형이자 근간으로 인식되고 있음(박승희, 2016)
- 현대적 의미에서 지역을 구성하는 4대 요소는 자연환경요인으로 지리, 인문사회환경 요인으로 역사, 사회, 문화를 거론하며 특히 지리는 자연지리보다 인문지리분야가 지역을 이해하는데 중요함
- 특히 지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역 역사와 사회의 총합이라 할 수 있는 문화적 요인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리, 역사, 문화, 사회를 중심으로 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함

▶ 지역학의 등장과 주목

- 지역학의 본격적인 등장은 서구를 중심으로 1980년대 도심쇠퇴 등에 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연구관점에서 시작되었음
-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학문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지역, 지방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융합적, 학제적 연구 수행이 등장하게 됨
-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하고 중앙의 정책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자치적 사고의 확산이 학문적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시는 1993년 정도 60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서울학연구소를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지역학 연구와 진흥사업을 시작하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학에 정책적 관심을 갖게 됨

2) 지역학의 개념화

▶ 지역학의 개념적 변화

- 지역학의 사전적 개념을 살펴보면 지역학은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표준국어대사전)으로 광의적 의미를 내포함
- 지역학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은 일정한 공간을 토대로 연구대상을 설정하고 종합적, 융합적, 학제적 연구를 수행함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학문이라는 점이 공통적
- 지역학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삶의 총체성으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단일학문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며 다양한 현상의 체계적 사고 인식을 기반해야 한다는 통합과학적 성격이 강하고 생활양식을 다루는 순수학문을 지향하면서도 실용적 성과 도출을 요구하는 경계의 학문으로 정의(오영규, 2019)
- 하지만 학문적 속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과학적 방법론에 충실한 순수학문으로 한계가 있고 특정 학문분야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학문으로 불리기에 어려움이 있고 독립적 학문보다는 연구 분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
- 따라서 지역학은 초기에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식되어 지역연구, 지역과학과 구분되지 않았으며 학문들간의 융복합적 연구영역으로 인식되었음
- 송인호(2012)는 지역학은 장소의 이력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작업으로 역사, 문화, 철학, 지리, 사회, 건축, 도시, 조경 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하여 조명하는 융합학으로 정의
- 박찬식(2017)은 지역학을 일정한 공간을 토대로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 종합적 또는 학제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학문으로 정의
- 이러한 박찬식(2017)의 지역학 개념이 확산되면서 지역학은 단순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활동학문들의 종합이 아니라 일상 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목적을 위한 현장중심의 접근을 지향하는 특성을 구축하게 됨
- 구체적으로 지역학은 주로 각 지역 명에 접미사로 學을 첨언하며 공간적으로는 해당지역에 초점을 둔 연구대상으로 제한하며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종합적 관점에 바탕으로 하고 학문적으로는 융합적 접근을 통한 학제적 학문을 지향하는 것으로 구체적 접근을 제시(박찬식, 2017)

▶ 지역학의 정의

- 지역학은 다양한 개념 정의 속에서 공간, 사회적 활동과 문화적 자취, 지역사회와 환경 발전을 위한 기여, 종합적이고 학제간 연구, 지역 정체성의 확립 등의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내포
- 우선 지역학을 추구하고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학 정의

지역	지역학의 정의
강원학	강원도와 강원인의 정체성과 주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학으로 강원도민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고유한 적층된 삶과 문화의 총체적 표현물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것을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하여 주민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지역관을 바로세우며 새로운 발전의 정신적 틀거리를 만들기 위한 정신학
경기학	경기지역의 역사와 문화(전통문화) 및 기타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의 본질과 가치를 밝혀내고 현재 및 미래발전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활동을 지향
부산학	부산시민의 시선에서 상호 관련된 다양한 영역(역사 전통 문화 예술 정치 경제 사회 일상생활)을 포착하고 종합적·학제적으로 연구하여 지역 정체성과 고유한 미래상을 발견함으로써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문 지향과 실천활동
서울학	서울의 장소 이력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작업으로 서울의 시간을 편년하고 인문적 의미를 규명하고, 서울의 공간과 구조를 정의하고 형태를 유추함. 서울학은 역사 문학 철학 사회 건축 도시 조경 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조명하는 융합학
인천학	인천의 역사 문화, 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인천 사회의 현실적인 역동성을 인문학적으로 규명하여 도시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제주학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며, 제주지역에 대한 학제간 총체적 접근을 요구하고 지역 정체성 추구를 목적으로 함. 또한 제주지역의 내재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학문을 지향하며 제주의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조명하며 미래를 추구하는 학문
충남학	충청남도과 관련된 인물 지리 역사 사회 문화 문학 예술 정치 경제 건축 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학문
고양학	고양사와 고양사와 연관성이 있는 지역 및 인물과 관련된 공감을 범위로 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광범위한 분야와 연구와 이들 분야에 대한 학제적 종합적 연구이며, 이를 통해 고양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실용적이고 실천적 학문
안산학	안산에 관한 학제적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 안산학을 정립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 교육함으로써 안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전주학	전주의 자연 지리 역사 사회 문화 등 제 학문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분석을 통하여 전주의 지역 정체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주와 전주인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당면 과제 해결과 미래의 발전과정을 모색하는 이론적 학문적 논리를 제공하는 학문
천안학	천안시와 천안시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천안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관을 바로 세우며 천안의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

자료: 정정숙(2014) 참조

-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학 개념 규정은 해당 지역의 인문학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학제적으로 탐구하여 지역 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미래상을 제시함을 강조
- 따라서 지역의 역사와 인물 등 과거의 유산을 포함하여 현재 경제, 사회, 지리, 정치 등의 사회과학적 분야를 포함하는 학문적 영역과 범주를 규명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학 개념화는 유사한 개념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지역명에 학의 접미어를 첨가하며, 해당지역에 초점을 둔 연구대상으로 제한하고, 학제적 접근과 현재, 과거, 미래를 포함하는 종합적 관점을 바탕으로 함

[표 3] 지역학 개념정의 종합화

목적	대상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정체성 구축과 확립 - 지역 역사문화의 본질과 가치 규명 - 지역 현재, 미래 발전을 도모 -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사회의 당면 과제 해결과 미래 발전과정을 모색하는 이론적, 학문적 논리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모든 것을 다루는 정의 - 지역 특정분야에 한정시키는 경우 - 지역민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고유한 삶과 문화의 총체적 표현물을 대상 - 지역의 역사와 문화(전통문화) 및 기타분야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 연구 - 학제적 연구 - 학제간의 총체적 접근

- 다음으로 지역학에 대한 학술 및 이론적 연구에서 도출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 학술연구의 지역학 정의

연구자	지역학의 정의
고석규 (1994)	지역이라는 지표면의 일정 공간을 토대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유무형의 자취들.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지역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학문
김대래 (2001)	특정 지역의 형성과정을 시공간의 틀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그 기반 위에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학문
하병주 (2007)	인문과학, 사회과학 혹은 지역의 성립과 지역에 거주하는 인간의 생업 또는 그 지역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시도하는 학술연구
심재권 (2014)	연구 대상 지역의 언어와 기본적인 역사, 문화적 지식을 습득한 연구자가 특수성과 보편성을 포괄하는 해당 지역의 총체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종합학문
정정숙 (2014)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문화적으로 공통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며, 지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학문
이창식 (2016)	일정한 지역의 지리적 공간성, 역사적 시간성, 문화적 표상성, 문화적 상징성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오영규 (2019)	지역학은 단일학문 분야의 종속물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 얽혀있다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 사고의 인식을 기초로 하는 통합과학으로서 순수한 학문을 지향하면서도 실용적인 성과를 산출해 내야하는 경계선상의 학문
정삼철 (2019)	한국 내 일정한 행정구역이나 지역(지방) 또는 세계권 내의 국가 단위나 권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연구와 이해하는 학문. 특정 지역이나 공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 간 활발한 교류 바탕의 융합학문
문정화 김은진 (2021)	지역학은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문화적으로 공통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 또는 학제적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지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개념으로 정리
Walter Isard (1956)	지역학은 공간구성을 이루는 요소 중에서 산 평지 물 등 물리적 환경이 아닌 요소들을 다루고 있음. 따라서 물리적 환경 속에 담겨져 있으면서 이들과 구분되는 결정요인들을 다루는 것이 지역학 연구
Garnsey (1968)	지역학이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생리적, 사회적 현상들이 지역적으로 몰리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 또한 지역학이란 종합학문으로 지역분석을 위해서는 기존의 많은 학문들과 밀접한 교류를 거쳐야 함

자료: 문정화 김은진(2021) 참조

- 학술적 정의에서 지역학은 공간, 지역과 같은 학문적 대상이 전제되어 있으며, 종합화, 융합 및 학제적 연구와 같은 학문적 특징이 공통적임
- 이와 함께 지역에서 시간의 흐름과 같은 학문적 시간으로 전제하고 문제의식 공유, 실용성과 미래 방향 제시와 같은 학문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음
- 학술적 연구는 지역학이 추구하는 대상영역에 대해 추상적이고 문제해결이나 정책방안보다 학문적 이론적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
- 이러한 지역학의 양태에 대해 김양식(2016)은 지역학은 지역성(Locality)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지역의 주체는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앎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
- 따라서 정책 및 학술적 지역학의 개념은 목적, 대상, 방법론적 차이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내재하고 있음
 - > 지역학은 일정한 범위의 지역과 지역주민을 주체로 하는 학문이다.
 - > 지역학은 지역에 대한 학제간의 융합적, 총체적 접근을 요구한다.
 - > 지역학은 지역 정체성 확립과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 지역학은 지역발전을 위한 현실 참여의 실천학문으로 정책적 함의를 내재한다.
 - > 지역학은 특정 지역의 공간, 인간, 시간(역사)를 다루는 학문이다.

2. 지역학의 이론적 논의

1) 지역학의 접근방법

▶ 지역학의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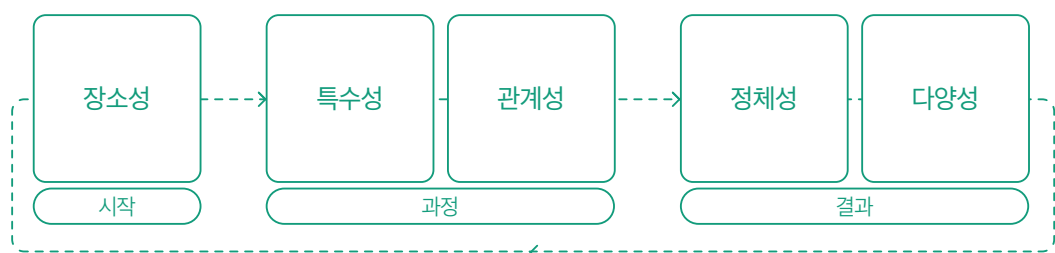
- 앞서 살펴본 지역학의 개념적 구성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지역학은 학제간 총체적 접근을 통해 지역과 지역주민 중심의 지속적이고 주체적 접근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을 추구하며 정정숙(2014)는 이를 5가지의 속성으로 도출

[표 5] 지역학의 속성 요인

속 성	내 용
장소성	특정 장소로서의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
특수성	특정 지역의 특수하고 고유한 역사, 문화, 사회, 일상적 삶의 과거, 현재적 해석과 미래의 방향을 도출
관계성	해당 지역의 과거,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지향할 때, 그러한 해석에 있어서 지역주민 간 혹은 주변지역, 중앙의 입법, 행정, 사법기관과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
정체성	연구의 결과는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으로서의 고유한 지역 정체성을 인식, 강화 혹은 확대하는데 기여함
다양성	지역학의 연구결과는 결국 각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보여주고 그것들의 총체인 국가, 지구촌의 문화다양성을 풍부하게 함

자료: 정정숙(2014), 노영순 이상열(2018) 참조

- 이와 같은 5가지 속성은 다음과 같은 관계의 흐름들을 통해 지역학을 형성하게 되며 장소성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어 궁극적으로 지역 정체성과 다양성의 형성을 도모함



[그림 2] 지역학 속성들의 관계도

▶ 지역지리학적 속성과 변화

- 지역학은 본질적으로 공간 지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지리학의 변화에 따른 접근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과거의 지역지리학적 접근방법은 경험과 실증주의에 기반하여 지역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임
- 이에 新 지역지리학 관점은 수동적으로 고착화된 지역을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접근방법으로 이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6] 지역지리학의 개념적 변화

구분	전통지역지리	지역지리	新지역지리
목적	영토에 관한 지리적 정보 제공	장소 공간에 대한 이해, 공감, 애정 고취	로컬리티의 역동적인 생산, 변화과정을 설명
연구 방법	사실 기술	기술, 설명, 이해, 해석	설명, 이론화, 스토리텔링
고유성 동인	지역 내 자연, 인문적 요소의 결합	지역 내요인들의 결합과상호작용	지역간 상호작용
연구 함의	지역을 이해하는 도구	지역을 이해하고 돌보는 도구	지역을 알고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
논의 시기	전통적 연구방법	1970년대 후반 이후	1990년대 이후

자료: 손명철(2017)

▶ 지역문화와의 연관관계

- 지역학 연구에 있어서 지역문화의 연구영역은 지역주민의 삶과 정체성을 탐구하는 학문영역상 가장 기초적인 분야임
- 지역학의 개념이 개인의 삶의 방식과 생활양식이라는 논의에 주목할 때 지역차원의 모든 활동이 지역고유의 문화적 특성에 규정된다는 사실에 기반함
- 지역학은 역사, 지리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의 학제적 성격이 강하지만 지역학의 정체성과 근본적 연구의 방향이 지역 고유의 문화적 특성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지역학 연구의 핵심분야로 인식되고 있음(박재환, 2013)
- 지역사회에서 문화연구는 지역주민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의 가치, 정신적 의미를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이자 기반이라는 점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할 때 역동적인 지역학의 실천적 연구가 가능함
- 결국 지역학 연구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탐구와 연구조사의 과정은 필수적이며 지역대학, 지역문화원, 문화재단 등의 지역문화 관련된 전문기관들의 지역학 연구 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인
- 따라서 전국적으로 문화재단, 문화원 등 문화기관에서 지역학 연구와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학 연구기관에서도 해당지역의 지역문화, 정신문화 관련된 자원의 발굴, 공유 등이 주요한 과제로 설정되고 있음(정정숙, 2014)
- 이와 함께 지역문화정책의 접근과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의 역사와 환경을 연구하는 지역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도시의 정책지원과 확산에서도 지역의 기초여건과 경쟁력 및 특징 확보를 위해 지역학의 연계가 필수적임

2) 지역학 접근방식의 전환

▶ 지역정책과 현장 중심의 접근

- 현재 지역학의 연구는 과거의 역사 및 문화적 자산도 중요하지만 정체성의 강조를 위한 회고적 접근

을 통한 과거 지상주의의 흐름에 대해 한계를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실증주의적 역사주의에 입각하여 지역의 과거 사실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소극적 향유의 개념에서 벗어나 현재의 주체들이 함께 구성해 나가는 현장중심의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지역학은 영역이 구분되고 학문적 차원으로 화석화된 지역학의 한계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과 직접 연계되는 정책적 활용을 강조하고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노영순·이상열(2018)은 지역학이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정책 지역학'을 지양해야 함을 주장
- 정책의 근본적 목적은 사회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있으며 이를 위해 인간이 사회 속에서 봉착하는 문제들의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성찰적 사고를 바탕으로 처방적, 맥락적, 연합학문적 지향성이 핵심(권기현, 2012)
-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지역학은 단순한 지역 지리 및 인문역사에 대한 실증주의적 탐구에서 나아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요인과 문제들에 대한 현장중심의 접근과 함께 주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문제의 접근, 문제해결을 위한 처방적 접근이라는 현실기반의 변화가 필요함
- 결국 지역학은 지역의 인문학적 자원과 정체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공적 차원에서 현재 지역의 사회적 현상과 주민의 삶에 대한 문제발굴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현실적 시각에서 농어촌 과소지역 확산과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도시재생 및 재개발 사업의 추진에서 공간 본연의 정체성을 왜곡하거나 소멸되는 문제들이 발생함
- 현재 지역경쟁력이 지역의 문화적 가치에 있다는 점에서 사업 전·후의 로컬리티(지역 정체성)의 계승, 발전하기 위한 지역학의 현장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 미래지향적 지역학의 전환

- 시간적 의미에서 지역학은 지역의 역사, 인물, 지리, 정신문화, 전통 및 문화유산 등의 과거적 의미를 강조한 한계가 존재함
- 하지만 한국사회의 급속한 산업화, 도시팽창과 재개발, 농어촌의 지역소멸 등으로 과거 문화와 유산의 소실 및 변화의 움직임에 직면해 있음
- 권영재(2017)가 강조한 바처럼 지역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제조명 및 미래자산으로 활용을 강조하는 미래유산 정책은 공공문화자산의 회복, 공유를 통한 미래가치화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담보하고 있음
- 이러한 미래지향적 지역학은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인 지역 공공문화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지역 정체성 기반의 공동체성과 시민의식 강화의 밑거름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처방적 가치가 높음
- 나아가 지역특색에 기반한 지역문화자산의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활용으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학의 정책적 활용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그리고 지역주체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 현재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지향성을 발굴하여 이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새로운 정체성의 발굴과 공유의 전환이 필요함
- 이러한 지역학의 미래적 관점은 역사적인 정체성 중심으로 접근하던 관행을 극복하여 미래지향적 지역정체성 탐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닫힌 정체성'에서 '열린 정체성'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 관련되어 일본의 경우 2013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역학이 미래를 탐구하고 논의하는 '방향성의 지혜'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에서 지역학의 관점이 과거에서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식(김양식, 2016)
- 결국 지역학이 지역성 탐구의 학문이라는 점에서, 지역학의 궁극적 목적은 더 나은 지역을 만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에 지역학은 미래 가치와 결합되어야 지속가능성과 가치확장을 도모할 수 있음

-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지역학의 탐구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요인들의 중첩된 결과로 나타나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지역 내 다양성과 차이를 동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공동체 회복의 주민참여 기반의 접근

- 변화하는 지역학의 흐름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지역학의 주요 주체로서 주민과 공동체의 참여기반을 강조해야 하는 당위성
- 학문만 지역차원에서 접근이 아니라 보편적 연구방식과 중앙의 논리와 관점에서 지역을 대상화시켜 비교의 경향보다는 지역 고유성, 독창성 발굴을 위해 다양한 진흥사업들의 지역 중심의 마인드 전환이 시급
- 과거에 대한 연구자 중심의 학문영역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실천적 학문으로 지역학이 강조된다면 지역현장의 주체들인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적극 참여하는 연구와 진흥정책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주목(노영순·이상열, 2018)
- 지역의 문화와 자산을 실제 향유하며 형성해가는 주체로서 주민과 공동체는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지역학에 참여해야 하며 발굴·보존된 자산들을 새로운 지역의 가치로 조명·활용하는 주체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음
- 지역학의 연구가 주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단위로 진행되어 거시적 지역사회의 연구체계를 기반으로 하였지만 마을(village), 지구(district) 등과 같은 소지역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기서 삶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현재의 지역학의 연구에서 주민과 지역주체들이 학습과 향유의 소극적 주체였다면, 지역학 전환을 위해 지역학을 연구자와 함께 공동생산하는 적극적 주체의 변화가 요구됨
- 이에 김양식(2016)은 충북학 연구 및 진흥의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와 함께 지역민 주도로 지역에 산재한 지역자산(이야기, 사진, 문서, 유적 등)을 조사·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DB구축과 아카이빙하여 공유의 기능을 제시함
- 따라서 지역학은 지역주민 및 조직적 시민단체와의 결합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참여형 연구를 지향하고 이를 위한 끊임없는 인식확대, 교육 및 홍보, 전문인재 양성 등의 내부적 역량도 함께 향상되어야 할 것을 함께 강조함

▶ 주민참여 기반의 로컬리티 기록화

- 구체적인 지역학에서 공동체와 주민참여의 양태는 '로컬리티 기록화'를 통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주민 등 지역주체들이 다양한 활동과 이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을 수집, 생산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음(설문원, 2012)
- 로컬리티 기록화는 지역에 토대를 둔 행위주체들이 다양한 활동과 이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을 수집, 생산하는 활동이며 주민 등 당사자들이 기억의 담지자이자 생산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영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로컬리티 기록화 활동 및 정책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과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인지
- 로컬리티 기록화는 과거 수집중심의 전문가를 통한 증거화가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기록 생산자와 이용자가 기록화에 함께 공동생산하는 구조이며 기록 대상의 지현을 고려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기록을 수용하며 기록의 현재적 해석과 활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설문원, 2012)
- 이에 김양식(2016)은 지역학은 연역적 연구보다 귀납적 연구를 지향해야 하며 지역내 시간과 기억에 가려진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 담론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중심의 주체적 관점을 갖고 외부 문화와 이념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져야 함을 강조

1. 충남인의 사회인식

- 충남학은 충남인과 충남지역에 대한 종합적 인식의 연구에 토대한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도민들이 충청남도의 거주와 삶의 질, 공동체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는 매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충남사회지표를 기반으로 충남사회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2020년, 2021년의 충남사회조사의 주요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 충남의 사회조사

1) 충남의 인구와 가족구성

▶ 충남의 인구변화

- 충청남도의 2021년 인구 성장률은 -0.13%로 전년대비 0.01% 감소하였고 전국과 비교하여 0.09%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양군은 -2.42%로 가장 낮음
- 충남의 인구 성장률은 2018년까지는 0.45로 정체기를 보여왔으며 201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연령별로 보자면 충남은 45-49세가 8.0%로 가장 많으며 50대까지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으나 60대 이후로는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
- 충남은 노령화지수는 148%로 전년 대비 10.5%상승하였고 시군별로는 청양군(51.9%)이 가장 높고 계룡시(74.8%)가 가장 낮음

▶ 충남의 가족구성

- 충청남도의 결혼 이민자를 살펴보면 남성이 외국인 아내와 혼인한 건수는 580건이며 외국인 남편과 혼인한 건수는 151건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높음
- 특히 천안시와 아산시의 결혼 이민자 혼인건수가 가장 많음
- 충청남도 출생아수는 2020년 11,950명으로 2012년 20,448명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충청남도 합계출산율은 1.03명으로 전국 평균(0.84명)보다 높으나 부여군은 0.81로 가장 낮음
- 충청남도 1인가구수는 전체 34.2%로, 2인가구수는 29.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3인가구 이상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충청남도 가족관계의 만족도는 10점기준 7.79점으로 전년대비 0.12점 증가하였으며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음

2) 충남도민의 교육인식

▶ 학부모의 교육환경 만족도

- 충청남도 학부모들은 교육환경에 대해 10점 기준으로 공교육 만족도는 4.83점, 학교 교육 이외 교육 기회 충분도는 4.11점
- 특히 공교육 만족 비율이 전년 대비 6.9% 감소하여 23.5%, 학교교육 이외 교육기회 충분 비율이 14.6%로 나타남

▶ 평생교육 참여기회

- 충남 도민 평생학습 참여율은 6.7%로 전년대비 4.9%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9년, 2020년에 비해

2021년의 참여율 감소폭이 확대되었음

- 평생교육 정보획득 경로는 가족 및 지인소개가 5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47.3%로 높음
- 평생교육 기회의 충분도는 10점 기준에 4.43점으로 나타났으며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21.1%로 충분하다는 응답 10.7%보다 높음

3) 충남도민의 거주와 여가 인식

▶ 도민들의 거주기간 및 의사

- 도민들의 충청남도 거주기간은 평균 32.1년으로 나타나며 이는 2019년이나 2020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 충청남도 거주기간은 20년 이상이 62.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5년 미만이 11.2%, 15-20년이 9.2%임
- 충남도민의 향후 10년 후 정주의사는 10점 기준 6.96점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 하였음
- 향후 10년 후 도민들은 충남에 거주하고 싶다가 68.4%이며 거주하고 싶지 않다가 12.1%로 나타남

▶ 도민들의 여가 인식

- 충남도민들의 문화여가시설(접근성과 충분정도) 만족도는 4.31점이며 전반적인 여가활동의 만족도는 4.35점으로 나타남
- 특히 문화여가시설(접근성과 충분도)의 만족은 54.5%이고 전반적인 여가활동의 만족도는 56%로 나타나 불만족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3. 충남도민의 공동체 인식

▶ 자살과 삶에 대한 정서적 인식

- 충청남도 2020년 충남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34.7명으로 전년 대비 0.5명 감소하였으나 전국 대비 9명이 더 많음
- 특히 만65세 이상 인구의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57.1명으로 전국대비 15.4명이 더 많음
- 이와 함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보면 2020년 기준 10점 기준 6.19점으로 매해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 생활만족도는 5.99로 삶에 대한 만족보다 낮음
- 정서적 경험을 보면 행복의 경험은 6.19로 근심/걱정 4.73점, 우울 3.80점보다 높으나, 근심/걱정과 우울의 점수는 다소 상승하였음

[그림 3] 충남인의 삶의 만족 인식

(단위 : 절, %, %p)

지표	세부항목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증감
삶에 대한 만족감 (10점만점 평균)	삶에 대한 만족	5.61		5.70	-	5.97	6.08	6.13	6.19	0.06▲
	삶에 대한 가치	5.84	-	5.86	-	6.03	6.03	6.32	6.29	0.03▼
	거주시군 전반적 생활 만족도	-	-	-	-	-	-	-	5.99	-
정서경험 (10점만점 평균)	행복	6.04	-	6.03	-	6.05	6.11	6.22	6.19	0.03▼
	근심/걱정	4.22	-	4.28	-	4.42	4.43	4.37	4.73	0.36▲
	우울	3.43	-	3.49	-	3.72	3.76	3.62	3.80	0.18▲
주관적 귀속 계층	사회경제적 지위 '상위'	14.9	-	6.4	5.5	5.7	1.9	1.9	1.7	0.2▼
	사회경제적 지위 '중위'	40.6	-	48.6	-	46.1	63.6	64.6	65.3	0.7▲

지표	세부항목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증감
주관적 귀속 계층	사회경제적 지위 '하위'	44.5	-	44.9	45.5	48.2	34.5	33.5	33.0	0.5▼
	사회경제적 지위 '진보'	24.5	-	15.7	17.7	20.7	21.0	22.6	22.4	0.2▼
	사회경제적 지위 '중도'	49.3	-	60.0	-	53.8	61.1	59.5	59.4	0.1▼
	사회경제적 지위 '보수'	26.1	-	24.2	23.3	25.5	17.9	17.9	18.3	0.4▲

▶ 충남도민의 공동체 도움 인식

- 다음으로 충남도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90% 도민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각 지역별 편차는 존재함
- 이와 함께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사회 안전망 인식이 높고, 고령자 일수록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저소득층일수록 사회적 안전망 인식이 낮음

[그림 4] 충남인의 공동체 도움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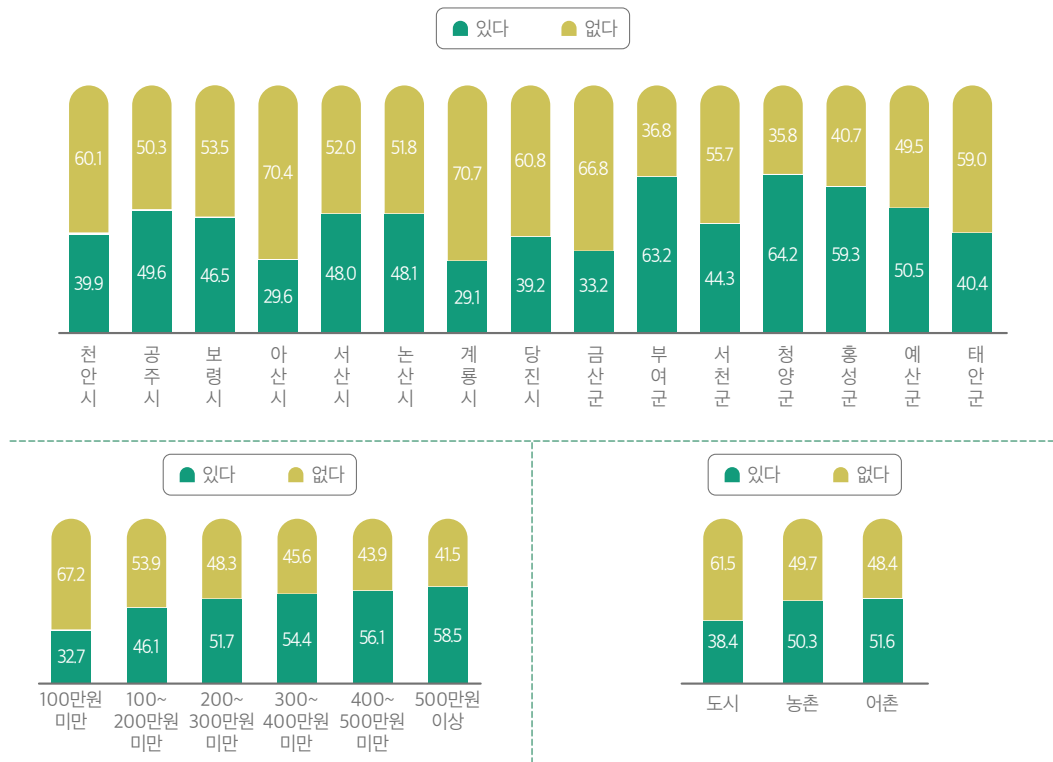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 충남도민의 공동체 활동

- 충남 도민들은 전체적으로 공동체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이 44.9%이며 가입된 공동체조직이 없다는 응답은 55.1%를 보이고 있어서 절반 정도 활동하고 있음
- 시군별로 보면 공동체 활동에 대한 실제 활동 현황은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농어촌 지역의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조직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소득수준의 응답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공동체 활동이 없다는 대답이 67.2%이며 반대로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계층은 58.5%가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

[그림 5] 충남도민의 공동체 활동 인식

(단위 : %)



▶ 충남도민의 공동체 구성원 인식

- 충남도민 마을구성원간 ‘서로 잘 알고 지낸다’는 응답이 평균적으로 5.87점으로 가장 높고 ‘동네 행사와 모임에 적극 참여한다’는 응답이 4.89점으로 가장 낮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가 5.43점으로 인식 뿐만 아니라 실천적 행위도 평균 수준
- 남성보다는 여성이 지역공동체에 관심이 많고 활동적이며 지역별로는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등 군지역이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등 도시지역보다 지역공동체 의식이나 참여인식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응답자들이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에 대해 관심과 참여가 높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10대와 20대의 젊은 계층일수록 지역사회, 동네,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낮음

[표 7] 충남인의 공동체성 인식 수준

(단위 : 점(10점 기준))

구분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동네의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	동네 행사와 모임에 적극 참여한다
전체		5.87	5.32	5.43	4.89
성별	남성	5.70	5.15	5.30	4.83
	여성	6.02	5.48	5.54	4.94
시군별	천안시	4.31	3.75	3.75	3.14
	공주시	5.81	5.34	5.45	5.02
	보령시	6.20	5.70	5.79	5.14
	아산시	4.77	4.33	4.42	3.98
	서산시	5.69	5.05	5.14	4.71
	논산시	6.25	5.67	5.86	5.35
	계룡시	4.74	4.24	4.66	3.87
	당진시	5.77	5.27	5.49	4.85
	금산군	6.31	5.52	5.76	4.84

구분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동네의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	동네 행사와 모임에 적극 참여한다
시군별	부여군	7.27	6.96	7.05	6.69
	서천군	6.77	6.00	5.82	5.14
	청양군	6.76	6.08	6.32	5.91
	홍성군	5.89	5.41	5.58	5.19
	예산군	6.61	6.18	6.09	5.71
	태안군	7.20	6.65	6.53	6.12
연령별	15~19세	4.00	3.28	3.66	2.93
	20대	3.63	3.10	3.36	2.70
	30대	4.12	3.58	3.77	3.06
	40대	4.67	4.00	4.27	3.55
	50대	5.63	5.05	5.24	4.75
	60세 이상	7.01	6.52	6.49	6.05
가구 소득별	100만원 미만	6.74	6.20	6.11	5.56
	100~199만원	6.36	5.89	5.96	5.54
	200~299만원	5.51	5.00	5.13	4.73
	300~399만원	5.23	4.66	4.89	4.40
	400~499만원	5.15	4.51	4.72	4.19
	500만원 이상	5.06	4.44	4.76	4.19
지역 특성별	도시	4.58	3.99	4.14	3.51
	농촌	6.96	6.45	6.52	6.08
	어촌	7.08	6.71	6.38	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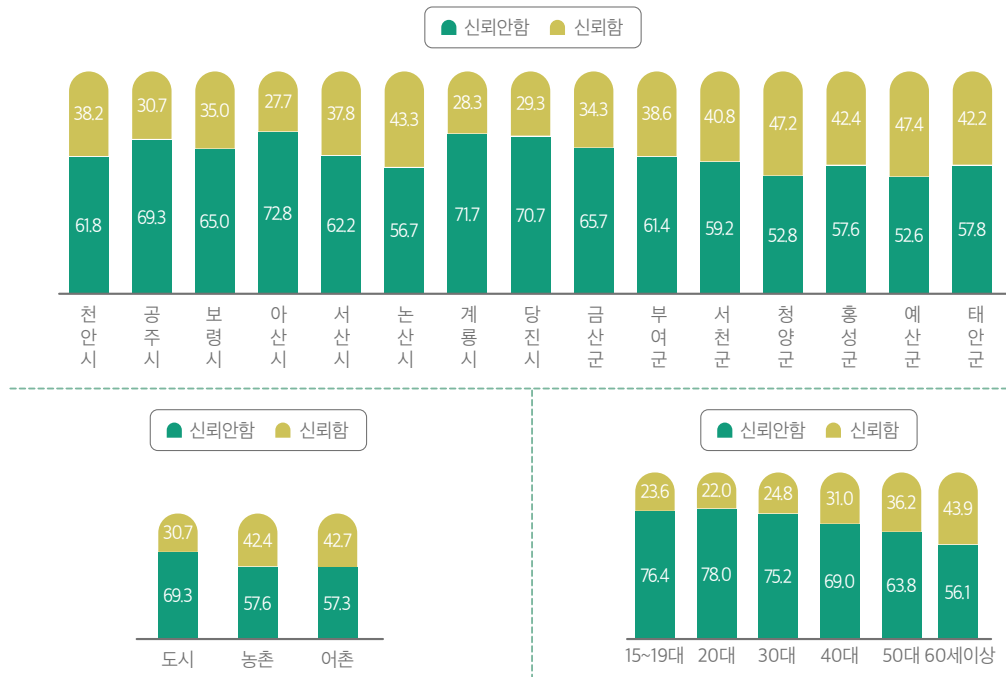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적색표기는 각 영역별 특징적인 인식결과를 반영

▶ 충남도민들의 신뢰 인식

- 충청남도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정도는 37.0% 정도 신뢰하고 63.0%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10점 척도로는 4.27점으로 사회적 신뢰의 정도가 높지 않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지역은 사회 구성원으로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40%를 넘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시단위에서는 30% 미만의 응답자만이 신뢰한다고 하여 낮은 신뢰를 보이는 특징이 있음
- 충남에서는 도시지역에서 도민들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 축적이 부족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나 실제 활동 또한 대체적으로 비도시 지역에 비해 낮은 현황

[그림 6] 충청남인의 타인 신뢰 인식

(단위 : %)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1. 충남학의 배경과 개념화

1) 충남학의 배경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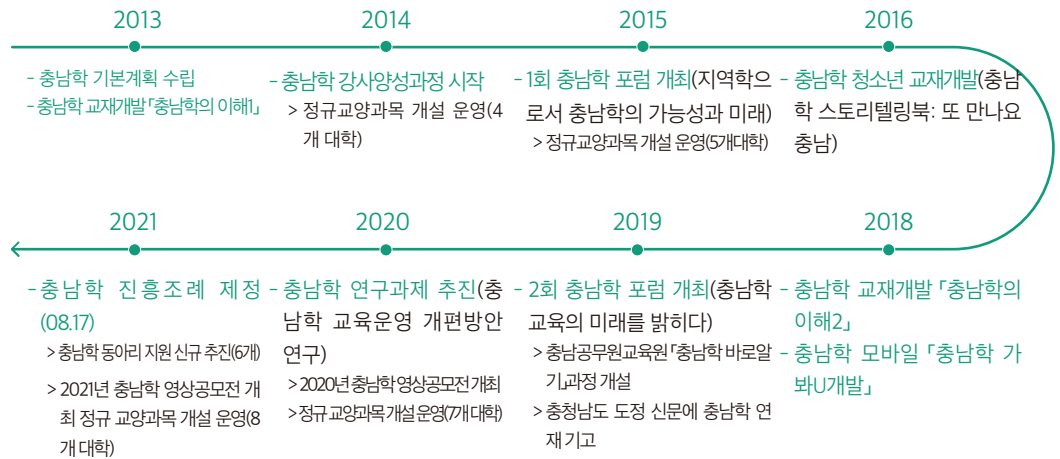
▶ 충남학 대두의 배경

- 충남학은 2013년 본격적으로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는 충청남도의 도청이 대전에서 홍성군 내포신도시 이전을 통한 충남학 정체성 확립 필요성에 의해서 대두됨
- 충남은 80년 대전 청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내포 청사 이전의 변화기를 맞아 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을 모색하게 된 정책적 목적이 있음
- 충남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논의된 것은 충청남도과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미래가치 확보를 위한 충남 도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지역학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강의 방식으로 충남학이 정책적 도입
- 이후 2013년 8월부터 충남학 기본방향 수립 연구용역 실시와「충남학의 이해」교재발간으로 2014년 본격적으로 실시됨

▶ 충남학 추진의 경과

- 충남학은 2013년 본격적으로 정책추진이 시작된 이후 개발된 충남학 교재를 기반으로 2014년 충남학 교육을 실시할 강사 양성과 4개대학에서 정규 교양과목이 개설되었음
- 2015년에는 '지역학으로서 충남학의 가능성과 미래'라는 주제로 1회 충남학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2016년에는 청소년 대상 충남학 교재(충남학 스토리텔링북)가 개발되었음
- 2018년에는 5년전 개발된 충남학의 이해 교재의 개정판으로 '충남학의 이해2'가 개발되었고 스마트폰으로 활용한 모바일 앱인 '충남학 가봐U'가 개발되었음
- 2019년에는 2015년에 이허 2회 충남학 포럼이 충남학 교육의 미래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고 충남공무원교육원(충남인재개발원)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충남학 바로알기' 과정이 개설되었음
- 2020년에는 충남학 교육운영 개편방안을 위한 연구과제가 추진되었고 충남학 영상공모전을 개최하여 홍보와 인식확산이 진행되었음
- 2021년에는 충남학의 제도적 지원기반으로 '충남학 진흥조례'가 제정되었고 충남학의 자주적 학습을 지원하는 '충남학 동아리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음
- 이후 충남학 확산을 위해 대학을 포함한 지역사회 교육확산을 위한 전략과 도민 대상 홍보 및 체계적 지원정책 구축으로 사업의 확대와 체계화를 추진

[그림 7] 충남학 추진정책의 경과



2) 충남학의 개념과 목적

▶ 충남학의 개념화

- 우선 충남학 진흥 조례에 의하면 충남학은 충청남도과 관련된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건축·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으로 정의
- 2014년 수립된 충남학의 최초 기본계획인 「충남학 기본방향 수립 및 교재개발」에서는 충남학이란 충남의 역사·문화와 충남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남다움과 충남인다움을 발굴하여 충남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충남발전과 충남의 삶의 질 향상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함
- 특히 정의에서 제시하는 충남다움과 충남인다움은 충남과 충남인의 특성을 말한 것으로 충남의 정체성을 도출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 측면이며 충남학 진흥의 근본목적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충남 정체성 정립에는 충남과 충남인의 지역공동체적 과제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충남인다움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을 것임
-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충남학은 충남인의 삶의 질 향상을 탐구한다는 측면에서 발전과 향상을 언급하고 있으며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내용도 강조하고 있음

▶ 충남학의 목적

- 충남학의 개념은 진흥 목적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으며 결국 충남학을 통해 정책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의 기여점을 통해 규명
- 충남학 목적은 충남의 특질을 발굴하여 충남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로써 충남인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높임으로써 충남발전과 충남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21세기 우리나라 문화강국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결국 충남학의 목적은 단순한 사료조사와 발굴이 아니라 충남학 진흥으로 인한 효과가 지역주민의 정신적 풍요와 삶의 질 향상으로 나아가야 하며 문화강국의 거시적 담론으로 나아가기를 지향하고 있음

2. 충남학의 범주와 주요내용

1) 충남학의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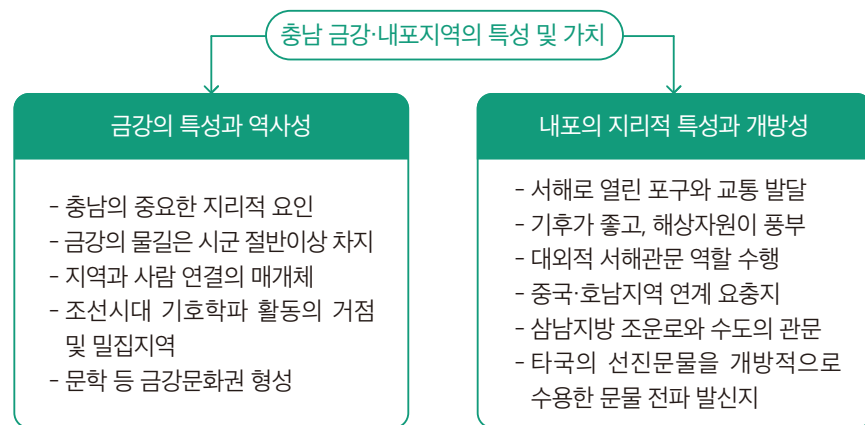
▶ 충남학의 시공간적 범주

- 충남학은 충남의 총체적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시공간적으로 충남의 과거, 현재, 미래의 충남 모습을 대상으로 함
- 따라서 충남학은 과거의 전통과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하지만 현재의 충남모습과 경제 및 사회적 현

상,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인 충남의 변화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 충남학 학문의 목적과 범주는 개념에서 제시하는 충남다움과 충남인다움을 규정할 수 있는 요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거와 현재의 충남에서 살아가는 동시대인의 동일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변적으로 연구범위와 대상은 조정될 수 밖에 없음
- 충남학의 목적인 충남다움은 자연환경적 요소, 문화자원적 요소, 인문사회적 요소로 구성되어 이에 대한 교육 내용을 범주로 함
- 충남의 과거 역사 및 전통문화와 정신사적 흐름은『충청남도지』25권과 충청남도 소속 시군의 『시군지』,『향토회연구지』 및 기타 학술지 관련 내용을 통한 종합될 수 있음
- 충남의 공간적 구분은 역사적으로 금강문화권과 내포문화권으로 구분하며 이에 따른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의 차이가 부각되었음
- 금강 문화권은 금강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양반문화와 관련 문학의 근간지역이며 내포 문화권은 교통발달로 인한 개방성과, 신문물의 발신지로 지역적 특성이 구분됨

[그림 8] 충남 금강과 내포지역의 특성



▶ 충남학의 분야별 연구영역

- 지역학은 분야별 연구영역을 분리할 수 없는 총체적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충남과 관련된 모든 분야 학문의 학제적 연구의 집성이 될 필요성
-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분야는 충남다움과 충남인다움으로 구분하여 제시 가능함
- 충남다움은 충남의 자연환경적 요인과 문화자원, 산업 및 경제의 현대적 요인들을 거론할 수 있으며 이와 연관된 역사 및 문화유산, 축제 등의 문화자원과 현재 충남의 경제산업활동, 자연환경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충남인다움은 충남의 인문사회적 요인을 기반으로 충남의 인물, 충남의 정신사적 흐름, 정서적 특징과 이에 기반한 정치행정적 요인으로 구성할 수 있음
- 특히 충남인다움은 충남인으로 지역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정신적 요인에 기반하여 충남의 5대정신 등의 요인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역학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질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외부환경 및 지역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통해 규정해가는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

2) 충남학 기반의 충남정신

▶ 충남학을 위한 충남정신의 정립

- 충남학에서 탐구하는 목적인 충남다움과 충남인다움을 규정하는 요인발굴을 위해 인문학적 기반에서 탐구해온 것은 충남정신의 발굴과 정립으로 충남정신의 강조와 발표는 1989년 심대평 전 지사시기에 추구

- 타 지역과 달리 충남은 충남학보다 충남의 정신적 가치발견과 구성에 주목하였고 이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도덕적 문화인식의 필요성에 따른 목적의식에 기반(한기범 외, 2014)
- 역사적으로 충청도가 충절의 고장, 양반의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이러한 기질적 특성을 계승하여 충청도의 정신들을 구체화할 필요성에 의해 5가지의 충남 정신으로 도출됨

[표 8] 5가지 충남정신의 도출

충청도의 인식	충청의 인식과 충남정신	충남의 5대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절의 고장 - 충청도 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절정신: 충효정신, 절의정신 - 양반정신: 선비정신, 예의정신 - 개척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효정신 - 절의정신 - 선비정신 - 예의정신 - 개척정신

▶ 충효정신

- 충남학에서 강조하는 충효정신은 요규윤리의 근간을 이룬 충효사상에 기반하고 있으며 임금(국가)를 섬기는 도리를 忠, 부모를 섬기는 도리를 孝라 하였음
- 충남의 역사적 인물인 백제의 계백장군, 고려의 최영장군, 조선의 이순신 장군 등을 통해 충의정신을 구현한 충남의 대표적 인물들로 거론하고 있음
- 효의 경우 충청도에서 '지기의 효'를 실천한 김집, '구운몽'의 저자로 소통의 효를 강조한 김만중 등을 대표적인 인물들로 거론하고 있음

▶ 절의정신

- 절의정신은 옳다고 믿는 것을 굳게 지켜 뜻을 굽하지 않는 절개와 의리의 정신을 거론하며 忠의 정신과 함께 충절로 언급되기도 함
- 실제 충청도는 충절의 고향으로 불리며 충절의 인물들을 다수 배출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의 성삼문, 박팽년 등의 인물과 함께 항일투쟁시기의 윤봉길, 유관순 열사 등도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됨

▶ 선비정신

- 선비는 500년 유교국가 조선이 육성하고자 하였던 이상형의 인간상이며 유교적 소양을 갖춘 존재이며 기본적으로 성리학에 바탕으로 두고 있음
- 선비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모범적인 삶을 영위하는 지식인이며 품위있는 교양인이자 지행합일을 강조하는 실천적 인물의 표본임
- 조선시대의 선비는 돈암서원, 충현서원, 노강서원 등 충청도의 대표적 서원에 배향된 유현들과 구한말 의병장 최익현 등으로 대표될 수 있음

▶ 예의정신

- 예의정신은 공경하고 겸손한 처신으로 사람의 가치와 도리를 잘 지키는 정신을 의미하며 이는 예의를 중시한 조선시대 예치국가의 기본 이념이었음
- 예는 하늘의 이치인 인간의 타고난 성품을 따르는 하늘의 도리이며 핵심은 인간의 잘못된 욕심이 동하지 못하도록 삼가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을 의미
- 예의정신에 기반한 성리학은 조선사회의 지배정신이었는데 특히 충청도는 조선예학의 중심지로 김장생, 송시열, 윤휴 등 호서예학파의 중심지였음

▶ 개척정신

- 개척정신은 새로운 분야에 처음으로 도전하여 창의적으로 새 길을 여는 정신을 의미하며 백제시대부터 충청도의 개척정신이 탁월하였다고 평가
- 고려시대에는 최초로 성리학이 보급된 지역이며, 18세기 실학자 홍대용, 김정희를 중심으로 실학의 개척자의 사고가 전파되었으며 김대건 신부로 대표되는 천주교의 주요 전파지이기도 하였음

3) 충남학 주요내용과 충남학 총서

▶ 충남학 교육의 주요내용

- 현재 진행되는 충남학의 핵심 교육내용은 2014년, 2017년 출간된 「충남학의 이해」1,2권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실시됨
- 충남학의 이해 교재는 2014년 1권이 출간되고 개정과 새로운 영역의 추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권이 2017년도에 출간됨

▶ 충남학 총서 「충남학의 이해1」

- 충남학의 이해 1권은 충남의 지리적 특성과 전통과 역사를 중심으로 본 충남의 특성, 문화유산과 공동체적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이전 지역학의 지리, 역사, 문화를 강조하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로 전통에 기반한 충남인의 정체성 형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와 함께 내포 및 금강지역을 구분하여 지역학적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유교문화 및 백제문화권에 대한 답사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음

[표 9] 충남학의 이해1 교재 구성

분류	주제	내용	비고
지역학	1. 충남학이란 무엇인가	충남학의 개요, 총론	
지리와 역사	2. 충남은 지리적으로 어떤 곳인가?	충남의 지리적 특성	
	3. 한눈으로 보는 충남 역사	지역사로서의 충남 역사	
선비의 학문과 실천	4. 충남유학의 학맥과 학풍	유학적 학맥과 학풍의 특색	
	5. 양반의 고장, 충남	충절의 고장, 예의의 고장 충남	유교유적 답사
	6. 충남지역 항일독립운동	충남지역 독립운동의 전개와 의의	
공동체 사회와 민속	7. 향촌사회와 공동체 문화	혈연공동체와 촌락공동체	
	8. 충남 최고의 영산: 계룡산	산악신앙과 계룡산	
	9. 충남의 전통축제: 신명나는 충남인	기지사줄다리기, 은산별신제 등 기타 민속축제들	
돌보이는 문화유산	10. 백제의 미소에서 추사고택까지	백제의 미소, 창의성의 터전	백제문화유산답사
	11. 지역문화로 본 충남의 고건축	충남의 건축의 특색	
금강 누정문화와 여성문학	12. 금강의 누정문화	누정과 정자	
	13. 충남의 여성문인과 문학	충남여성문인의 삶과 문학, 그 의미와 특성	
문화권과 비전	14. 내포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성격	내포의 지명유래, 내포의 현재와 비전	
	15. 금강유역 충남유교문화원의 가치와 전망	금강의 가치, 금강유교문화권의 전망	

▶ 충남학 총서 「충남학의 이해2」

- 충남학의 이해 2권은 2017년에 1권에 대한 개정판 형식으로 출간되었으며 1권에서 다루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음
- 주로 1권이 전통, 역사, 지리적 인문정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2권은 충남의 자연생태와 환경, 교육, 지역산업과 경제와 같은 현재적 관점으로 충남학을 규정하는 전환을 도모하고 있음
- 본 교재는 충남학의 주 교재로 활용하기보다 시·군 및 대학에서 충남학 교육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표 10] 충남학의 이해2 교재 구성

분류	주제	내용
총론	충남학 총론: 과제와 방향	생태, 문화, 정신의 21세기 그리고 충남 무엇을 위한 충남학인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충남학의 과제와 방향
생태환경	충남의 자연생태와 미래 - 충남인과 함께 살아온 충남의 생물들	충남인과 함께 살아가는 생물들 충남의 자연환경 충남의 역사를 간직한 토산물과 기념물 충남을 대표하는 특산물과 상징물 환경변화에 따른 충남의 미래와 생물
교육	배움의 숲, 인재의 땅 충남 - 사람을 키우는 교육, 충남을 만드는 교육	교육을 통한 입신양명, 개천에서 용난다 미래에 대비한 교육은? 배움의 숲, 인재의 땅 충남을 창조하자
문화·예술	충남문화예술의 전개과정과 유산 -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로서 문화예술	역사적, 사회적 생산물로서 문화예술 충남문화예술의 유산 충남문화예술의 현재 충남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
관광·문화 콘텐츠	관광 충남 - 충남의 빛과 콘텐츠를 보다	우리가 관광을 하는 이유와 특성 충남의 관광콘텐츠와 행복한 만남 미래 충남관광의 질적인 제고를 위하여
지역산업 ·경제	글로벌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충남 - 사람을 행복하게, 지역을 가치있게	충남 산업의 현재와 비전 신기술 기반 산업으로 미래를 열다 지역자원의 재탄생1- 향토산업과 6차산업 지역자원의 제탄생2- 연고(전통)사업 행복한 성장을 위한 꿈과 도전, 충남경제비전 2030

03

충청남도 충남학 종합계획 수립연구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 지역학 정책운영 현황	42
2. 국외 지역학 정책운영 현황	65
3. 사례분석의 함의	66

국내 지역학 정책 운영 현황

1. 지역학의 제도적 현황

1) 지역학 관련 법률

▶ 지역학 관련 법률 현황

- 우리나라의 지역학 관련된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 제도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된 내용으로 문화 및 교육 관련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지역학 관련된 정책영역중 문화정책 관련된 법률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참고할 수 있음
- 교육정책 영역 관련되어서는 「평생교육법」,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이러한 법률들의 지역학 주요 내용들은 지역사를 비롯하여 지역문화 기초한 자원조사 및 정보화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종합학문으로 지역학 기반의 법률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표 11] 지역학 관련 법률

영역	법률	주요내용
문화분야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이나 공통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 - 지역문화 진흥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있는 조화 ②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③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④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 우선적 보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 인문학 자료의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에 명시
	지방문화원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문화원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② 지역문화(행토자료 포함)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교육분야 법률 (교육부)	평생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학강좌: 지역단위 시민역량 강화 지원 명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조: 국내외 사료의 조사·수집·보존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시행과 같은 국사편찬위원회 업무 - 12조: 사료조사 기반

- 따라서 충남학을 비롯한 지역학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중앙차원에서 문화 정책영역을 포함하여 지역학 관련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2) 지역학 관련 조례와 정책

▶ 지역학 조례의 제정

- 지역학은 광역 및 기초의 지방차원의 정체성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법률인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상황
-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학 조례는 주로 지역학 진흥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역학센터 근거조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민간기록물 수집 관리도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표 12] 지역학 관련 국내 조례 현황

구분	조례명	관계부서	제정시기
지역학 진흥	광주광역시 호남학 진흥 조례	2017년 폐지	2012년
	경기도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책기획관	2015년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정책과	2017년
	천안시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청소년과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교육지원과	2019년
	나주시 나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과	2020년
	양산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문화관광과	2020년
	여주시 여주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과	2021년
	1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문화정책과	2021년
	대전광역시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책기획관	2021년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	교육법무담당관	2021년
기관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문화정책과	2013년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문화유산과	2017년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2017년

자료: 문정화·김은진(2021)

- 광주광역시 호남학 진흥조례의 경우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지원조례가 2017년 제정되면서 기존 조례는 폐지되었음
- 지역학 진흥조례는 지역학에 대한 개념규정과 진흥을 위한 시도지사의 의무 규정, 계획수립 및 운영 위원회 등의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조례상 지역학 및 지역학 진흥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역학 진흥을 위한 지원 사항은 유사 하며 연구기반 확충, 연구인력 양성, 단체간 네트워크 지원, 아카이브 구축, 인구 질적수준 향상 등의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조례를 통한 집행부의 주요한 부서는 문화예술 및 문화정책 등의 문화예술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대전광역시 및 용인특례시는 정책기획관, 충청남도는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음

▶ 지역학 진흥정책 방향

- 국내에서 정책 및 학문적 활동으로 지역학은 1990년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이후 관련 기관 및 단체 설립이 증가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학의 진흥은 광역단위 출연연구원이거나 관내 대학의 연구소 설립을 통해

주로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지역학 관련 심포지엄, 포럼 등 학술적 행사나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등 간행물 발간이 주요한 활동

- 그리고 최근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주민 및 지역주체들과의 공유, 교육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아카이브의 구축도 주요한 경향임
- 이외의 지역학 진흥을 위한 정책활동은 지방문화원 및 평생학습관 등의 공간을 통해 지역학 강좌 형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답사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충청남도가 대표적인 경우임

2. 지역학 센터의 현황

1) 지역학 운영기관의 현황

- 1990년대 이후 지역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를 진흥·육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
- 초기에는 지역 소재 대학의 인문학 전공을 중심으로 지역학연구소의 운영 사례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의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수립되는 경우가 증가
- 특히 2000년대 이후 지역사회에서 지역학을 다루는 기관 수 및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대학,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및 공공기관, 지방문화원 등 관련 민간기관 등이 있음

▶ 지역학 운영 기관의 종합

- 지역학 관련 운영기관들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13]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학 운영기관 현황

지역	유형	소속기관	기관명	설립시기	비고
서울(1)	대학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3	
인천(1)	대학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2	
경기(4)	공공기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2009	경기문화재단연구원에서 2009년 경기학 연구실 개편
	공공기관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2014	
	공공기관	고양시정연구원	고양학센터	2021	
	문화원	용인문화원	용인학연구소	1992	
충청권(8)	공공기관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센터	1999	
	공공기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2013	
	공공기관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학지역학 연구센터	2021	
	대학	한남대학교	충청학연구소	2001	
	대학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03	
	대학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소	2014	
	대학	나사렛대학교	천안학연구소	2021	
	대학	청주대학교	청주학연구소	2016	

지역	유형	소속기관	기관명	설립시기	비고
영남권(10)	공공기관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소	2005	
	공공기관	울산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2006	
	공공기관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3	
영남권(10)	공공기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학연구센터	2020	
	국가기관	한국국학진흥원	안동학연구실	2001	
	대학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소	2001	
	대학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2005	
	대학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2002	
	대학	경일대학교	경산학연구소	2014	
	대학	경주대학교	독도·울릉학연구소	2001	
호남권(7)	공공기관	광주전남연구원	남도학연구센터	2017	2015년 광주, 전남연구원 통합으로 남도가람연구센터 기능 확대
	공공기관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대학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5	2008년 호남학연구단과 호남문화연구소 통합
	대학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	2017	
	문화원	곡성문화원	심청·곡성학연구소	2001	
	문화원	광양문화원	광양학연구소	2015	
	공공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역사실	2002	
강원권(2)	공공기관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002	2010년 폐쇄후 2018년 재설치
	대학	연세대학교	매지학술연구소	1999	
제주권(2)	공공기관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1	
	대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자료: 노영순·이상열(2018); 문정화·김은진(2021); 연구자 조사 참조

- 전국에서 지역학의 연구 및 교육 등의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35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 다수 분포하고 있음
-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학 진흥기관들은 시도 출연연구기관이나 시도 소속의 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위치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지원을 통한 운영의 형태가 일반적임
- 지역학 연구기관들의 설립연도를 보면 초기 지역학 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1993), 제주대학교(1986), 인천시립대학교(2002) 등 지역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하였고 충북연구원(1999)을 시작으로 시도연구원에서도 지역학 연구가 시작되었음
- 이외에도 경기학을 운영하는 경기문화재단, 충남학을 운영하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한 사례라 볼 수 있음

2)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지역학 기관 활동

- 충남학의 연구범위에 부합하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학을 공공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음
- 대부분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2-4인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인천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시립대학교에서 운영하고 경기도는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 이외 충남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 시도 출연연구기관인 시도 연구원에서 소속된 지역학 연구센터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지역대학과 시도연구원의 지역학 연구기관 운영은 대부분 유사하지만 대학에 비해 시도 연구원에서는 기관 특성상 연구공모와 함께 자체적인 연구과제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도민 대상 교육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됨

[표 14] 국내 광역자치단체 지역학 운영 현황

지역	기관	인력	소속	주요활동
서울	서울학 연구소	3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사업: 서울관련 연간 10편 내 연구과제 지원 발간 - 연구조성: 서울학 정례발표회, 서울학심포지엄, 대학특성화 학술행사 - 연구발간: 서울학 연구총서, 사료총서, 미디어 총서, 번역총서, 서울학모노그래프 발간 - 네트워크: 국내외 지역학 연구기관 교류협력, 지역소재 기관 단체 교류
인천	인천학 연구원	4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사업: 인천지역 역사·문화·사회 연구, 지역 정체성 정립과 특성화 - 연구조성: 인천학 학술발표 및 토론회 개최 - 연구발간: 인천학연구, 인천학 연구총서 시리즈 - 교육사업: 인천대 교양과정운영, 교재발간(인천사회재발견) - 네트워크: 국내외 지역학 연구기관 교류협력, 지역소재 기관 단체 교류
경기	경기학 연구센터		출연기관 (경기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사업: 경기 지역학 연구활성화 공모사업, 경기도 광역, 31개 시군지역학 조사연구, 경기 문화자원 기록화 - 연구발간: 경기학 도서발간보급(역사, 인물), 문화자원총서, 역사자원총서 발간 - 교육홍보: 경기학 인문강좌 동영상 제작, 콘텐츠 대중화 추진 - 네트워크: 국내외 지역학 연구기관 교류협력, 지역소재 기관 단체 교류
부산	부산학 연구센터	2	시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행본발간: 연구논총, 교양총서, 자료집, 교재발간 - 연구사업: 부산학 기획연구, 국제화연구 - 연구조성: 부산학 박람회 개최, 학술세미나 - 교육사업: 부산학 시민강좌 개설, 대학 관련 교과목 개설운영, 홍보와 책자지원 - 네트워크: 국내외 지역학 연구기관 교류협력, 지역소재 기관 단체 교류
대구 경북	대구경북학 연구소	4	시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사업: 대구경북 정체성 확립과 정신문화 관련 연구수행 - 네트워크: 국내외 지역학 연구기관 교류협력, 지역소재 기관 단체 교류

지역	기관	인력	소속	주요활동
울산	울산학 연구센터	3	시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발간사업 : 연구논총, 기획연구, 교양서, 자료집 등 발간 - 연구조성사업 : 정보자료실 운영, 학술행사 개최, 울산학 연구문헌목록집 구성, 자료DB구축 - 교육사업 : 시민교육강좌 실시, 초·중·고 교육용 교재 발간, 지역학 논문 지원 등 - 네트워크: 국내외 지역학 연구기관 교류협력, 지역소재 기관 단체 교류
강원	강원학 연구센터	5	시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구: 토대연구사업, 기획연구추진, 국책 및 지방정부 정책연구 - 연구발간: 연구총서, 자료집 발간, 지식총서, 소식지 '강원나래'발간 - 연구조성: 강원학대회,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교육: 관련 연구자지원 및 발굴양성, 강원학 아카데미 운영 - 네트워크: 국내외 지역학 연구기관 교류협력, 지역소재 기관 단체 교류
충북	충북학 연구소	3	시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연구: 충북학, 증원문화권 학술연구, 구술자료 채록 - 연구발간: 교양총서, 미디어시리즈 간행 - 교육사업: 충북 기행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충북학 교양강좌, 초청강연회, 전문강좌, 특별전시전 운영 - 아카이브: 사료수집, 충북학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터넷서비스, 충북자료센터 운영, 충북학 관련자료 정보서비스 제공 - 연구조성: 매년 워크숍 및 심포지움 개최 - 네트워크: 국내외 지역학 연구기관 교류협력, 지역소재 기관 단체 교류
대전 세종	대전세종 지역학 연구센터	4	시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대전 및 세종시 문화·역사·환경 연구 및 대전학과 세종학 정립 연구사업 수행 - 교육: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 연구조성: 대전학과 세종학 연구단체들간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 아카이브: 대전학과 세종학 아카이브 구축 - 네트워크: 국내외 지역학 연구기관 교류협력, 지역소재 기관 단체 교류
전북	전북학 연구센터	3	시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연구지원: 정체성, 변화상의 인문탐구/경제 행정 등 사회과학탐구/환경, 해양 등 자연과학 탐구/인물, 역사문화적 전통의 번역 - 학술대회지원: 지역학 학술대회와 공동연구 지원 - 우수학위논문지원: 학위논문 지원과 후속세대 양성 - 도민강좌 운영: 전북학 연구결과와 이슈의 도민 공유 - 찾아가는 전북학: 도내 초중고교 연계 전북학 강좌 - 연구조성: 전북도민강좌, 콜로키움 및 세미나, 전북학 대회 운영 - 학술지 운영: 전북학 연구 학술지 발간 추진 - 도내 협력추진: 전주학, 익산학, 군산학 등 시군학과 공동연구, 공동사업 추진 - 대외협력: 강원학, 경기학 등 타 시도 연구기관 네트워크와 업무협력 추진

지역	기관	인력	소속	주요활동
제주	제주학 연구센터	11	시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지원: 제주(해양)문화사, 제주설화, 목축문화, 마을조사, 개발사, 이주민, 지질 수자원, 건축·도시계획, 제주 민속문화연구 - 아카이브: 제주학 기초자료·연구성과·문화자원 db구축, 아카이브 사진영상 수집, 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 - 연구발간: 제주학 총서발간 - 연구조성: 제주학대회 개최, 제주학 국제학술심포지엄
제주	제주학 연구센터	11	시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 제주학 아카데미(구술사 강좌), 제주학 시민학교, 고전강독회, 제주 신화학교 - 역사편찬: 승정원일기 번역, 호적총초 조사연구 - 제주어진흥: 제주어 연구수행, 제주어 연구지원, 제주어 교육강좌 운영, 제주어종합상담실 운영 - 네트워크: 국내외 지역학 연구기관 교류협력, 지역소재 기관 단체 교류

3. 주요 지역학 운영기관의 심층사례

1) 제주학 연구센터

▶ 지원배경과 운영 현황

-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가 유네스코 소멸위기언어로 지정되면서 제주어에 대한 보존·전승의 관심과 함께 제주도민의 삶, 뿌리의식에 기반한 정체성 탐구의 지역사회 요구로 인해 2010년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의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년 8월 제주연구원에 구축
- 제주학연구센터의 초기 구축시기에 제주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였으며 사라져가는 제주어 및 제주 구비문학, 민속학 자료들에 대한 아카이빙 및 보존의 필요성이 강했음
- 제주학에서 제주어 및 자료 아카이브의 필요성 강조에 따라 제주학 기본계획과 함께 별도의 제주어 및 제주학 아카이브 기본계획이 함께 2012년 수립됨
- 2013년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4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제주학 아카이브가 구축·개설됨
-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은 초기 2년간 제주도의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다가 제주학연구센터의 별도 출연금으로 독립화 되었으며 제주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이 겸직하던 센터장은 2016년부터 독립된 별도의 센터장을 채용하여 유지되고 있음
- 현재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연구원 소속기관으로 있지만 ‘(가)제주학진흥원’ 설립을 통해 별도 공공기관으로 독립화를 추진하고 있음
- 제주학연구센터는 현재 근무인원이 11명으로 행정직 2인, 연구직 9인이 근무하여 국내 최대 규모라 할 수 있으며 제주학 연구센터의 운영 심의와 연구주제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2016년에는 규모가 확대됨
- 제주학연구센터의 주요 기능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주학 교류·교육·정책연구 및 사업 분야, 역사편찬연구 및 사업, 아카이브 관리·민속분야 연구, 제주어 연구 및 사업으로 유형화

▶ 제주학 아카이브 프로그램

- 제주학 연구센터는 초기부터 제주학 관련 연구물의 체계적인 수집과 DB화, 보존관리,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활용한 대내외 홍보에 주력하였음

-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제주학연구센터의 웹페이지는 관련 연구자 및 일반인들이 제주학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제주학 자료의 글로벌화와 지식 자산화를 도모하고 있음
- 현재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제주학 아카이브는 분야별 매체별로 구분하여 소장자료를 아카이빙하고 있으며 연구자료의 경우 보고서, 정기간행물, 단행본, 세미나 자료, 논문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포함하여 6,301건이 있음
- 문서자료와 함께 고지도 제공서비스, 다양한 제주도민 삶과 민속, 문화유산 내용의 사진 14,901건과 동영상 1,726건, 음성 구술기록 1,332건 등이 DB화 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연구 및 사료들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는 제주도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각기 주제별 제주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수집하는 사업도 수행
- 2020년에는 '제주의 마을제'를 주제로 자료를 수집하여 사진 4,500여점과 30여편의 동영상이 수집되었고 2021년에는 '제주의 관혼상제'를 주제로 수집하여 사진 600여점, 동영상 7편이 수집되었음
- 제주학 연구센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주학의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조를 안착시키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학 정립과 공동체문화 회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또한 2021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탐라문화 기록참여를 위한 '제주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음
-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탐라 제주의 역사문화 기록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표 15] 제주학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프로그램

회차	강의 내용	강사
1	지역 역사문화 기록화(아카이빙)의 의의와 방법	제주문화재위원
2	민간기록물의 지역자산화와 미래전략화	국사편찬위원
3	기록발굴과 기억복원으로서 제주역사 다시 쓰기	제주대 교수
4	생활사 기록의 가치와 활용 방안	생활사 연구가
5	마을 기록관(박물관)의 의의와 설립 방안	국립제주박물관 학예관
6	앨범을 활용한 자서전 만들기	동화작가
7	사진으로 기록하는 제주 역사와 문화	사진작가
8	구술채록을 활용한 보통사람의 삶 기록하기	제주학연구센터장
9	디지털 환경에서의 현장 기록화 방법	사진작가
10	기록 아이템 선정과 오픈 아카이브 활용방법	제주학연구센터 연구원

▶ 제주학 연구지원사업

- 제주학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지원사업은 제주학총서, 제주역사자료총서 발간과 제주학 관련 연구공모를 통한 보고서 발간이 대표적임
- 제주학 총서발간은 전문적 제주학 연구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총서 출판비를 지원하며 건당 55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제주학 관련 총서는 단행본형태로 2021년까지 제주학 총서는 51권, 제주역사자료총서는 14권이 발간되었고 최근 발간 목록은 다음과 같음

[표 16] 제주학 총서 발간 목록

연도	제주학 총서	제주학 역사자료 총서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역사기행 - 제주서사무가집 - 해녀노래주석사전 - 제주언론의 선비 논객 고영일 - 나요당 기증 제주민요 자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고문서(Ⅰ) - 승정원일기 제주기사(Ⅱ)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도구의 생활사 - 신비, 성실, 모험의 제주 전통경관 - 재일 1세의 기억 - 일본인 인류학자가 본 1971년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녀박물관 소장 자료 번역집 - 프란계문고 제주기사 자료집 - 승정원일기 제주기사(Ⅲ) -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어 길라잡이 - 제일을산다: 어느 시인의 투항사 - 제주 표류인의 이방인의 길을 따라가다 - 일제강점기 제주 지명 문화사전 - 제주 돌문화경관 연구 - 제주 인권 활동가 이야기 사람과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란계문고 제주기사 자료집(Ⅱ)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학 인물사: 20세기를 빛낸 여성들 - 아다치를 통해 본 제일코리안 형성사 	

- 이와 함께 제주학 관련 전문연구자료 발간을 위해 외부공모로 진행된 제주학 관련 연구보고서는 현재 75건이 발간되었음
- 제주학 연구보고서는 매년 특정 주제를 통해 발간되고 건당 2,000만원 이내(보고서 인쇄 제외)로 약 7개월 정도의 연구기간으로 수행되며 심사를 거쳐 3-4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함
- 최근 3년간의 발간된 제주학 연구보고서 목록은 다음과 같음

[표 17] 제주학 연구보고서 발간 목록

연도	제주학 연구보고서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지역 전쟁 유적지 조사 연구 - 제주신화(일반신본풀이) 여신 관련 텍스트 분석 - 제주 육군훈련소 구술조사: 부대시설 위치를 중심으로 - 제주화교 역사 및 문화유산의 발굴에 대한 연구 - 4.3피해자 회복탄력성 연구 -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농업 시스템 내 제주농업문화의 유산적 가치와 사회적 인식확산 - 선사인류의 제주도 정착 및 적응과정 복원 -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의 지오투어리즘 현황과 지속가능발전 기반 구축 연구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어 교육 실태조사 연구 - 정조의 제주통치론 - 이어도 설화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장소성을 중심으로 - 제주신화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 연구: 그리스 신화와 비교 - 제주도민의 생물지리학적 기원과 유전학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 - 성 이시돌 목장 테쉬폰 주택 생활문화 조사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현대 제주 사회의 변동과 제주인의 삶 - 섬성(islandness)과 5p를 반영한 제주의 발전정책 제언 - 제주 판옥에 관한 연구

▶ 제주어 연구지원사업

- 제주학의 진흥사업은 제주어에 대한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로 지정되면서 관련된 관심과 함께 촉발되어 제주어에 대한 지원사업이 제주학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특징적임
- 제주어는 국립국어원에서 2004년부터 추진된 '권역별 지역어 조사 사업'의 추진으로 발굴 지원이 시작되었고 2007년부터는 민족생활어 조사사업이 추진되면서 제주어에 대한 관심도 증대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어 구술채록사업을 제주대학교를 통해 수행하면서 제주어의 지원사업이 추진되었고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발간된 제주어 연구내용에 대해 대중에게 보급·활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진행함
- 현재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제주어 지원사업은 다음 7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음

- ①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 ② 제주어종합상담실 운영 사업
- ③ 제주어 공모사업 및 제주어 길라잡이 책자 발간 사업
- ④ 제주어 대사전 편찬 사업
- ⑤ 제주어 구술채록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
- ⑥ 제주어,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 분류 10주년 기념 행사
- ⑦ 제주어 교육 실태조사 연구 사업

- 현재 제주어 구술채록사업은 2020년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발간된 자료집을 통해 모바일 앱을 통한 제주어 번역기 개발 및 제주어종합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제주어 지원활동을 수행
- 제주어종합상담실은 2019년에 개소하였으며 제주어의 이해를 증진하여 대중화에 기여의 목적으로 운영됨
- 상담실의 운영은 제주어 단어 및 문장에 대해 표준어 전환 등 전화, 이메일 및 방문을 통해 전문가 자문 등으로 수행됨
- 이와 함께 제주학연구센터는 별도의 '제주어 포럼'을 연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사업' 운영 및 제주어 공모전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를 운영
- 제주어 관련 발간물 사업으로는 2021년 기준 '쉽고 재미있는 제주어 길라잡이' 단행본 발간과 2024년 목표로 '제주어 대사전' 편찬발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연구사업으로 '제주어 교육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보고서 발간

2) 부산학 연구센터

▶ 지원배경과 운영 현황

- 부산학 연구센터는 부산시민들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사회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요구로 인해 부산광역시의 지원아래 2003년에 부산연구원에 자체적으로 설립됨
- 설립목적은 부산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인문학 연구 수행 및 지역학 연구자들의 구심점 역할과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설립
- 구체적으로 세계도시 부산으로서 부산의 장소, 사람, 일, 문화를 만들어 내고 변화시키는 과정과 힘을 탐구하여 부산이 갖는 도시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부산시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사업비 및 계약직 연구원의 인건비를 기반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음
- 부산학 진흥을 위한 전문가들 중심의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단은 오랫동안 부산학 연구 및 자원발굴분야에 활동하였던 교수 및 전문가들과 지역사회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구성
- 특히 자문위원단에 지역 언론인을 포함시켜 부산학 연구성과의 홍보 및 지속적인 인식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역할을 부여

- 지역학 연구기관의 역할은 지역학 연구주제의 선정과 수행이 핵심으로 이를 위해 연구자문위원단의 기획과 연구주제 개발의 역량이 중요하며 최근 시민들의 공감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의 논의가 중심

[표 18] 부산학 연구센터 자문위원단

성명	소속 및 직위
김영일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용규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은영	부산일보 편집국 선임기자
김흥기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명흠	한일해협권 미래연구소 소장
박창희	국제신문 편집부국장
차용범	부산광역시 미디어센터장

자료: 부산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bdi.re.kr/03station/06_01.asp)

- 현재의 조직은 부산학 연구 센터장 1인과 센터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장은 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이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주요 운영 사업

- 부산학 연구센터는 과거 각 대학이나 관련 연구기관 및 진흥기관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부산학 연구를 위해 추진 주체들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산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학제적 연구를 지향함
- 부산학 연구센터의 주요 활동은 주로 부산학 관련 연구사업과 연구결과물에 대한 발간사업으로 구성됨
- 부산학 연구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표 19] 부산학 연구센터 주요업무

영역	주요 업무
연구사업	부산학 연구공모사업, 부산문화정책연구, 부산학 연구논총, 기획연구
발간사업	부산학 관련 시민총서, 교양총서, 연구총서 발간, 홍보책자 발간
네트워크	학제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학 연구중심체 역할, 소재 대학 교과목 운영 지원
연구조성	부산학 박람회 개최, 시민강좌 개설, 지역학 학술세미나 활동, 부산학 정보자료실 운영, 관련 MOU 체결

- 주로 부산학 관련 직접연구수행 및 지역학 연구자 대상 연구공모사업을 통해 연구결과물에 대한 촉진과 활용이 핵심적인 업무
- 구체적으로 연구발간물은 연구논총, 교양총서, 기획연구, 국제화연구로 구분
- 연구논총: 지역 전문연구자들의 학술논문을 비롯한 부산정체성 연구 발간
- 교양총서: 부산학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인문교양 성격의 단행본 발간
- 시민총서: 부산학의 시민이해도 증진을 위한 시민참여 기반의 부산연구 사업
- 기획연구: 연구원 차원에서 부산학 관련 주제 중심으로 자체적 연구보고서 발간
- 국제화연구: 국제 지역학 사례 비교 및 해외방문 보고서 등으로 출간
- 5년간 주요한 발간물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20] 부산학 연구센터 5년간 주요 발간물

	교양총서	시민총서	연구총서	기획(미래)총서
2016년	부산 생활문화유산	부산을 알다, 서부산 낙동강 문화지도	6.25피란생활사	부산의 미래 키워드를 찾다
2017년	수다의 인문학	나를 찾아 떠나는 부산 순례길	6.25피란민의 자전 기록	
2018년	부산인의 장소 습관- 그곳의 기억	부산 도시공간 탐색- 변방에서 해양	피란수도 부산의 문학 풍경	
2019년	마을시리즈- 재송마을 이야기	산복도로의 어제와 오늘	피란수도 부산의 주거환경	개항기 일본인의 부산이주와 경제적 지배
2020년	옛길 따라 만난 부산	부산학의 선구자들	마을시리즈- 호반마을 회동 이야기	
2021년	부산의 골목길	부산갈매기의 야구 이야기	마을의 미래- 부산기장 해안마을	

- 이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대중서 및 부산학 홍보자료 발간과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 위한 네트워크와 연구조성 및 시민강좌 개설 등의 활동이 함께 수반됨
- 또한 부산학 발간물에 대한 연구자 및 일반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들이 있어서 연구보고서 및 총서들에 대해 부산도서관의 협조 하에 전용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중에 있음

▶ 네트워크 및 연계활동

- 부산학 연구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활동은 부산학 포럼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과거 마을학 포럼으로 이어오던 지역학 전문가 포럼활동을 2020년부터 부산학 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
- 최근 2021년 부산학 포럼은 부산연구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주제는 ‘세계 음악 축제 속 시그니처 문화공간’으로 개최됨
- 이와 함께 부산학의 다양한 형태의 연구 발간물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2021년 9월 부산도서관 및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와 MOU를 체결함
- 부산도서관에는 연구아카이브가 구축중이고 신라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대학 및 지역주민 대상 부산학 강좌를 지원하고 있음
- 부산학 연구활동의 인식확산과 홍보를 위해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언론보도를 실시하였으며 부산학 연구센터장 인터뷰 3건을 비롯하여 2021년 총 27건의 언론보도가 시행됨

3) 울산학 연구센터

▶ 지원배경과 운영 현황

- 울산학 연구센터는 2006년도에 울산(발전)연구원에 개소하였으며 울산시의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울산시의 의지로 시작되었음
- 현재까지 울산학 진흥을 위한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울산시는 울산학 진흥을 위한 핵심기관인 연구센터를 울산(발전)연구소에 개소하였고 연구 및 발간 활동을 중심으로 울산학 진흥활동을 수행해옴
- 현재 울산학 연구센터 운영은 연구센터장 1인, 전문연구원 1인, 행정원 1인의 체제로 운영중이며 센터장은 울산연구원 박사급 연구원이 겸직하는 체제로 운영
- 최근까지 울산학연구센터는 울산연구원의 울산문화재센터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울산학 연구센터장은 문화재센터장이 겸직하는 체제였으나 현재는 전문연구원이 울산학연구센터장으로 실질적인 울

산학 연구사업을 주도하고 있음

- 울산학 연구활동도 자체과제가 있지만 주로 울산학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부연구자 대상으로 연구자
풀을 구축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시기마다 비상임연구원으로 초빙하여 연구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 울산학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로는 2012년부터 ‘울산학 포럼’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울산지
역의 향토사학자, 원로 연구진 및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분과위원회가 구
성되어 있음
- 울산학 포럼은 연마다 울산학 기획연구의 주제선정 및 연구공모사업의 심의 및 평가, 울산학연구센
터 운영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울산학 포럼은 연1회 전체회의, 연 6회정도의 운영위원회 회의, 수시로 분과위원회의가 개최되는 형
태이며 주요한 활동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1] 울산학 포럼 구성 및 주요 활동

포럼 구성	주요 활동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학연구센터 추진사업 공유 및 향후 지역학센터 운영방안 논의 - 각 년도 연구과제 공모결과 논의 및 향후 연구주제 발굴 자문 - 울산학 연구과제 기획과제 및 단행본 내용 구성과 심의 - 울산학 연구논총 선정 및 운영 형태 논의 - 울산학 연구과제 보고회 및 자문회의
현장답사	- 울산 및 영남 일대 울산학 관련 답사 진행과 사례 발굴
운영위원회	- 울산학 교양서를 옴니버스 형태 구축 방안 논의
향토사분과회의	- 울산시사 발간 위한 역사 및 향토 부문의 자문활동
전체회의	- 울산학 연구과제 성과보고 및 차년도 운영계획 모색

▶ 주요 운영 사업

- 울산학 연구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연구사업, 연구발간, 아카이빙, 연구조성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울산학 연구를 위한 공모과제인 ‘울산학 연구’는 공모를 통해 매년 연구논문 4-5편을 선정하고 시기
별로 주요 주제인 교양서 1편을 발간함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 내용으로 연구논문은 전문 연구자의 학술논문 형태이며 교양서는 대중을 위한 지역학 연구
관련 단행본 발간을 의미함
- ‘자체과제’는 울산연구원 내부에서 울산학 진흥을 위해 수행한 자체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보
고서를 의미하며 주로 울산지역 및 문화·지리의 구술사 기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 최근 5년간 울산학 연구사업과 발간물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22] 울산학 연구센터 연구사업 결과물

	교양서	연구논총	자체과제/자료집
2017년	문화재를 통해 울산의 변화를 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구국문화의 원류 고찰 - 예술문화교육가 천재동의 조명과 문화콘텐츠화 - 지역학 연구경향과 울산학 연구 방향 - 관문향구로서 울산에 대한 단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덩 빠져볼까? 울산 옛 이야기 - 구술로 그려낸 기억 속의 울산
2018년	울산의 음식, 그 맛과 추억을 찾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 울산 방어진의 상설극장 상반관의 사주의 기능 - 울산의 근대 불교미술 연구 - 울산병영 장도장의 전승양상과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옛터비에 담긴 기억들: 공단 이주민 이야기 - 울주군 골짜기와 들판

	교양서	연구논총	자체과제/자료집
2019년	울산의 쟁이들- 장도·봇·벼루/ 울산의 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생애사	- 울산의 대장간문화 - 언양 매일대장간 박병오의 사례연구 - 울산의 도시 정체성 재구성 양상과 과제 - 문화생산물과 문화경관 중심 - 울주 천전리 고분군 보존관리를 위한 제언	- 푸르고 푸른 고향의 잘피밭
2020년	울산, 신라의 불국토를 열다	- 조선시대 울산지역 해양자원 활용과 운영 - 울산의 빨치산 활동 - 울산 선유문화의 양상과 그 의미 - 울산 반구대 일대의 석질과 울산벼루장의 특성	-달전철장 2천년의 마지막 풍경
2021년	분청자 도시 울산	- 울산 전서의 존재양상과 지역적 정체성 - 한국 현대 산업유산의 검토를 통한 울산의 가치 - 18세기 울산부의 삼정 운영 - 이근오의 죽오일기를 통해 본 19세기 초 울산의 풍경	

- 이와 함께 울산학 및 울산의 지역문화 관련된 울산시 및 공공기관에 의뢰한 수탁과제 및 협약과제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있음

[표 23] 울산학연구센터 수탁 및 협약과제

연도	과제명	과제 성격
2013-2014년	울산의 인물 연구	협약과제
2014년	울산 근로자 생활상 조사연구 사라져가는 울주군 옛 이야기 복원	수탁과제
2017년	울산을 한 권에 담다	수탁(시사 단행본)
2020년	- 장생포 마을안내 해설사 양성방안 - 관광 커뮤니티 활동가 양성방안	협약과제
2021년	- 울산 쇠부리소리 구술기록화 사업	수탁과제

- 연구활동으로 발간된 자료들은 연구원 홈페이지 및 연구원내 공간에서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아카이빙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도서 및 연구결과물 발간 이후에서는 공공기관 및 일반시민 대상 배포하여 결과를 홍보하고 미디어 노출 및 북콘서트 개최 등의 인식확산 이벤트를 실행
- 울산학 진흥을 위한 시민대상 교육활동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부재하며 관내 울산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울산학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제공

▶ 네트워크 및 연계활동

- 울산학 진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울산시 관련하여 대학 등의 주체가 다양하지 못한 지역적 원인이 있음
- 울산대학교는 학내 연구소와 연계하여 울산학 관련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경험이 있으며 울산문화원에서 발간하는 향토사 연구 및 울산학 연구센터의 자료들을 공유하거나 공동 행사진행의 경험이 있음
- 현재 울산학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일부 울산학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중인 울산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을 통해 보다 확대·심화된 울산학 지역강좌를 기획·설계하고 있음

4) 전북학 연구센터

▶ 지원배경과 운영 현황

- 현재 전북학연구센터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의 산하 연구기관으로 2019년 5월 개소하였으며 이전에는 전주국립박물관의 소속으로 전북학 사업이 운영되어 왔음
- 전북학연구센터는 전라북도 전북학 연구역량 강화, 도민인식확산, 주요 지역학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확산 등을 주요한 사업목표로 운영
- 전북학연구센터 비전으로 '천년전북을 선도하는 전북학 네트워크의 중심'이며 목표는 '전북 정체성 확립'과 '전북 미래학 정립'의 2가지로 선정
- 전북학연구센터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학 네트워크 구축, 전북학 연구역량 강화, 전북학 공유와 확산,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의 4가지 추진과제 선정 추진
- 전북학연구센터는 현재 센터장 1인 전문연구원 1인 위촉연구원 1인의 3인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장은 연구원의 박사급 인력이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
- 이와 함께 센터의 운영의 자문 및 심의의결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전북 소재 대학교수의 전문가와 함께 전북도청 국장, 전북도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

▶ 주요 운영 사업

- 2019년 개소한 전북학연구센터는 초기에 '전북학 좌담회' 및 제주도와 강원도와 지역학 MOU를 체결하여 전북학 방향정립 및 네트워크 확산을 도모
-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북학 연구 및 발간사업이 추진되었는데 1월에 전북학 연구 1권, 전북학 총서 1,2권이 발간되었고 12월에 전북학연구 2권과 전북학 총서 3-6권이 발간되었음
- 이와 함께 타 지역과 공동 정책세미나, 학술대회, 전북학 지원 성과발표회와 같은 연구 및 교류 성과 확산의 활동을 중심으로 수행함
- 2021년까지 전북학 총서가 10권이 발간되었으며 2021년에는 대규모로 '제1회 전북학대회: 전북지역 연구의 회고와 새로운 지평'을 개최하였음
- 전북학연구센터의 주요사업은 ① 연구지원발간, ② 학술대회 개최, ③ 전북학 DB운영, ④ 홍보 및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연구지원발간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24] 전북학 연구센터 연구발간사업 현황

사업	주요 내용	지원사항	추진일정
학술연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체성, 변화상의 인문탐구 - 경제, 행정 등 사회과학 탐구 - 환경 해양 등 자연과학 탐구 - 전북학 융복합 비교연구 - 인물, 역사문화적 전통의 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과제: 각300만원 - 저술·번역: 각8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심사: 2-4월 - 연구기간: 4-10월
학술대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지역학 학술대회 개최 - 지역학 교류와 공동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과제당 4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심사: 2-4월 - 연구기간: 4-10월
우수 학위논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학 관련 학위취득자 지원 - 전북학 학문후속세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 석사(200만원), 박사(300만원) 지급 - 성과발표회 참여,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심사: 7-8월 - 시상: 9-10월 중 (2020년 7명, 2021년 5명 선정 수상)

- ②학술대회 개최 주요사업은 매년 전북학 연구결과와 중요 이슈가 연구자와 도민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도민강좌(온오프라인)를 운영

[표 25] 전북학 연구센터 학술대회 개최사업 현황

시기	주요 내용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장소: 2019년 10-11월 / 전주역사박물관 - 강좌내용: 전북학이란 무엇인가?/ 전북의 역사와 문화/ 전북 가야의 현황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여정/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전북/ 창의성과 창의도시: 전북을 중심으로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장소: 2020년 12월 / 전북학연구센터 유튜브 채널(온라인) - 강좌내용: 전라감영과 전라감사/ 세계유산 무성서원/ 판소리는 어떤 예술인가/ 전라북도 방언의 지역성과 역사성/ 전북근대농업/ 전북의 영화/ 전라북도의 무형유산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장소: 2021년 6-10월 / 전북학연구센터 유튜브 채널(온라인) - 강좌내용: 역사(전북과 건국의 정치학, 전북의 후백제 유산)/ 문화재(전북의 숨은 국보, 전북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역사2(전북 마한사의 기원, 전북 마한의 전성기)/ 음식(전북의 식재료와 식문화, 미국공사 포크가 기록한 전북 상차림)/ 산업(전북 쌀농사의 기원, 전북 한지 연구와 비전)

- 이와 함께 찾아가는 전북학 사업으로 도내 초중고교와 연계한 전북학 강좌를 운영하였고 동북초, 가온초, 이리남중, 마령고의 4학교 방문하여 진행함
- 전북학연구센터 연구조성사업은 '전북도민강좌' '전북학 성과발표회' '콜로키움 및 세미나' '전북학 대회'로 구성하여 2019-2021년까지 15회 운영됨
- 이와 함께 센터는 '전북학연구'라는 별도 학술지 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인 교수들로 구성된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투고 및 발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전북학 자료 발간과 네트워크 구축

- 전북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한 자료로는 학술지인 '전북학연구'와 단행본인 '연구총서' 전북학 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가 있음
- '전북학연구'는 2019년 5월 1집 발간 이후 2022년 현재 4집까지 발간되었으며 인문학을 포함하여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복합학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연구총서는 전북 역사문화를 비롯하여 사회과학, 자연환경 제분야 연구를 지원하여 결과물을 발간하는 사업이며 2019년 2권, 2020년 4권, 2021년 5권 발간

[표 26] 전북학 연구총서 발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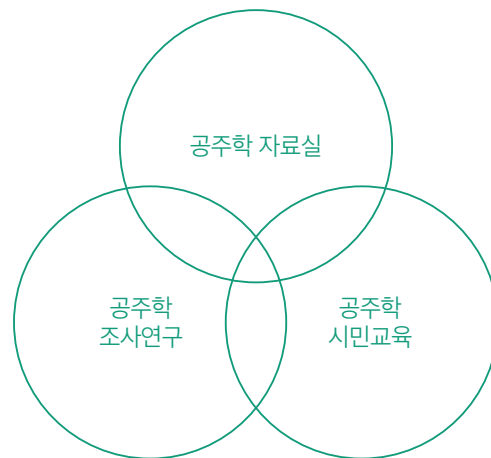
시기	연구총서 발간	연구보고서 발간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곽장근) - 군산개항전사(최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학연구센터 운영 기본 계획(센터)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의 지역극장(김남석) - 줄포만과 변산반도의 해양문화(송화섭) - 강제병합 이전의 전라북도 및 군산지역 상황(오일환) - 마한의 시작과 꽃을 피운 땅, 전북(최완규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성서원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센터)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성서원원지 상하권(박정민, 전희진, 권이선) - 조선의 보고 전라북도 발전사(하초자부로, 임경택) - 나리포사실(박범, 문광균) - 이거두리설화(권도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포그래픽 전북학 59YEARS(김동영 외) - 전라북도 동부권 고지도 집성(박정민 외)

- 전북학연구센터는 2019년에 개소하여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북도내와 도외 전국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구센터는 도내 전주학, 익산학, 군산학 등 지역학과 공동연구 및 공동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된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협력연구 수행 및 연구결과 홍보 활동을 수행
- 대외적으로는 강원학, 경기학, 대구경북학 등 타시도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초 업무협약(MOU)을 중심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연계 및 국제포럼과 학술대회 공동개최의 활동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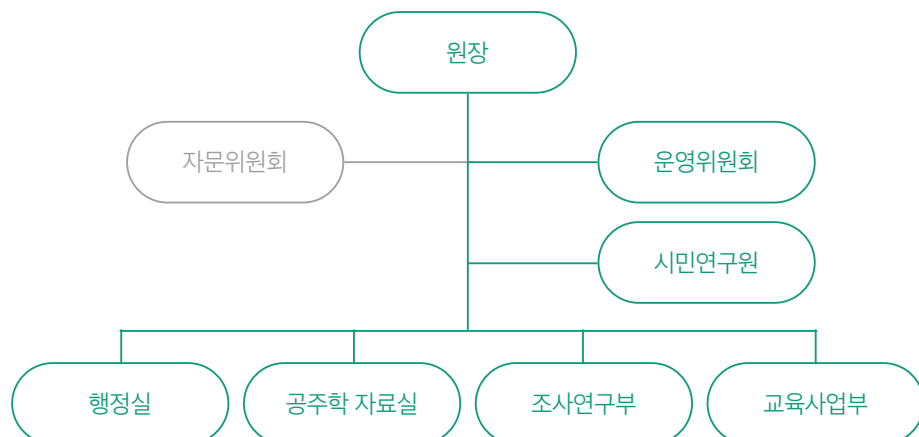
5) 공주학 연구센터

▶ 자원배경과 운영 현황

- 공주학연구원은 공주학의 진흥을 위해 국립공주대학교와 공주시 간 2012년 건립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공주학연구원 설립이 확정되어 4월 개관하였음
- 공주학연구원은 공주대학교와 공주시의 설치협약서에 근거하여 공주대학교 공간을 활용한 대학 산학부속기관으로 최초 설치되었고 공주시는 연구원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공주학연구원의 원장을 비롯한 보직은 공주대학교 교수들의 겸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실을 비롯한 각 부서의 구성원은 전문연구원을 채용하여 전담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 최초 예산은 연간 2억원 가량이었으며 현재는 2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주시 예산과 함께 연단위 대학회계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이 있음
- 공주학 연구원의 주요사업은 공주학 교육, 조사연구, 자료수집의 3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9] 공주학연구원의 3가지 핵심기능



[그림 10] 공주학연구원 조직도

▶ 연구 및 교육 운영 사업

- 공주학연구원은 행정실과 함께 공주학자료실, 조사연구부, 교육사업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사연구부는 공주시 및 타 기관위탁사업 및 연구용역을 주로 수행하는 조직이며 주로 공주의 역사, 문화, 예술, 생태, 교육, 지역발전 정책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함
- 조사연구부 활동을 통해 공주학 교양서적 및 기획연구의 총서발간과 관련된 홍보활동, 공주 역사문화의 문화상품 개발 및 금강수변공간 활성화 연구등을 수행
- 교육사업부는 공주대학교 대학회계로 운영되며 공주학 관련되어 시민교육사업을 운영하며 연구조직 대상 포럼, 시민대상 투어 프로그램 실행중에 있음
- 대표적으로 공주학 아카데미를 공주시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주지역 리더를 위한 공주학 지도자과정 및 공주학 확산을 위한 공주학 포럼 및 연구투어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공주학 아카데미 및 포럼 등의 활동에 대한 공주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서 대부분 수강인원을 모두 채움

▶ 공주학 자료실 운영사업

- 공주학 자료실은 공주학연구원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공주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집적하는 아카이브 기능을 의미하며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보존,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공주학 관련 연구자료들과 함께 백제시대 고문서 등의 자료들의 원본데이터의 원문대조 서비스 등의 전문자료 제공의 역량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공주학연구원 홈페이지내 ‘공주학아카이브’자료실은 문헌자료를 비롯해 사진 및 시청각자료를 집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다차원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 형태별 분류: 구술류(52점), 도서/간행물(10282점), 문서류(3537점), 박물관(859점), 사진류(36723점), 시청각류(521점)
- 출처별 분류: 개인(12873점), 구술자와 협의(4점), 기관(33616점), 기업(292점), 단체(5109점), 미상(16점), 업체(379점)

- 공주학 자료실은 자료구축에서 나아가 관련된 전문연구기관 및 언론사의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활용도가 높은편임. 특히 공주관내 관공서의 건립 및 주요 행사에 활용도가 높으며 도시재생, 주민공동체사업, 제민천 등 지역활성화 사업의 기반자료로 많은 자료요청이 있음
- 공주시 관내 연구 및 공공기관의 활용도가 높고 연구자 및 관심있는 시민들의 활용도 상승추세에 있으며 현재 공주학의 아카이브자료는 공주시로 한정하기보다 과거 공주지역에 포함되었던 충남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음
- 공주학 아카이브의 중요성 확대로 인해 시민대상 아카이브 관련 교육과 시민참여 활동을 최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호응도가 매우 높음
- 주민대상 지역 및 우리마을의 구술, 사진 등 매체활용과 기록방법에 대한 교육활동을 통해 매년 10명 내외의 시민기록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공주대학교 학생들을 활용하여 과거 기록과 현재를 비교하는 ‘기록 서포터즈’ 육성 사업을 수행
- 시민 및 학생 대상 기록화 사업으로 생산된 자료들에 대해 마을구술기록소개의 단행본 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되어 경기도는 ‘경기학 메모리 사업’을 통해 시군에서 기록화된 콘텐츠를 엮어서 출간하는 사업을 진행중으로 이를 참조하고 있음

▶ 네트워크 및 연계활동

- 과거를 포함한 공주학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접지역과도 연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연계활동이 활성

화되지는 못함

- 공주학연구원은 대부분 공주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지역적 한계도 내재하고 있으며 공주대학교의 산학회계로 운영되는 특성상 사업진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한계가 있어서 대학으로부터의 자율성도 필요한 상황임
- 다른지역과의 지역학 네트워크는 충청남도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함께 지역적 고민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 역할이 필수적임
- 광역차원에서 지역학 관련 공통연구지원사업 및 네트워크 교류기회 확충, 광역차원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콘텐츠와 기반 마련 등의 역할이 필요함
- 현재 다른 충남학 및 타 지역학과의 적극적인 연계는 없으며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및 공주시 시민단체(향토문화연구회 등)와 공동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한 경험은 있음
- 특히 공주시 관내 시민단체 및 민간조직들과의 협력사업 비중이 최근 증가하였는데 공주학 자료실 활용을 비롯해 공주학연구원 공간대여를 통한 전시회나 공주학 학습동아리 운영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공주학 아카이브 활용도도 증가하고 있음

1. 일본 지역학의 현황

1) 일본 지역학의 등장과 특성

▶ 일본 지역학 등장의 배경

- 일본에서 지역학의 개념은 ‘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매개로 지역사회, 경제, 역사, 환경, 사람들의 생활과 경험을 함께 연구하고 자연과 산업과 생활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명하며 당면 문제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려는 것’으로 규정함
- 일본에서 지역은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에 대한 열등한 관계적 의미가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과 의미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에서 태생
- 하지만 일본 또한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고 도시의 획일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의 독자적 다양한 문화가 손상되어 왔음
- 또한 일본에서도 문제화 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가 확산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음
- 특히 지역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방안을 중앙정부 등 대외적인 시각에서 찾으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위기의 해법을 지역공동체의 문화와 역사가 결집된 내생적 주민조직의 재편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지역학 학문이 주목

▶ 일본에서 지역학의 확산

- 일본에서 지역학은 초기에는 학술적 관점에서 지역의 유무형 문화자산의 발굴과 활용 측면에 집중했으나 1990년대 이후 지역소멸과 쇠퇴 극복 주제와 맞물려 지역에 대한 근본적 관심과 내생적 발전 전략과 연계되어 확산
- 일본 지역학은 지역사회가 보유한 지혜를 주민 기반으로 발굴하고 마을만들기, 지역재생과 같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의 지역학은 주민참여와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지역만들기, 지역활성화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만들기 등 실용적 정책발굴과 실행에 방점이 있음
- 최근에는 일본 지역만들기와 연계한 에코투어리즘, 에코뮤지엄 등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 지역활동을 지역학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역학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음

▶ 일본에서 지역학의 특성

- 일본 지역학의 특성은 이처럼 지역의 쇠퇴, 인구감소의 극복을 위한 지역재생, 지역만들기와 연계되어 이에 대한 공동체성과 지역에 대한 내생적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는 학문적 특성
- 특히 지방소멸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이 증가하면서 외부지원보다 내부의 인적자원과 구성원들간 소속감과 정체성을 핵심적 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형성하기 위한 학문적 기반으로 지역학의 역할이 강조
-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지역학은 지역재생이 강조하는 ①지역에 대해 배우고 ②지역의 자원을 계승하고 ③조직과 구조를 만들고 ④상호교류와 협력을 수행하고 ⑤지역재생의 인재를 양성하는 선순환관계의 핵심적 부분으로 인식
- 또한 일본에서 지역학은 생애학습(평생학습) 측면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충족하는 주요한 주제로 인식하는 특성이 있음

- 일본에서 지역학은 주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자원을 학습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매력과 강점을 발굴하여 스스로 체득하고 확산하는 사람만들기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2) 일본 지역학의 정책 사례

▶ 중앙정부 지원 방향

- 일본의 지역학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된 특성으로 인해 중앙정부는 주로 지역학의 학술적 측면의 지원이나 지역재생분야로 추진된 한정적 경향을 보임
- 일본정부는 2017년 4월 교토에 지역문화창생본부를 설치하였고 본 조직에서 지역학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였으나 구체적인 실천사업은 미흡한 상황임
- 일본의 지역학 지원은 문부과학성의 '지역 거점정비사업' 추진하면서 대학의 역할을 통해 지역학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2014년에는 지역학 연계 지역활력창출모델 지원사업을 수행
- 일본에서 지역학의 지원은 지역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학을 기반으로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의 창조인재 육성 및 자립적 지역만들기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특성이 있음

▶ 광역자치단체 지원 사례(교토부 사례)

- 교토시는 일본문화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살리고 교토 중심의 문화를 다른지역으로 발산하기 위한 교토문화연구와 교토학의 기능을 설정하고 있음
- 교토부는 교토학의 진흥과 성과의 홍보를 통해 지역문화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책지원을 위해 '교토부립지역학 역채관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전담기관 설립
- 교토부립 교토학·역채관(曆彩館) 사업은 ①세계와 연계한 교토학 연구 교류의 거점, ②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류와 발신 거점, ③교토 관계 자료의 수집·보존·공개를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세계와 연계한 교토학 연구교류는 세계의 일본문화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신진연구자 양성 및 초빙 수행을 위해 주요 대학과 공동 연구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수행
-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류발신 거점은 전문적 연구자 및 문화인을 중심으로 교토학 강좌를 운영하고 해외연구자들과 함께하는 국제 심포지엄 및 다양한 세미나와 연구교류회 등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창생과 연관된 지역학 행사를 개최
- 교토 관계 자료의 수집·보존·공개 기능은 기존 부립 종합자료관이 수집한 교토의 관한 도서, 고문서, 사진자료 등 73만건의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여 제공하고 열람할 수 있는 종합열람실을 운영하며 아카이브를 위한 교토부 내 대학과 연계한 공동연구회를 운영

2. 중국 지역학의 현황

1) 중국 지역학의 등장과 특성

▶ 중국 지역학 등장의 배경

- 중국에서 거론되는 지역학은 영문으로 Local Study in China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중국지역 연구인 중국학(Sinology)와는 구별됨
- 중국에서 국내의 지역학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중국내 특정지역의 이름을 기반으로 畧을 붙여서 지방학의 개념으로 주로 거론되고 대표적으로 198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둔황학, 휘학, 티벳학을 거론할 수 있음
- 중국에서는 1980-1990년대 개혁개방정책의 실시로 인해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역학 관련 기관들이 확산되었고 현재 중국내 40-50개 정도 지역학 연구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 중국 지역학의 논의

- 중국학에 관한 학계의 논의는 특정 지역 내 각 방면을 다루고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의 정의가 일반적이나 현재까지 독립된 학문분야로 형성되지는 못함
- 중국의 지역학 접근은 융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해 지리학, 환경공학 등 자연과학의 포괄적 접근과 복합적 주제에 대한 다학제적 성격을 지향
- 중국의 지역학은 지명을 사용하여 명명하는 학문으로 정의하며 지역의 종합적 형태, 성질, 구성요소 및 과정의 연구를 진행하고 해당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지적 지원을 제공하는 학문으로 정의
- 현재 중국의 지역학은 북경학을 비롯해 상해학, 남경학, 서안학, 둔황학 등 40-50개가 존재하며 이들은 중국 지역학 연합회(The Association for Chinese Local Studies)를 구성하고 북경학이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중국 지역학의 특성

- 중국의 지역학은 지역 내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을 자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및 지방정부 주도로 시민참여에 의한 활성화가 기본적인 방향임
- 특히 중국의 지역특성상 고종세시가 유물 및 유적 발견에 의해 기인하거나 확산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상 지역학 연구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우가 빈번함. 대표적으로 둔황학의 경우 지역학 연구기관인 둔황문화유산연구원은 중국 정부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기관임

2) 중국 지역학의 정책사례

▶ 북경학의 등장과 발전

- 북경학은 1990년대 이후 해외사례 및 서울시와 교류를 통해 지역학 탄생의 관심이 고조되었고 1998년 북경시 허가를 받아 북경연합대학에 '북경학연구소'를 건립하여 본격적으로 지역학 연구를 시작
- 북경학의 대두는 현재 중원한족의 역사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나아가 북경의 시공간적 발전단계를 규명함을 통해 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책목적으로 함
- 북경학은 북경의 시간, 공간, 구조를 축으로 북경 발생과 변화, 공간 확산, 북경시 내부구조와 외부지역과 연계변화 등 복합적 내용을 다루며 도시과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 문화학, 사회학, 종교학, 관광학을 포괄하고 있음
- 북경학 연구소의 운영 비전은 '북경에 입각하여, 북경을 연구하며, 북경에 기여한다'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의 종합과 융합화를 강조함
- 최근의 북경학 연구의 범위는 북경시를 넘어 발해만 경제권, 징진시 등 주변 지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 북경학 연구기관인 '북경학연구기지' 운영

- 북경학을 대표적으로 다루는 기관은 북경학연구기지이며 다양한 연구활동과 출판물을 간행하고 있음
- 북경학연구기지는 도시문화연구실, 경제연구실, 관광연구실, 기초이론연구실로 구성되어 이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간행물 출판은 북경학 관련 학술논문집인 '북경학연구'와 연구기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연구보고서로 '북경학연구보고'와 중국 중앙정부차원의 지역차원 현황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국성향일체화 발전보고-북경권'의 정기간행물 출판이 대표적임
- 북경학연구기지의 주요한 활동으로는 ① 인재양성 ② 북경학 강좌 ③ 인식확산 ④ 대외교류와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인재양성:** 북경학연구기지에서 수행된 연구활동의 성과는 북경연합대학에서 북경지역문화, 역사지리, 문화유산관리, 민속학 등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강의자료와 교과과정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석사과정 이상의 대학원에는 북경학 전문과정을 설치하여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② **북경학강좌:** 북경의 운하, 성곽, 장성 등 문화유산 보호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며 연구성과 창출을 학생과 일반시민 대상으로 지속적 강좌를 실시함
- ③ **인식확산:** 북경을 포함한 교외지역의 북경학 강좌에 북경학연구기지 연구원들이 파견되어 강좌를 진행하고 북경 수도도서관과 연계협력하여 '수도 강단 향토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대상 교육을 실시
- ④ **대외 교류와 협력:** 북경학은 서울학연구소, 북경지리학회, 북경사연구회, 오르도스학연구회 등 80개소 국내외 지방학 연구소와 장기간 교류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경수도박물관과도 인재양성, 사회기여, 문화전승을 목적으로 교류하고 국제학술대회를 함께 개최하고 있음

1.
국내사례의
시사점

▶ 지역학 관련 제도적 현황

- 지역학 관련 법률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음
- 본 법률들은 지역기반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및 인문정신문화의 발굴·수집·보존과 출판 및 정보화 등의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학 관련 법률에서 볼 때 주요한 지역학의 목적은 지역학 진흥과 관련된 유산과 원형의 보존과 발굴수집, 자료의 출판과 정보화 등의 연구조사 활동이 기반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지점에서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관계부서 또한 문화예술(관광) 관련 부서가 다수이며 일부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충청남도는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충남학 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 지역학의 본래적 목적과 법제도에 부합하도록 충남학의 연구조사 및 전통역사자원 보존과 발굴 등의 연구활동의 기능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역학 운영 현황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학 운영 형태를 보면 서울시와 인천시는 자체적인 시립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05년부터 경기학은 운영해온 경기문화재단에서 확대운영하고 있음
- 서울과 인천은 시에서 운영하는 종합4년제 대학의 시립대학교의 대학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학을 운영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
-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도연구원 소속으로 지역학 연구센터가 개설되어 있으며 전라남도만 한국학호남진흥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충북학연구센터는 충북연구원에 1999년 개소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가 대전세종연구원에 2021년에 개소되어 운영중에 있음
- 시도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으로 연구활동에 안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활동 및 연구사업, 출간사업의 인프라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학 연구의 적합한 조건임
- 지역소재 대학은 특정 대학 및 학과중심의 학술, 이론적 연구가 주로 수행되며 대학 및 학과의 여건에 따라 재정 및 연구내용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특히 지역학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 및 특징을 발굴하여 주민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수행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현재는 충남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 지역학 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지역의 역사문화 중심의 정체성 발굴과 특징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인문, 사회, 자연, 경제 등 융합적 연구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학 진흥의 주요 내용

- 국내 지역학 진흥기관들의 수행하는 주요한 활동은 조사연구 및 발간과 연구지원, 네트워크와 학술교류, 조사연구 DB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로 연구총서와 같은 지역학의 세부 주제들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을 통해 다양한 연구자료들의 총서형태의 출간과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발간지원 등의 다양한 연구자료를 통한 지역학의 발굴

보존활동이 중심으로 수행

- 이와 함께 지역학 학문확산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과 연구자 지원과 함께 세미나, 콜로키움, 학술대회 등을 통해 연구지원 및 자료들의 공유확산 활동을 수행
- 이와 함께 지역학 학술지 운영을 통해 다양한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수집된 연구자료 및 미디어, 시청각 자료들의 DB구축을 통해 시민 및 연구자들에게 지역학의 다양한 자료와 원형들을 제공하고 있음
- 다른 지역학 운영에서 주민 대상 교육활동을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없으며 강원도, 전라북도 등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교육강사 및 자료를 제공하는 상호협력 활동의 사례는 존재함
- 따라서 현재 충남의 충남학 운영은 진흥을 위한 다양한 분야 중에서 평생교육 영역에서 교육활동만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학의 학문적 연구조사 및 발굴보존 등의 연구와 DB구축 등의 진흥사업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오히려 충남학의 정체 속에서 공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공주학과 같은 시군학의 운영과 진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함

2. 국외사례의 시사점

- 일본의 지역학 연구사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인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학 연구의 방향이 특징적이며 이를 통해 실제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분명한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일본의 역사문화 중심의 정체성 형성으로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고양에 핵심적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성을 보임
- 그리고 지역학 연구 및 교육활동을 지역 문화관광 및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시켜 지역활성화의 근간을 형성함에 주목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역자산, 스토리, 역사문화자원 발굴을 위한 연구활동에 주목함
- 중국학 및 북경학의 역사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중국은 주요한 역사문화자원의 경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의 요인이 특징적임
- 이와 함께 역사문화 자원과 함께 지역의 지리와 환경, 교통과 도시공학, 경제와 정치 등의 현대적 사회과학의 학문을 보다 강조하여 미래적 가치에 지역학의 방향을 집중하고 있음

04

충청남도 충남학 종합계획 수립연구

충남학 추진 현황과 인식

- 1. 충남학 정책 추진현황 70
- 2. 충남학 및 진흥정책의 인식 87

1. 충남학 진흥정책의 영역

1) 충남학 활성화 정책 방향과 개요

▶ 충남학 진흥정책 추진 근거

-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2021.8 제정)
- 충청남도 평생교육 5개년 계획(2019-2023)
-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 경영목표 계획(2022-2026)

▶ 충남학 진흥정책 추진 배경

- 충남학 교육을 통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애향심 고취하여 지역공동체 의식 확대 및 지역경쟁력 확보
- 충남의 과거, 현대사회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콘텐츠 발굴과 다양한 충남학 강의를 위한 콘텐츠 필요
- 충남학 학습자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 충남학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 기반 마련과 운영체계 필요

▶ 민선8기 충남학 추진정책의 의지

- 2022년 7월 출범한 충청남도 민선8기에서는 목표2인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에서 2번째 전략인 「지역과 상생하는 인재 양성」의 전략중의 하나로 역점 도정과제인 「충남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제시하였음
- 구체적인 도정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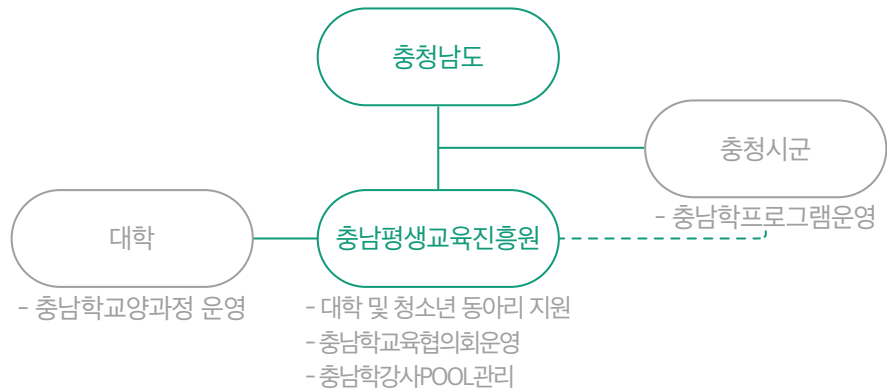
[표 27] 충남 민선8기 충남학 역점과제 내용

도정과제: 충남학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제목표	- 충남의 정체성 확립과 충남인으로서 도민 의식 함양
주요내용	- 충남학 연구 및 교육콘텐츠 개발 - 충남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충남학 교육의 접근성 제고 및 대중화 도모 - 충남 지역 이해 및 자긍심 고취

▶ 충남학 진흥정책 추진 주체

- 교육법무담당관실: 충남학 진흥을 위한 충청남도 주무부서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남학 진흥을 위한 광역차원 실행기관으로 주로 거점대학지원 및 협의회 운영 역할 수행
- 실행 대학: 평생교육진흥원의 충남학 거점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대학

[그림 11] 충남학 진흥정책의 추진 주체



- 충청남도 시군: 도의 지원을 통해 시군 주민대상 충남학 진흥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관련 부서
- 시군 실행기관: 시군 주민대상 충남학 교육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기관
- 주요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음

[표 28] 충남학 진흥을 위한 주체의 역할

	충청남도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관내 대학
기능	조례 제·개정, 사업지원 및 관리	사업총괄·관리, 네트워크	사업 주관 및 참여
주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학 조례 제·개정 관리 - 시·군별 충남학 운영 예산 확보 및 지원(도 50%, 시·군 50%) - 시·군 충남학 운영 프로그램 지침 안내 및 사업 관리 - 충남학 교육 활성화 사업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확보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기관 선정 및 사업비교부 - 충남학 강사 관리 및 DB구축 - 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 성과관리 - 충남학 교재 제작 발간/보급 - 충남학 콘텐츠 개발/ 보급 - 성과공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 및 운영 - 학습자 모집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만족도 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 우수사례 공유 및 제안, 자문 등

▶ 충남학 진흥정책 영역

-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은 주로 시민 및 학생대상의 충남학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일부 홍보 및 인식확산, 네트워크 활동이 포함
- 각 주체별 정책영역과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29] 주체별 충남학 진흥정책 내용

주체	정책사업	세부내용	비고
충청남도 교육법무 담당관	조례 제·개정 사항	충남학 진흥 조례 제·개정 및 관리	
	충남학진흥위원회 운영	충남학진흥위원회(충청남도 평생교육 협의회 대행) 구성 및 운영	
	충남학 교육 활성화 사업	시군 보조금 지원을 통한 충남학 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충남 평생교육 진흥원	충남학 대학운영 확대	거점대학 통해 충남학 강좌개설 및 운영	
	충남학 교육협의회 운영	충남학운영관계자·자문위원회대상네트워크활동	
	청소년 충남학 동아리 발굴	청소년 대상 동아리 운영 지원	
	충남학 강사 심화연수	충남학 강사 지속적 교육, 연수	
	충남학 홍보	영상공모전, 미디어 노출 등	2021년까지 운영
충청남도 시군 및 대학	충남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학 및 시군별 위탁기관 선정 또는 직영으로 충남학 교육 운영	

- 충청남도에서 충남학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은 주민대상 교육활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거점대학 및 시군의 소속기관 중심으로 위탁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함
- 지속적인 충남학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연구조성, 자료 발간과 관련된 활동은 수행되지 않으며 충남학 홍보지원 사업도 2021년까지만 수행하였음

▶ 충남학 진흥정책 예산흐름

-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진흥원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충남학 진흥을 위한 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진흥원에서 수행한 충남학 진흥사업은 주로 거점대학지원 및 충남학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0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표 30] 충남학 지원예산의 변화(충남평생교육진흥원)

(단위 : 천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50,000	154,000	105,000	172,000	139,000	101,000	132,000	118,000	121,000

- 충청남도가 시군을 통해 지원하는 주민대상 충남학 지원사업은 진흥원 사업과 별도로 시군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

2. 시·군 충남학 교육 지원

1) 시군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 시군 충남학 운영기관 현황

- 충청남도 소속 15개 시군 중에서 2021년 기준 13개 시군이 충남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13개 시군에서 충남학 교육 프로그램은 3개 시군(계룡시, 홍성군, 태안군)은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10개 시군은 민간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개 시군(공주, 논산, 당진, 청양, 서산, 예산)은 지역 문화원에 위탁
- 특히 서산시의 경우 지역주민 대상 충남학 특강을 서산문화원과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음
- 모든 시군에서 충남학 교육 프로그램은 「충남학의 이해」교재를 기반으로 강사초청을 통한 강의식 교육과 함께 충남 문화 및 자연유산을 방문하는 답사(현장실습)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
- 아산시, 홍성군의 경우 특히 아동(초등학교) 대상으로 충남학 강의를 수행하여 수강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하였음
- 대부분 시군에서 답사를 1회부터 10회까지 진행하였으나, 서산시, 논산시, 태안군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계획한 답사를 진행하지 못함
- 교육은 대부분 2차시로 상, 하반기 구분하여 충남학 강의를 수행하였고 1기 당 5-8회의 교육과정이 운영됨

[표 31] 시군 충남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2021년 기준)

시군	운영 방법	운영기관(장소)	주요 내용	교육실적	
				강의	답사
천안시	위탁	(사)미래사회복지실천협회	- 충남학 강좌운영 - 초등학교 방학특강 - 현장답사	16회	10회
공주시	위탁	공주문화원	- 충남학 이론강의 - 충남학 현장실습	15회	5회

시군	운영 방법	운영기관(장소)	주요 내용	교육실적	
				강의	답사
아산시	위탁	탕정한마음 종합사회복지관	- 초등학교 총남학 교육 실시 - 현장답사	7회	3회
서산시	위탁	- 서산문화원 -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	- 총남학 이론강의(상하반기 구분)	33회	-
논산시	위탁	논산문화원	- 충남 지리와 역사, 문화유산 교육 - 공동체 민속과 문화유산 현장체험	10회	-
계룡시	직영	계룡시 보훈회관	- 총남학, 계룡학 이론강의(1,2기) - 현장 답사	18회	2회
당진시	위탁	당진문화원	-총남학 이론강의(1,2기) -총남학 현장답사(1,2기)	20회	1회
금산군	위탁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 충남학 이론 강의 - 충남학 현장답사	7회	4회
서천군	위탁	서천군향토문화연구회	- 충남학 강의 - 백제유적 현장답사	8회	2회
청양군	위탁	청양문화원	- 충남학의 이해 이론 및 특강 - 현장답사	12회	1회
홍성군	직영	홍성군 신도시평생학습센터	- 우리의 충남 역사이야기 -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한국사 창의교실	19회	3회
예산군	위탁	예산문화원	- 충남학 이론 및 특강 - 현장답사	8회	2회
태안군	직영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 충남학 태안학 상하반기 강의	31회	-

▶ 시군 총남학 프로그램 예산(2021년)

- 충청남도 소속 13개 시군의 총남학 교육활동 예산액은 총 2억6백만원이며 도비가 61백만원, 시군비가 1억 4천4백만원으로 편성됨
- 시군별로 보면 서산시가 3천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시군비 또한 2천 1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고 다음으로 공주시가 22백만원, 논산시와 당진시가 20백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 반면 아산시, 계룡시, 금산군, 청양군, 홍성군은 예산 10백만원으로 가장 투입예산 규모가 작고 도비와 시군비는 3:7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충남학 교육을 위한 예산이 연간 시군단위로 3천만원 미만으로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상당수의 미집행 잔액도 발생하고 있으며 서산시가 16백여만원, 논산시가 15백여만원으로 비중이 높음
- 대부분 4백-6백만원 정도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천안시는 18백만원의 예산을 모두 활용하였음

[표 32] 시군별 총남학 예산 현황(2021년 기준)

시군명	예산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집행금액	잔액
합계	206,000,000	61,800,000	144,200,000	141,745,970	64,254,030
천안시	18,000,000	5,400,000	12,600,000	18,000,000	-
공주시	22,000,000	6,600,000	15,400,000	19,815,940	2,184,060

시군명	예산액(원)				
	계	도비	시·군비	집행금액	잔액
아산시	10,000,000	3,000,000	7,000,000	9,447,010	552,990
서산시	30,000,000	9,000,000	21,000,000	14,103,000	15,897,000
논산시	20,000,000	6,000,000	14,000,000	5,162,000	14,838,000
계룡시	10,000,000	3,000,000	7,000,000	8,690,480	1,309,520
당진시	20,000,000	6,000,000	14,000,000	13,731,090	6,268,910
금산군	10,000,000	3,000,000	7,000,000	5,175,920	4,824,080
서천군	14,000,000	4,200,000	9,800,000	9,510,000	4,490,000
청양군	10,000,000	3,000,000	7,000,000	8,365,410	1,634,590
홍성군	10,000,000	3,000,000	7,000,000	9,720,700	279,300
예산군	14,000,000	4,200,000	9,800,000	8,274,420	5,725,580
태안군	18,000,000	5,400,000	12,600,000	11,750,000	6,250,000

▶ 시군 총남학 프로그램 운영 결과

- 다음으로 시군별 총남학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음
- 2021년 기준 총남학 관련 시군 주민 대상 교육횟수는 총 232회이며 교육시간은 758시간이 소요되었음
- 교육인원으로는 남녀의 성비가 균등하며 총 550명이 총남학 강의를 수강하였음
- 총남학 교육운영시간을 살펴보면 천안시가 113시간으로 가장 많고 서산시가 99시간, 태안군이 92시간으로 실시하였음
- 반면 30시간 내외의 총남학 교육을 수행한 기초자치단체 집단들도 6곳이 존재하며 논산시, 예산군은 30시간 미만의 운영 시간을 보임
- 교육횟수로 보면 서산시(33회), 태안군(31회), 천안시(27회)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서천군(8회), 예산군(6회)의 10회 미만의 지역도 존재함
- 하지만 교육횟수나 시간에 따른 교육인원수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데 당진시의 경우 교육시간은 60시간으로 높지 않지만 수강생은 90명으로 천안시(91명) 다음으로 많음
- 반면 서산시는 교육시간이 99시간에 비해 교육인원은 40명으로 교육시간 대비 인원의 비율이 낮음
-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육인원이 비교적 적은 논산시, 금산군, 홍성군, 공주시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이와 함께 계룡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은 88점으로 만족도가 낮은편임
- 예외적으로 천안시는 운영시간이나 교육인원이 비중이 높는데 만족도도 95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양적으로 살펴보면 천안시가 교육시간과 질적만족이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33] 군단위 총남학 교육 운영 결과

시군	사업결과							
	운영시간	교육횟수	교육인원(명)			만족도(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758	232	550	273	277			
천안시	113	27	91	28	63	95	94	96
공주시	80	20	30	15	15	94	95	92

시군	사업결과							
	운영시간	교육횟수	교육인원(명)			만족도(점)		
			계	남	여	계	남	여
아산시	32	10	20	11	9	95	95	95
서산시	99	33	40	15	25	90	93	88
논산시	20	10	26	16	10	96	98	94
계룡시	70	20	25	15	10	88	87	89
당진시	60	21	90	39	51	88	87	89
금산군	33	11	14	3	11	96	90	98
서천군	32	8	47	11	36	88	89	88
청양군	33	13	28	21	7	87	88	85
홍성군	66	22	59	26	33	93	99	84
예산군	28	6	20	16	4	90	89	93
태안군	92	31	60	57	3	88	87	100

2) 시군 충남학 프로그램 내용

▶ 시군 충남학 프로그램 구성

- 시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충남학 프로그램은 충남학 이론강의와 현장실습으로 구성
- 충남학 이론강의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을 통해 양성한 충남학 강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외에도 시군에서 해당차수의 강의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섭외한 전문가 중심으로도 구성됨
- 충남학 현장실습은 답사의 형태로 이루어지면 프로그램당 4-5번정도의 충남지역 문화유산, 전통 및 자연 유산을 단체로 방문
- 답사는 수강생들이 문화유산해설사 및 충남학 강사와 함께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시군 충남학 강의 프로그램

- 시군 충남학 강의 프로그램은 주교재인 「충남학의 이해」 1,2권을 중심으로 공통적인 내용이 구성
- 이외에 시군의 자체적인 지역학(시군학)의 내용들을 일부 포함시키고 있으며 도비 및 시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 충남학과 시군학의 비율이 일부 조정
- 시군에서 충남학 강의는 충남학 교재 집필진 및 양성된 기존 충남학 강사의 역량에 의해 참여율 및 만족도가 변화되는 비중이 크며 수강생 요구, 위탁기관 담당자의 의지 및 역량에 따라 외부 별도 강사진을 위촉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 시군에서 충남학과 시군학의 교육을 함께 운영하는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4] 시·군의 충남학 시군학 운영현황

	충남학 운영형태	시군학 운영
천안시	민간위탁	천안학 운영(천안시 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
공주시	민간위탁	공주학 운영(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소)
보령시	미운영	시민대학 일부 프로그램

	충남학 운영형태	시군학 운영
아산시	미운영(2022년부터)	아산학 운영(순천향대 아산학연구소)
서산시	민간위탁	충남학 서산학 공동운영
논산시	민간위탁	논산학 운영(민간위탁 기관 자체운영)
계룡시	직영	미운영
당진시	민간위탁	충남학 당진학 공동운영
금산군	민간위탁	충남학 금산학 공동운영
부여군	미운영	부여학 자체운영(부여문화원)
서천군	민간위탁	충남학 서천학 공동운영
청양군	민간위탁	충남학 청양학 공동운영
홍성군	직영	홍성학 별도운영 예정(민간위탁)
예산군	민간위탁	예산학 별도운영(2015년 이후)
태안군	직영	충남학 태안학 공동운영

- 대부분 충남의 시·군에서 시군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룡시는 행정과 지역 규모의 협소화로 인해 별도의 지역학 운영은 어려움
- 오히려 충남학이 부여, 보령이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예산 축소로 인한 충남학의 강의 비율이 낮아지는 현황임

▶ 시군 충남학 답사 프로그램

- 도민대상 충남학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강생들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 충남학의 현장답사 프로그램
- 현장답사 프로그램은 충남학 강의 내용인 전통유산, 문화유산을 직접 방문하는 과정임

3. 대학 충남학 교육 지원

1) 충남학 거점대학 지원사업 현황

▶ 충남학 거점대학 지원사업 개요

- 운영 주체: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충남 도내 거점대학을 선정하여 매년 보조금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이를 기반으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 사업 목적: 대학 내 충남학 교양과정을 개설 및 운영하여 충청남도내 대학생들에게 충남학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 사업: 도내 거점대학 중심으로 매학기 2학점 충남학 과목의 교양과정 개설 및 운영
- 충남학 대학지원사업은 대학 평생교육원 및 교양대학을 중심으로 충남학 및 시군학의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학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충남학 강사를 중심으로 한 강의와 문화유산 및 현장체험 답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충남학 거점대학 지원사업 예산

- 충남학 거점대학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매년 평가를 통해 보조금 형식으로 운영 예산을 지원하여 수행되었음
- 2014년부터 충남학 거점대학 지원사업의 예산 현황과 변화는 다음과 같음

[표 35] 충남학 대학지원사업 예산의 변화

(단위 : 천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00,000	70,000	50,000	67,000	91,000	91,000	90,000	91,000	104,000

- 충남학 거점대학 지원사업은 2014년 이후 2015년-2017년 삭감되기도 하였으나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현상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014년의 경우 거점대학 지원사업 예산에 충남학 강사양성과정 운영예산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

▶ 충남학 거점대학 선정 현황

- 대학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교양과목(2-3학점) 운영으로 충남학 강의를 수행하는 거점대학과 콘텐츠·디자인 등 학과 전공과목을 활용한 교과목 개발 운영의 특성화 대학을 구분하여 운영
- 이와 함께 충남학 교양과정을 수행할 거점대학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 2014년 충남학 거점대학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일반적인 교양과목의 거점대학운영과 함께 전공교과목의 특성을 충남학과 접목한 특성화 대학지원이 2016년까지 진행되었으나 2017년 이후 폐지됨
- 2019년까지 5개 대학 중심으로 충남학 대학지원사업이 수행되었으며 2021년에 3개 대학이 신규로 추가되었고 현재 9개 대학이 충남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음

[표 36] 충남학 교육 대학지원 선정 현황

연도	유형	선정대학
2014년	거점대학	공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선문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2015년	거점대학	나사렛대학교, 선문대학교, 청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2016년	거점대학	선문대학교, 청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2017년	거점대학	남서울대학교(신규), 선문대학교, 청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한서대학교(신규)
2018년	거점대학	남서울대학교, 선문대학교, 청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한서대학교
2019년	거점대학	남서울대학교, 선문대학교, 청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한서대학교
2020년	거점대학	남서울대학교, 선문대학교, 청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한서대학교, 세한대학교(신규), 혜전대학교(신규)
2021년	거점대학	남서울대학교, 세한대학교, 청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신규), 나사렛대학교(신규), 백석대학교(신규)
2022년	거점대학	남서울대학교, 세한대학교, 청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백석대학교, 혜전대학교

2) 충남학 거점대학 지원사업 결과

▶ 거점대학 지원사업 운영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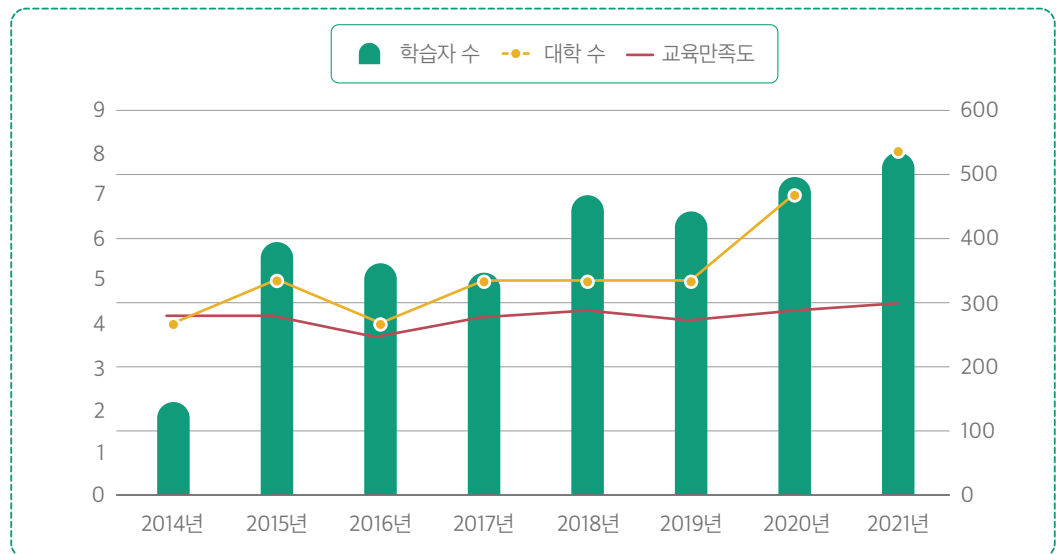
- 충남학 거점대학 지원사업은 1개년도에 2개학기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방학기간인 1-2월과 7-8월에 공모과정을 진행하거나 과목개설준비 기간으로 활용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충남학 대학 지원사업	계획수립 공모심의 결과통보	- 1학기 교양과정 개설 운영 - 개강점검					- 2학기 - 개설 준비		- 2학기 교양과정 개설 운영 - 중간점검 - 최종결과보고			

▶ 충남학 거점대학 지원사업 운영 결과

- 충남학 교육 거점대학 지원사업에 대한 학습자수 및 학습만족도를 2014년-2021년 기간에 대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12] 충남학 대학지원사업 운영결과



(학습자수와 교육만족도 그래프)

- 충남학 대학지원사업 운영결과를 보면 양적으로 대학도 2014년 시작 이후 4개에서 8개로 증가하였으며 학습자수도 335명에서 2021년 510명까지 증가하는 추세임
- 거점대학 관련 지원예산이 1억원 내외로 변동이 없는 것을 보면 양적인 확대로 사업 효율성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함께 교육 질적 평가인 학습자의 만족도는 2016년 3.6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5점기준 4점 이상이며 특히 2020-2021년은 4.29와 4.45로 만족도가 매우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1년 거점대학 지원사업 운영 결과

- 특히 2021년의 충남학 거점대학 지원사업 성과목표와 달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7] 2021년 충남학 거점대학 지원사업 결과

연번	지역	대학명	학습자 수(명)		수료율(%)		만족도점수(점)		비고
			목표	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1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80	75	90	1.100	4.30	4.33	1,2학기 운영
2	당진시	세한대학교	80	57		1.100		4.55	
3	홍성군	청운대학교	80	77		1.95		4.48	
4	청양군	충남도립대학교	80	63		1.94		4.52	
5	서산시	한서대학교	80	71		1.99		4.43	
6	당진시	호서대학교	80	49		1.100		4.38	
7	천안시	나사렛대학교	40	40	100	1.100	4.30	4.50	2학기 운영
8	천안시	백석대학교	40	98		100		4.44	
총 계			560	530	90	98	4.30	4.45	

- 거점대학 교육 학습자수는 한학기당 40명으로 운영되었으며 목표인 560명에 약간 못미친 530명 모집되었으나 교육과정 수료율은 98%로 대부분 과정을 수료 하였음
- 만족도는 평균이 4.45점이며 충남도립대학교와 세한대학교는 4.5점을 상회하였고 상대적으로 남서울대학교와 호서대학교는 4.3점대로 낮은 점수를 보임

4. 기타 충남학 지원사업

1) 충남학 교육협의회 운영

▶ 개요

- 충남학 교육협의회 운영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 충남학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담당기관간 정보교류의 場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함
- 2020년까지는 충남학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는 충남학 거점대학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관련 책임교수 및 담당자간 회의를 개최를 의미함
- 거점대학 담당자간 회의를 통해 사업추진의 노하우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과 함께 충남학 공공기관 협력 등의 새로운 사업의 설계, 콘텐츠 확대 등의 논의를 수행함

▶ 2021년 추진 상황

- 2021년 충남학 교육협의회 사업은 이전보다 세분화 되어 청소년 충남학 교육 자문협의회, 충남학 거점대학 실무자 회의로 구분하여 추진됨
- 청소년 충남학 교육 자문협의회는 4월에 1회 개최되었으며 충남교육청 장학사, 청소년 진흥원 센터장, 충남 교육연구정보원 연구사 및 관련분야 교수로 구성된 청소년 충남학 교육 자문위원 5인으로 진행
- 청소년 진흥원과 협력하여 자기주도형 충남학 동아리 지원사업의 운영방향 제안과 청소년 대상 강사양성 및 교육내용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수행
- 충남학 거점대학 실무자 회의는 6월에 1회 개최되었으며 충남학 거점대학 사업을 운영하는 실무담당자 8인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음
- 논의를 통해 충남학 강사중심 방식의 변화와 교육 내용의 다양화의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과정, 운영 방식 변화로 차별화 및 교재의 재구성의 논의를 공유함

2) 충남학 동아리 발굴 운영

▶ 개요

- 청소년 대상 충남학 동아리 발굴 운영은 2021년부터 시작된 충남학 인식확산을 위한 신규사업이며 청소년이 충남학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영상콘텐츠 제작을 기반으로 한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을 의미함
- 시범적으로 2018년에는 도내 중학교 자유학년제 1-2개교 대상으로 충남학 교육프로그램을 시점적으로 실시하였고 충남학 관련 스토리텔링북을 배포하였음
- 충남 도내 만15-24세 청소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며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와 활동비 지원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5백7십만원 예산규모임

▶ 사업 내용 및 성과

- 청소년 충남학 동아리 지원사업은 2021년 7월 심의를 통해 6개 팀을 선정하였으며 선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동아리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3팀과 대학교 3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운대학교를 제외하고 1백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
- 동아리 활동 시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중간점검 및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종료 이후 영상 결과물 제출

- 6개의 동아리는 모두 5회 이상 13회 이하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결과로 충남학 관련 영상물을 1편 제작하여 제출함
- 제출된 영상물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SNS를 통해 홍보

[표 38] 충남학 청소년 동아리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역	학교 및 동아리명	충남학 스토리텔링북 선정 주제	지원예산
1	논산시	충남체육고등학교 영어방송클럽	07. 병마 물리치고 마을 안녕 비나이다, 충남의 세시풍속과 전통축제	1,000
2	홍성군	홍주고등학교 C-loud	12. 이제 대세는 내포, 내포의 시대가 열린다	1,030
3	천안시	천안상업고등학교 락앤틱	08. 뱀뒤유~개나주게, 충남인의 해학과 여유	1,000
4	천안시	백석대학교 다인	11. 알고나 믿자, 한반도 종교의 중심 충남	1,000
5	아산시	순천향대학교 그류	02. 백제의 수도에 온 걸 환영해!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과 유물	1,020
6	홍성군	청운대학교 사인검	07. 병마 물리치고 마을 안녕 비나이다, 충남의 세시풍속과 전통축제	1. 650

3) 충남학 강사 심화연수

- 충남학 강사 양성 및 심화연수는 2014년 충남학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부터 지속된 사업이며 2018년까지는 충남학 강사 자격평가제도로도 운영됨
- 2017년부터는 신규 양성보다는 기존 충남학 강사의 심화연수과정을 주로 운영하였으며 주요한 내용으로는 충남학 강의대상자 수요조사에 따른 맞춤형 강사 심화연수 운영, 수업시연 평가 컨설팅, 수업자료 작성의 코칭으로 구성됨
-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강사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비대면 강의역량강화(소통 및 공감 스피치), 충남학 인식변화와 책임의식(충남학 의미와 방향)으로 구성되어 실시하였음
- 2021년 강사 심화교육은 전체 충남학 강사 41명 중에서 26명이 수강하였으며 만족도는 4.2/4.5를 기록하여 교육의 질적 참여와 만족도 높았다고 볼 수 있음

4) 충남학 홍보

▶ 개요

- 2014년 충남학의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교재발간 및 대학과 도민대상 교육활동에 사업이 집중되면서 충남학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부족 극복을 위한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진흥원은 그동안 거점대학 충남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시도되었던 학생대상 UCC경연대회 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충남학 홍보를 위한 세부사업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함
- 2018년에는 충남학 관련 문화유산 활용한 증강현실(AR) 등 콘텐츠 기획과 영상제작을 지원하여 체험 및 교육에 활용가능한 교재로 개발하여 보급

▶ 충남학 가봐U 개발 홍보

- 2019년에는 충남학 홍보를 위한 '충남학 가봐U' 모바일앱 개발을 통해 사회·역사 수업시 활용하도록 홍보하였고 앱을 통해 온라인 이벤트 개최
- 2020년에는 충남학 가봐U 앱의 유지관리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산보원사지, 예산 추사고택 답사시

학습자 교육 참여도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 16백만원 예산 투입

- 하지만 2021년 9월에 '충남학 가봐U' 앱서비스를 종료하였으며 이는 개발 이후 이용률 및 활용도 저조가 지속되면서 지속적인 기관협력 및 예산 투입에 한계가 제기되었고 행정안전부의 공공앱 성과 측정 점수미달로 최종적으로 앱 종료 결정

▶ 충남학 언론노출

- 충남학 인식확산을 위해 2020년 충남학의 이해 교재 내용을 '충남도정신문'에 27회 게시하여 도민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였음
- 2021년에는 충남학 내용의 충남도정신문에 게재하면서 충청남도 공보관실 도정신문팀의 협조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충남학 관련 원고를 월 1회 게재함
- 충남학 관련 원고 집필자는 충남학 거점대학 책임교수3명이며 해당 권역 지역자원(역사·문화, 음식 등)을 활용하여 7회에 걸쳐 내용을 집필 게재함
- 충남도정신문에 게재된 충남학 원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9] 충남도정신문의 충남학 게재 주요 내용

연번	권역	주 제	집필자	게재일자
1	북부권	천안학의 선구자 순암 안정복	심재권	6. 25.
2	내포권	성삼문의 길성삼문의 길: 당대에는 반역, 후대에는 충신	김경수	7. 15.
3	서부권	반농반어의 생활·문화적 특성 : 음식[계곡지]	구경완	8. 15.
4	북부권	목주오축성과 저항정신	심재권	9. 5.
5	내포권	충민공 류사 : 병자호란에 맞선 서산의 충신	김경수	10. 15.
6	서부권	반농반어의 생활·문화적 특성 : 음식[꺼먹지]	구경완	11. 5.
7	북부권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적 지주 석오 이동녕	심재권	12. 25.

▶ 충남학 영상공모전 개최

- 충남학 관련 동영상 제작 및 배포를 통한 도민들의 충남학 관심과 인식향상을 위한 사업지원이 2020년부터 시작되었고 일부 거점대학에서는 이전부터 실시
- 2020년에는 '충남학 UCC동영상 제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거점대학 지원사업으로 출품된 대학생 대상으로 진행하여 11월 1회 진행하였음
- 2021년에는 '충남학 영상 공모전'으로 개최되었으며 충남학 운영 8개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충남학 관련 영상 제작을 통한 충남학 이해도 향상과 인식확산 도모
- 영상공모전에 총 55편이 출품되었으며 11월에 공개심사과정을 거쳐 총 10편의 영상이 선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0] 2021년 충남학 영상공모전 선정 결과

연번	훈격	작품명	대학명	비고
1	대상	충남, 우리가 바라던 바다	호서대	
2	최우수상	11월 19일	호서대	
3	우수상	서산 개심사 소개	한서대	상권취소
4		한국의 별	한서대	
5		서산에서 산다는 건	한서대	

연번	훈격	작품명	대학명	비고
6	장려상	충남의 낭만 당진을 만나다	호서대	
7		충남골든벨	청운대	
8		충남쓰(Chungnam's)	나사렛대	
9		나는 지칠때마다 충남으로 떠난다	백석대	
10		순환형 버그내 순례길	호서대	

- 수상된 작품은 비대면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였고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업로드 및 SNS를 통해 2022년 1월 수상작 홍보를 수행함

1. 조사방법과 개요

1) 조사방법

▶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의의

- Focus Group Interview는 특정 집단별로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넓은 주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획득하고자 할 때 활용함
- 초점집단 면접조사는 충남학 교육과 관련되어 인식적 부분과 정책 및 활동 수요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제 교육 운영에서 맥락적, 해석적 지식을 얻고자 실시
- 또한 충남학 교육 운영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정책수요의 의견들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정책지원의 방향과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충남학 교육 관련된 현장의 운영시각에서 인식 및 수요 파악과 내용의 구성을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활용

2) 조사개요

▶ 초점집단면접조사 기간과 집단

- 충남학 인식 및 수요파악을 위한 조사는 6월 16일-22일에 걸쳐서 이루어짐
- 충남학 인식조사는 현재 충남학 주요 사업인 교육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다음의 주요 행위자 집단으로 구성됨

[표 41] 충남학 FGI 담당집단 구성

	시군 담당자 집단	시군 운영자 집단	대학 담당자 집단
성격	시군 충남학 운영 담당 공무원 집단	시군 충남학 운영 위탁기관 담당자	거점대학 충남학 교육 운영 담당자

- 시군 담당자 집단: 시군에서 충남학 교육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충청남도에서 충남학 사업운영비 교부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을 통해 교육을 지원하는 공무원 집단
- 시군 운영자 집단: 현장에서 충남학 교육을 진행하는 담당자로 시·군 공무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제로 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자
- 대학 담당자 집단: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충남학 거점대학으로 선정되어 대학내 교양과목 개설을 통해 학생들에게 충남학 교육을 수행하는 과목 운영자

▶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설계

- 본 초점집단면접조사는 사전에 설계된 개방형 질문들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참석자들간 자유로운 대화와 논의를 통해 구성된 내용을 분석하였음
-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위해 구성한 질문들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2]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주요 내용

주 제	내 용
충남학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및 소속기관의 충남학 교육 활동 관심의 계기 및 활동 배경 - 교육 대상자들의 충남학 인식과 활동의 정도

주 제	내 용
주요 개념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학의 주요 내용과 영역 및 주제에 대한 의견 - 현재 지역차원에서 충청남도에서 강조되어야 할 충남학의 핵심내용 - 중장기적으로 충남학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와 비전 공유
정책추진과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학 운영 지원을 위한 종합적 차원에서 정책지원의 의견 - 충남학 진흥을 위한 충남학 내용 다각화 및 교육방식에 대한 의견 - 충남학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운영주체 구성과 역할 - 충남학의 지역, 대학,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필요성과 효과적 방안

- 초점집단면접은 본 내용을 기반으로 대상을 6-7인 정도 그룹핑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한 서술 면접조사를 수행하였고 추가 확인 및 보완사항은 이메일 및 유선연락으로 확보하였음

2. 충남학의 인식과 운영현황

1) 시군 충남학 운영자

▶ 충남학의 추진배경

- 충남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 시민들과 지역문화원, 지역평생교육을 중심으로 충남학에 대한 수요가 있음
- 특히 지역문화원은 향토사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운영자와 충남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다수 있음
- 충남의 도농복합지역에서는 직장이주인, 귀농귀촌인, 결혼이주인 등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으며 이들은 충남학을 비롯한 지역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 이와 함께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더 전문적 내용을 습득하기 위한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신 퇴직 교사를 비롯한 은퇴자들의 수요도 높으며 이들의 충남학 강의 재수강율도 높은 현황임
- 충남학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딱딱한 과거 역사책의 방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로부터 ‘충남학’ ‘시군학’은 대중에게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음
- 대중적으로도 그렇지만 역사 및 지역관련 대학생, 연구자들에게도 충남학의 수요가 있고 문의가 있으나 대중적인 성격의 충남학 강의교재로 깊이를 맞추기는 어려우며 보다 심화되고 전문적인 내용도 필요함

▶ 충남학의 강의내용

- 충남학 강의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서 불만이 많으며 10여년간 지속되어 왔던 충남학 강의내용이 그대로 답습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교재2권으로는 내용의 다양성 수요부합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충남학의 이해 1,2권 교재는 현재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서 강사들 사이에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른 내용을 강사 스스로 발굴한다는 점에서 방식이나 교재의 개선이 시급함
- 포괄적인 충남의 역사문화를 백화점식으로 다루기 보다 대중지향적인 세부 주제들을 발굴하여 스토리텔링 방식의 심화된 내용일 때 수강 만족도가 높음(충남 여성문인 알아보기, 우리고장의 항일운동, 지역특색의 음식문화 등)
- 수강자의 의견은 우리지역 축제나 문화행사, 특정 주제에 대한 스토리텔링, 정치적 변화와 현황, 우리지역의 하천과 생태환경, 산업경제와 물류교통, 주류와 특산물 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세부적인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을 때 흥미도와 활용도가 높음
- 현재 충남학 운영결과 처음 진입하여 습득하시는 분과 여러번 수강하시는 분으로 구분되며, 강의가 매해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되서 수강생이 자주 바뀌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강하여 오히려 내용적 문제를 제기하는 분으로 구분

- 결국 충남학 강의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이는 전문가들에 의한 지속적인 충남학 강의를 위한 주제발굴, 이에 따른 사료발굴, 스토리 개발 등의 전문연구활동 및 자료 축적의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충남학의 소재고갈과 일률적 내용, 반복적 강의는 수강생 수요에 부합하지 못해 오히려 시군 중신의 시군학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 충남학의 강의운영

- 충남학 강사들에 대한 운영 현장에서 수강생 중심의 불만들이 상당수 있음. 이는 강사들이 이전의 교육내용과 방식을 답습하고 있으며 보수교육과정이 있지만 교육콘텐츠나 수업방식의 개선이 미흡함
- 강사풀이 한정되어 있고 진흥원에서 통합관리를 통해 전체강의에서 일정비율 이상 등록강사의 규제가 있어서 반복적인 강의와 강사를 운영할 수 밖에 없음. 충남학 내용에 대한 다양성과 함께 강사의 다양성 확보가 시급함
- 일부 시군에서는 충남학 강의를 위해 외부 교수 및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음(지역 명사, 은퇴한 전문가 등)
- 강사풀의 한정은 충남학 교육과 강의 내용 한정과도 연관되며 충남학 강의 내용의 다양성에 따른 강사 수급과 탐색이 용이할 수 있음
- 충남학과 함께 수행되는 시군학에 대해서도 시군 담당자나 주민들의 관심들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충남학에서 시군학 교육내용의 비중확대가 현실적으로 필요함
- 시군학의 일부내용들이 겹치기도 하며 충남학과 유사성도 일부 있다는 점에서 충남학 관리체계에서 시군학을 다루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강의 내용과 함께 강사들의 교육방식에도 다양성이 필요하며 단순한 문서나 ppt보다는 동영상, 사진 등의 매체활용과 함께 다양한 교보재 활용(건축물, 기왓장, 공예품, 그림, 음악 등)의 구성·활용이 필요함
- 일방적인 강사들의 알려주기식 이론적 강의보다는 수강생들이 강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강의방식의 방법들이 개발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충남학의 강의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수강하시거나 충남학 강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이론적 강의는 참석하지 않고 답사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함
- 현재의 충남학 강의교재를 활용하는 시군은 많지 않으며 새로 충남학을 시작하는 시군은 강의교재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음. 강의교재를 활용해도 내용보다는 해당 주요 목차만 참고하고 세부내용은 강사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교재의 활용도가 거의 없음

2) 시군 충남학 담당자

▶ 충남학의 추진배경

- 충남학은 시민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에서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되었고 2014년 이후 전체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주로 지역문화원을 통해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충남에서는 충남학을 교육중심으로 운영하다보니 추진주체상 내용이 지역문화분야라서 시군에서도 문화관광부서나 평생교육부서 어디에서 수행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충남에서 지역학은 주로 연구개발보다 시민들 대상의 평생교육 강좌 개념으로 접근한 부분이 크며 대중적으로 확산도 장점은 있으나 교육콘텐츠와 내용발굴 등 질적 측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함

▶ 충남학의 강의내용

- 충남학 강의 교재의 내용이 수강생들에게 지나치게 어려워 교재 활용도가 떨어지고 수업에서 교재보다 강사들이 준비한 자료가 주로 활용되고 만족도 높음

- 충남학 교재의 내용이 어렵기도 하지만 수년간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서 수강생들의 지루함이 확산되고 만족도도 줄어 들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외부 강사초빙도 시군 담당자의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
- 수강생들은 충남학 강의내용보다 답사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가 높으며 답사프로그램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충남학보다 지역학의 인기와 수강생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충남학 강의 비율 30%이상의 규정으로 인한 불만들이 있음
- 충남학과 시군학을 구분하지 말고, 충남이외의 지역도 포괄하는 지역적 다양성도 운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함. 충남학에서 세부적 내용으로 시군학과 연계될 수 있고 충청권에서는 충남 이외 지역과 연계될 수 있어서 교육내용 및 사례탐방에서도 이러한 지역의 제한은 불필요함
- 충남학만의 주제를 교육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도 필요함(대표적으로 충남학에 지역환경교육 등을 연계시킬 수 있음)
- 충남학 강의 프로그램 구성이 구체적인 세부 주제로 개발되면 좋겠고, 운영시에도 주제에 따라 이론과 답사가 연계되어 함께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임
- 충남학을 위한 별도의 교재를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개발·보급하는 것 보다 전체적 내용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세부적 영역이나 내용은 초빙 강사들을 중심으로 기획하거나 조사연구를 통한 전문화된 자료의 활용이 효과적임

▶ 충남학의 강의운영

- 충남학 강사들보다 관련 충남학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이에 대한 참석율도 높음
- 사례탐방 프로그램에 대해 도내의 지역을 중심으로 탐방장소 선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나 지침으로 인한 수강자들의 불만이 많음
- 충남학 교육운영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시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에 너무 행정업무가 많아서 어렵고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기에도 위탁기관에서 운영의 매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임
- 충남에서도 지역이나 인구규모가 적은 시군의 경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충남학이나 지역학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고 교육의 양이나 질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도에서 총괄적 강의 운영도 효과적 방법임
- 충남학 강좌운영시 1기 15-16차시 정도의 교육과정은 수강생들이 모두 듣기에 일정의 부담이 존재하여 과정의 단축도 필요함
- 또한 충남학 강좌의 중장기적 과정보다 특정 세부주제(충남의 산, 충남의 여성, 충남의 축제 등)에 따른 1-5강 과정 개설 및 답사1회 및 1-2회 정도의 특강형식 구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충남학 강의에서 답사 프로그램만 참석하는 경우도 많아서 교육과정에서 답사와 강의 내용을 하루에 연계하여 진행하는 과정 개설도 바람직함

3) 대학교 충남학 운영자

▶ 충남학의 추진배경

- 대학에서는 평생교육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거점대학 충남학 지원사업의 실시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백석대 및 천안소재의 대학들은 천안학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충남학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 주로 평생교육원이나 교양교육과정에서 충남학 강의를 2-3학점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남학 이론강의와 사례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함
- 천안 및 충남 소재 대학들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지역을 옮긴 학생들이 지역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의 필요성은 인지함

▶ 충남학의 강의내용

- 수행경험이 있는 학교의 경우 제작되어 있는 교재인 충남학의 이해1,2권을 중심으로 강의를 수행하고 있으나 신규진입 학교의 경우 교재 없이 별도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강사를 위촉하여 진행함
- 충남학 위촉 강사는 진흥원의 충남학 강사 풀을 활용하지만 연령대가 비교적 높아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아 이에 대한 교체나 변화가 필요해보임
- 특히 기존 충남학 강사들에 대해 영상 및 미디어 활용의 교육내용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실행이 미흡하며 비대면강좌에서도 기존 자료를 활용하다는 학생의 지적이 다수 발견됨

▶ 충남학의 강의운영

- 강의대상이 학생들이라는 특성상 학생들이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직접 UCC로 만들어서 발표 및 시상하는 과정이 충남학 흥미유발, 팀워크 생성, 경쟁심리 등의 효과가 있음
- 충남학의 강사들이 연령이 좀 높다보니 비대면 강의나 영상녹화 시스템에 대해 부담스럽고 익숙하지 못한 단점이 있음.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시스템 구축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며 강사풀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임
- 충남학 수강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장중심교육의 효과가 크지만 코로나19 특성상 수행이 어려워 왔고 예산의 한계로 인해 자주 계획할 수 없음
- 특히 대학 과목운영의 한계로 2시간 이내로 답사를 다녀와야 하는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동시간이 있는 지역은 답사를 다녀오지도 못하며 상세한 설명과 공감미 부족함
- 충남학 교육 운영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예산의 활용과 지출측면인데 지출에서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임

3. 충남학 정책 지원 수요

1) 시군 충남학 운영자

▶ 충남학의 정책지원 의견

- 2014년과 2017년에 개발된 '충남학의 이해' 1,2권의 교재 활용가치가 낮으므로 교재 활용방식이나 내용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함
- 충남학은 매우 넓은 지역의 다양한 대상과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역사책 방식의 교재보다 지역학을 구성하는 영역과 주제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의 매뉴얼방식의 교재가 적합할 수 있음
- 충남의 역사와 문화의 거시적인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보다는 지역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흥미가 있는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자료발굴과 구축의 연구활동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주제발굴과 연구는 항상 같은 내용으로 흥미가 사라지는 충남학에 대한 도민 인식제고와 만족도 향상, 홍보 등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충남학에 대한 보다 지속가능하고 확산이 가능할 수 있음
- 충남학 강사의 양과 질에 대한 한계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며 통합기관에서 강사양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강사섭외의 자율성을 확대하거나 강사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요구됨
- 충남학 강사들이 분야가 맞아도 거리가 멀어서 초빙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어서 각 권역별로 충남학 강사를 확충하거나 관련 내용의 강의가능 인재들을 리스트업하여 이를 공유하는 현실적인 대안도 필요함

- 현재 충남학 강사들에 대한 대폭적인 교육의 전환이 필요하며, 강의내용과 함께 강의 방법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도구와 방법 개발이 필요함
- 강사들의 양적, 질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강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도 필요하며 강의 교안에 대한 검토와 거리에 따른 강사 배치와 활용 및 만족도에 따른 강의 확대나 제한 등의 견제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방안 필요함
- 충남학 강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도구와 장비들도 교육방식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 등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비대면방식 강의 장비 등 강의운영에 대한 시설지원이 필요
- 현재 13개 시군에서 충남학 운영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충남학 진행하는 위탁 기관들간에 상호교류와 의견논의의 기회와 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운영경험 노하우, 강사, 강의프로그램, 답사일정과 장소 등의 정보공유와 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충남학 정책체계와 연계협력 의견

- 충남학을 일반주민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충남학 수요가 있는 지역내 입주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효과가 있음. 새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기관들은 지역학의 욕구가 있음
- 시군학에서도 역사문화적 내용만이 아니라 지역의 교통, 안전, 보건 등에 대한 내용적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해 현재는 특강식으로 일부 시행했지만 지역 경찰서, 보건소, 소방본부 등 관련 전문기관의 협력으로 함께 이루어지면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아짐
- 충남학에 대한 진흥이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정책과 학문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는 교육 분야에 치중된 경향이 있음. 도민 교육부분에서 진흥원에 강점이 있으나 지속적인 콘텐츠 발굴과 이를 위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활동부분이 육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충남학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중심으로 교육, 연구, 개발, db관리, 홍보 등의 지원주체와 연계를 통한 체계가 효과적일 것임
- 다만 문화재단, 문화원 등 연관기관들은 기타 업무로 생각할 수 있어서 컨트롤 타워를 통한 기관 대 기관의 연계방안을 통해 업무적 협력 확대가 필요함

2) 시군 충남학 담당자

▶ 충남학 정책지원 의견

- 현재 5-8백만원 정도의 운영예산으로 연간 충남학 강의와 답사 프로그램 운영에는 한계가 있음. 예산을 확대하거나 권역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충남학 수강생들 중에 퇴직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비율이 높으며 반복수강을 통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있어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도 효과적임(보조강사 및 스토리텔링 기법 통한 강사활동 등)
- 충남학 교육진행 방식에서 10-15회의 교육과정보다 1-5회의 단기 교육과정과 1-2회의 특강형식으로 세부주제에 대한 충남학 강의 시리즈 형태의 운영과 같은 다변화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 충남학 교육대상의 다변화와 특정 대상의 포커싱도 효과적임. 유치원 및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충남학 강의 운영이나 시군 신규공무원 대상 지역학강의,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등의 특정 대상에 대한 충남학 강의 개설을 모색할 수 있음
- 충남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의 활용이 필요하지만 보조사업에서는 불가하며 사업 전체의 위탁용역 방식 계약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한 금액이 작은 수준으로 실행이 어려운점이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군별로 예산을 구분하여 보조하기 보다 광역차원에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충남도서관의 금강 인문학 프로그램 예시)

- 이론적 부분의 강의 또한 광역차원에서 온라인 수강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영상제작과 업로드를 통합적으로 전문기관이 실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시군에서는 오프라인 교육 장소제공 및 답사 프로그램 제공의 연계역할 수행도 가능
- 특히 지역사회에서 충남학의 정체성 형성이 목적이라 한다면 아이들(유초등생)을 타겟으로 한 적극적인 충남학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이 필요
- 이를 위해 현장의 시군이나 위탁업체에서 계획 및 실행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보조사업형태의 운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

▶ 충남학 정책체계와 연계협력 의견

- 충남학과 같은 지역학, 향토학은 충남도서관을 비롯한 유관기관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과 연계협력도 운영에서 고려가 필요
- 교육대상의 다각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함. 대표적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충남학 강의 운영(교육청과 협력)이나 시군 신규공무원 대상 지역학강의,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등의 특정 대상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충남학 강의 개설
- 충남에서 지역아동센터나 노인요양원 등에서도 충남학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갖고 있는 주체가 많아서 강사파견을 통한 충남학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아동 및 노인 관련 기관들 및 관리주체와 연계를 통해 교육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충남학 관련 종합 콘트를 타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남학의 추진체계를 교육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를 도 및 광역차원의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시·군에서는 현장 실행을 위해 협조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종합계획의 차원에서 충남학 진흥정책의 추진방식을 대폭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의 오래 전에 개발된 교재기반의 교육활동을 위한 위탁사업 진행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학 진흥 차원에서 연구개발, 아카이브, 교육체계 변화, 홍보 및 네트워크 등의 종합적 추진사고의 틀이 필요
-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충남학 진흥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진흥활동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기관이 콘트롤타워의 역할 수행이 필요함

3) 거점대학 충남학 담당자

▶ 충남학 정책지원 의견

- 충남학 운영예산 집행의 방식과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지출에 어려움이 있음
- 충남학 운영예산의 항목과 비용(유류비, 차량임차비, 식대 등)의 현실화가 필요
- 충남학 강사들에 대한 강의기술 및 교육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필요함
- 충남학 과목내용이나 강사 또한 인문학이나 문화학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현재의 지역사회 이슈나 쟁점에 대한 학생의 관심도가 높다는 점에서 과목과 관련 강사분야를 사회과학으로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충남학 교육운영 관련하여 거점대학별 간담회를 연1회에서 학기당 1회로 확대가 필요하며 구성원도 충남도 및 시군 담당자와 함께 확대하는 것도 필요

▶ 충남학 정책체계와 연계협력 의견

- 현재 충남학의 대학교육지원사업을 계속 운영하려면 충남소재 4년제 대학 전부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종합적인 커리큘럼을 통일화로 보다 효과적인 충남학 교육과 운영이 가능함

- 현재 충남학 교육에서 대학내의 연구소나 다른 지역기관과 연계하는 활동은 없으며 교수님들의 개별적 의지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는 있음. 하지만 답사 진행이나 관련주제의 강사 초빙을 위해 전문기관의 협력은 필요해보임
- 충남학 교육 진흥의 중심을 잡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광역차원에서 필요하며 강의방식, 강사관리, 교육 커리큘럼과 강의내용 관리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한 주체와 체계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함

4. 인식조사의 시사점

1) 충남학의 인식과 내용의 시사점

▶ 충남학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 퇴직자와 같은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 중심으로 충남학 및 시군학에 대한 관심이 다수 존재함
- 귀농귀촌인, 직장입주민, 결혼이주여성 등 충남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한 주민들 대상으로도 지역학의 관심이 있고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아동에 대해 우리지역 바로알기 및 정체성 향상의 과정에서 충남학, 지역학의 교육 필요성 제기
- 과거 지역문화원과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향토 역사문화 중심의 충남학이 구성·운영되었으며 평생 교육 및 시민대학 일환으로 충남에서 교육중심으로 운영

▶ 충남학 교재와 교육내용의 현황

- 충남학의 관심과 필요성은 있지만 공통적으로 역사문화에 치중한 과거지향적 내용 중심의 어려운 내용과 교재에 대한 한계와 보완을 지적하고 있음
- 충남학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주제와 심도있는 결과물에 기반한 내용들이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교육내용들이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충남학 교육내용도 일반적이고 거시적인 지역 역사, 전통, 인물, 환경 등 백과사전식 구분이 아니라 구체화된 내용과 지역차원에서 다양하게 개발 분류될 필요가 있음
- ‘충남학의 이해’와 같은 교육을 위한 교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와 같은 상세한 연구서와 같은 기술은 일반 대중서로 만족도가 낮으며 강사들의 자율성도 제한한다는 점에서 주제와 카테고리 및 교육을 위한 정보제공과 가이드라인 정도의 수준이 적함
- 단행본 1권에 지역학의 모든 내용을 담기는 어려우며 세부적인 충남학의 내용을 구성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결과물과 자료의 발간으로 교재역할을 충실히 담을 수 있는 자료화가 필요
- 충남학의 내용적 범위 또한 과거와 전통·역사중심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충남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의 보강이 필요함

2) 충남학의 운영의 시사점

▶ 충남학 강사 운영과 활용

- 충남학 운영의 많은 문제제기는 강사의 양과 질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충남학 강사 연령의 고령화와 함께 한 주제에 대한 반복적인 강의로 인한 매너리즘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강사풀의 강의내용 부실과 체감도가 낮은 교수법으로 수강생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극복방안이 필요
- 특정 주제에 대한 강사 활동범위가 넓지 않아 위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권역별로 강사풀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함

- 기존 강사의 한계극복과 함께 기존 강사풀 이외에 주제의 전문가(지역명사, 전문가, 은퇴자 등)를 자유롭게 위촉·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강의 운영과 진행에 대해 문서형태보다는 영상, 사진 및 다양한 형태의 보교재 활용과 함께 단순 강의보다 수강자의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교육내용 시급

▶ 충남학 운영 일반

- 충남학 예산이 감소하고 주민들의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시군학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강좌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한 충남학 비중 규제의 현실화 또는 상호보완의 방향이 필요함
- 충남학의 통합적인 관리체계에 시군학의 범주를 함께 고민할수도 있으며 교육 및 지원방식에서 시군학과 상호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범주에 포섭 필요
- 충남학 강의 운영에서 강의보다는 답사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인기가 높으며 이를 강화·확대하기 위한 현실화 방안(예산증액 및 활용, 시간활용 등)이 필요
- 충남학 교재만의 주제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자원·주체와 결합할 수 있는 내용과 구성의 운영 필요(보건안전, 환경교육, 경제교육, 창의인성교육 등)
- 충남학 강좌운영시 1학기(15-16주)의 기간도 필요하지만, 1-5회 및 단기 특강형식의 다양한 주제에 부합하는 방식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효과적
- 강좌진행에서 비대면 강의를 위한 시스템구축 및 강의내용 촬영 업로드와 공통적 교육내용 등은 광역(도)차원에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

3) 충남학 추진체계의 시사점

▶ 충남학 추진현황의 문제

- 지역학의 진흥은 종합적인 이론적 체계를 통한 종합학문의 방향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학문적 활동을 통한 연구자료와 교육자료들의 확보가 중요
- 충남학은 평생교육과 시민대학 중심의 교육중심으로 성장해온 특성이 강점이기도 하지만 반면 학문적 연구조사 및 융합과 연구조사, 출간 등 활동의 부족을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충남학 교재의 불필요성이나 강의 내용의 미흡함도 단순한 강사들의 교육방식 문제보다 과거의 교육내용에 답습함을 벗어나 시대변화적이며 구체적 내용중심의 현대와 미래를 함께 지향하는 다양한 내용들로 보강될 필요가 있음
- 충남학 교육을 위한 현재 1년 단위 시군별 5-8백만원정도의 예산으로는 지속적 운영이 어려우며 수행하지 않는 시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의 증가나 효율적 활용이 시급함
- 현재의 충남학 교육 또한 시군별로 예산을 나누어 보조하기보다 광역차원의 전문기관 선정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시군에서 협조하는 방식이 효과적

▶ 충남학 추진체계의 구성

- 충남학 교육을 포함하여 진흥정책 전반을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함
- 현재의 평생교육진흥원은 충남학의 교육 및 홍보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충남학 교육 내용의 보완과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에 한계
- 충남학 콘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충남학 조사연구기반, 교육과 네트워크 및 DB구축 등의 통합적 업무를 관리하고 지역문화, 아동청소년, 역사문화 등 교육내용 및 대상관련 유관기관과 상호연계의 협력 관계 구축으로 확산 도모 전략 필요
- 충남학의 교육을 포함하여 연구개발, DB관리, 홍보, 네트워크 등의 종합적 진흥활동이 필요하며 콘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과 상호연계 중심의 진흥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05

충청남도 충남학 종합계획 수립연구

충남학 진흥의 방향과 과제

- 1. 충남학 지원정책의 진단과 방향 103
- 2. 충남학 정책과제와 실천사업 119
- 3. 충남학 정책 실행과 추진 150

충남학 지원정책의 진단과 방향

1. 분석결과와
이슈발굴의
구조화

1) 주요 분석결과와 진단과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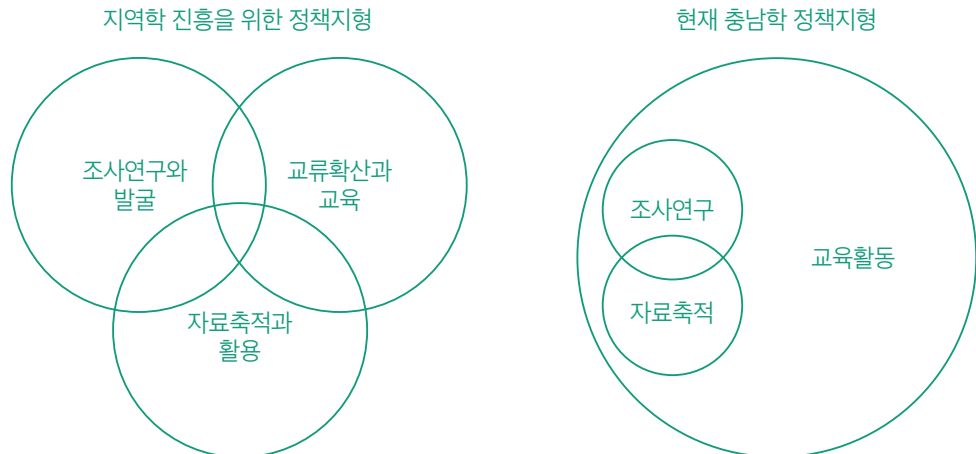
▶ 분석결과와 종합화

- 본 과업은 충남학의 이론적 검토를 통한 개념화와 함께 국내외 주요 사례분석의 결과, 충남학 인식과 정책수요 관련 FGI를 통해 주요한 이슈들을 도출하였음
- 분석을 통한 이슈들의 도출은 충남학 전반에 대한 방향의 지침과 실제 수행과정에서 인식하는 지원 수요들에 대한 종합적 결과로 볼 수 있음

▶ 진단과 영역 도출

- 분석결과로 도출된 이슈들에 기반한 진단의 내용을 통해 계획수립을 위한 주요한 영역적 지형을 도출하고 진단하고자 함
- 지역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사례조사 및 자문회의 결과 조사연구, 교류확산과 교육, 연구자료 축적과 활용 등의 3가지 영역을 균형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충남의 충남학 진흥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편향성을 보이고 있음

[그림 10] 지역학의 정책지형과 충남학의 현황



- 지역학 진흥을 위해 조사연구와 발굴, 교류확산과 교육, 자료축적과 활용의 균형있는 지원을 통한 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충남에서 충남학의 조사연구와 자료축적은 교육활동의 목적을 위해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변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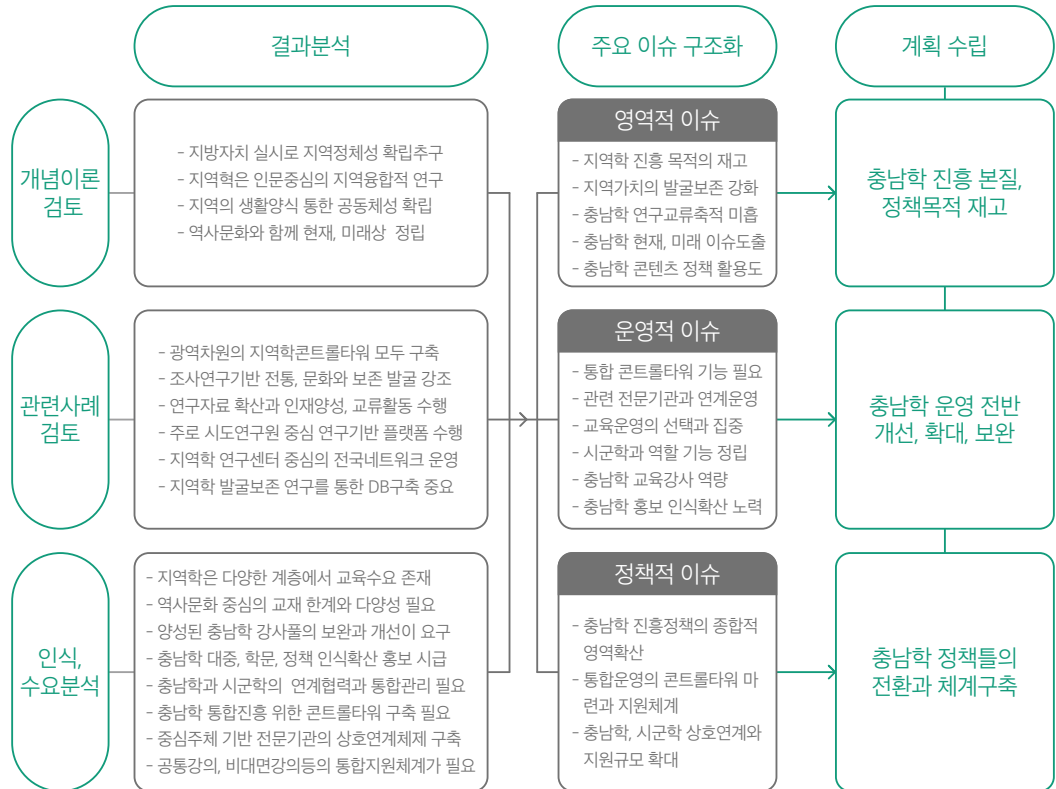
2) 분석결과에 따른 구성

▶ 분석결과와 이슈화

- 충남학 종합계획의 비전과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앞서 수행한 분석결과들에 대한 종합화와 구조화가 필요함
- 도출된 분석결과 이슈들에 대해 개념적 영역과 정책적 영역을 구분하여 구조화를 실시하여 핵심 이슈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이러한 구조화된 개념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충남학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운영의 가치를 도출
- 본 계획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영역적 이슈, 운영적 이슈, 정책적 이슈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음

[그림 11] 충남학 분석 종합과 이슈 구조화



2. SWOT분석과 기본 구상

1) 충남학의 SWOT 분석

- 지역학의 차원에서 충남학의 이론, 사례조사 및 다양한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을 종합한 결과 대내적 환경, 대외적 환경을 기반으로 한 SWOT분석의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음
- 충남학의 내부요인을 중심으로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요약 도출하였고 외부요인을 중심으로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S)을 도출하였음

[그림 12] 충남학의 SWOT분석 결과



2) SWOT 분석에 따른 전략화

- 다음으로는 충남학 SWOT분석의 결과에 따른 4가지 전략화를 종합하여 S-O전략, S-T전략, W-O전략, W-T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음

[그림 13] SWOT 분석 결과에 따른 전략 도출



- 본 전략을 살펴보면 충남학의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충남 및 시군별 지역정체성 확립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발굴 및 조사연구 활동의 필요성이 제시됨
- 현재 충남이 지역학의 강점으로 갖고 있는 교육분야를 다양한 충남학 인식확산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장점으로 유지하는 전략도 필요함
- 충남학의 조사연구 및 발굴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특색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확립의 자산으로 활용되는 정책적 효과 창출이 필요
- 종합적으로 이러한 충남학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교육에 한정되어 있는 정책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추진이 가능한 콘텐츠를 타워 마련이 시급함
- 이와 같은 충남학의 진흥과 정책개발 및 정체성과 가치확산으로 충남학 예산 및 정책우선 순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

3) 기본구상의 지향점

- 충남학 종합계획의 기본구상은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비전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목표로 구성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원칙들과 함께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 구성

▶ [비전]: 충남 정체성의 발굴과 확산, 힘센 충남의 밑거름(안)

- 비전은 5년간 종합계획의 기간동안 충남에서 충남학 지원정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의미함
- 본 계획에서 비전은 앞서 실시한 이론 및 사례분석, 의견수렴과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과 구조화된 이슈들을 통해 도출하였음
- 충남학의 비전은 조례의 목적과 개념에서 명시되어 있는 바처럼, 충남인과 충남지역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확립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민선8기의 가치인 '힘센 충남'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의 밑거름으로 활용되는 효과를 기대함

▶ **비전에 따른 목표의 설정**

- 비전 제시에 따른 충남학의 중장기적 목표는 궁극적으로 충남학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교육과 확산을 통한 지역정체성 발굴과 확산임
- 충남학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조사연구기반 구축, 교육과 네트워크 확대, 축적과 활용의 확산으로 영역을 구분할 수 있음

- **조사연구기반 구축**: 충남학의 기반 강화와 지속성을 위한 토대구축은 다양하고 심도있는 충남학의 기초자료의 수집 정리와 체계화의 조사연구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미흡한 충남학의 조사연구기능의 확보가 시급함

- **교육과 네트워크 확대**: 현재 충남학의 강점으로 거론되는 교육과 인식확산의 영역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충남 소속 시군 및 타 시도와의 지역학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충남학 고도화의 도약이 필요함

- **축적과 활용의 확산**: 충남학의 조사연구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발굴과 함께 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지역정체성 형성을 위해 자료DB구축과 같은 축적이 필요. 이와 함께 충남학 조사연구자료를 활용한 지역특성화 및 지역자산발굴로 지역의 매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활용이 필요

▶ **충남학 진흥정책의 원칙 설정**

- 충남학 진흥정책은 다양한 정책사업들에 대해 공통적인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충남학의 비전과 연관되어 사업 추진시에도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할 키워드로 도출될 수 있음
- 충남학 진흥정책의 원칙은 다양한 분석결과에 따른 개념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상위개념을 통해 도출한 가치적 개념임
- 본 계획에서 제안하는 충남학 진흥정책의 4대 원칙은 다음과 같음

① 지역정체성의 확립 ② 미래 지향성 ③ 생활세계 기반 ④ 지역 특성화

- **(지역정체성의 확립)** 지역학의 목적은 지역의 역사적 전통 및 문화를 비롯한 특성을 발굴하고 인식의 공유·확산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가치를 공감하고 소속감을 형성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있음

- **(미래 지향성)** 지역의 정체성 형성은 전통과 역사의 과거 가치도 중요하지만, 충남의 현재와 향후 함께 가야할 미래상을 공유하여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미래 지향성도 중요한 가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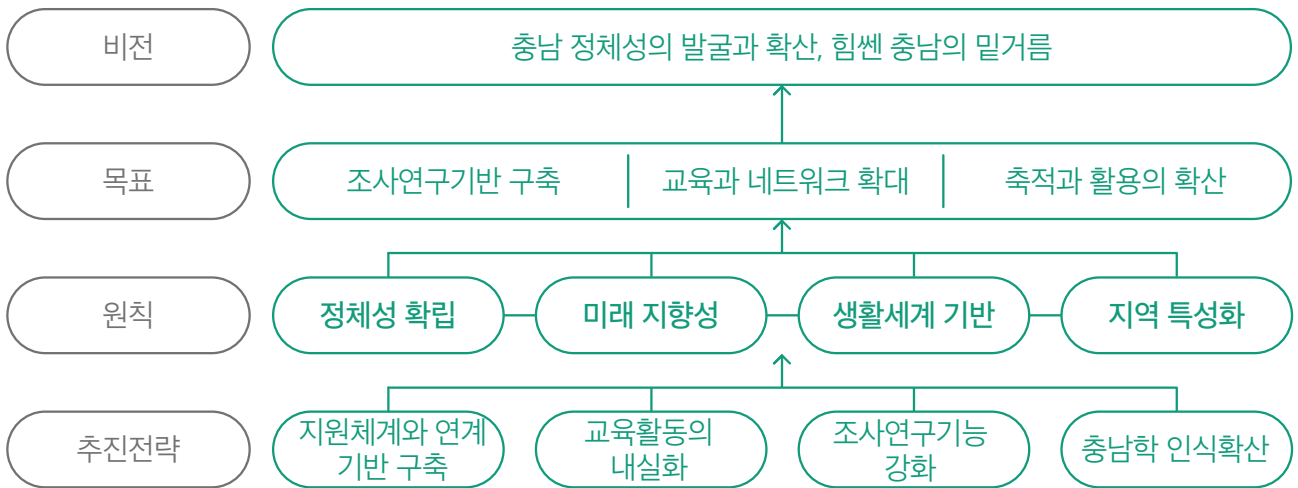
- **(생활세계 기반)** 지역학은 주민과 관계없는 내용이 아니라, 충청지역에서 거주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세계에 기반해야 하며 구체적인 생활상과 지역환경의 변화를 통한 내용으로 지역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공동체적 의식함양이 가능함

- **(창의적 특성화)** 충남학의 전통, 역사적 정체성과 함께 현재 성장하는 충남 인재들에 대한 충남지역의 이해와 특성의 공유 및 주요 산업경제활동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지역특성의 창의적 기반 강화의 가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충남학 종합계획의 기본 체계**

- 조사 결과에 따른 주요 이슈들에 대한 구조화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5년간 충남학 교육에 나아가야 할 비전과 원칙 및 추진전략의 기본 구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15] 충남학 비전과 추진 전략



3. 추진전략과 세부사업

1) 종합계획의 4대 추진전략

- 충남학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계획에서는 위 그림처럼 4가지 실행방식을 제시하며 이는 4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실행하는 것을 의미함

- ① **지원체계와 연계기반 구축**: 과거 교육활동에서 확장되어 조사연구, 네트워크와 교류 등 충남학 진흥의 종합적 정책수행을 위한 콘트롤 타워 구축과 지속적 확대운동을 위한 조례개정 및 행재정 지원확대 기반마련
- ② **교육활동의 내실화**: 현재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중인 충남학 교육활동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 교육영역, 내용, 방식의 전환과 확대
- ③ **조사연구기능 강화**: 지역학으로서 충남학의 지속적 확장과 정체성 형성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충남학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연구활동을 수행하며 조사연구자료들의 DB화를 통한 체계적 축적
- ④ **충남학 인식확산 확산**: 충남학의 조사연구와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충남내 시군학 및 주요 전문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화가 필요하며 타 시도 지역학과의 교류를 통한 성과확산과 도민대상의 인식 확산 추진

2) 추진전략의 부문별 사업

- 4대 추진전략에 따른 부문별 구체적인 충남학 종합계획의 세부실천사업은 다음 표와 같음
- 충남학 종합계획은 4개의 추진전략에 7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고 각 정책과제들마다 19개 세부실천사업들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고 있음

[표 43] 충남학 종합계획 정책과제 및 실천내용

추진전략	정책과제	세부실천사업	구분
[1] 지원체계와 기반구축	[1-1] 충남학 통합관리주체 구축 운영	충남학 통합 관리조직 구축과 지정	신규
		충남학 통합 관리조직 운영	확대
		충남학 온라인 플랫폼 운영	신규
	[1-2] 충남학 제도적 기반 강화	충남학 종합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확대
		충남학 지원을 위한 공공 지원조직 확대	확대
		충남학 운영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운영	신규

추진전략	정책과제	세부실천사업	구분
[2] 교육활동 내실화	[2-1] 충남학 강사 양성 및 관리	충남학 강사풀 확대 및 재교육 실시	확대
		강사 권역별 관리와 평가체계 도입	신규
	[2-2] 충남학 아카데미 고도화	도민 대상별 충남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충남학 대학 교육프로그램 전환	확대
		충남 로컬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신규
[3] 조사 연구기능 강화	[3-1] 충남학 연구 및 개발활동 수행	충남학 기초·정책연구 수행	신규
		충남학 교육 콘텐츠 내실화	확대
		충남학 연구조사 자료 축적	신규
	[3-2] 충남학 DB구축 운영	충남학 주제별 미디어 자료 수집	신규
		충남 마을기록화 사업	신규
		충남학 아키비스트 양성 사업	신규
[4] 충남학 인식확산	[4-1] 충남학 인식확산 강화	충남학 미디어 홍보활동 지원	확대
		충남학 영상제작 및 확산 지원	신규

- 1영역인 지원체계와 연계기반 구축은 정책과제 2개, 실천사업 6개로 구성되며 통합추진주체 구축은 성과 이룰 위한 제도적 행재정적 기반 마련이 주요한 내용임
- 2영역인 충남학 교육 내실화는 정책과제 2개, 실천사업 5개로 구성되며 충남학 강사를 포함하여 현재 수행되는 충남학 교육과정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임
- 3영역인 조사연구기능 강화는 정책과제 2개, 실천사업 6개로 구성되며 충남학의 연구수행 및 진흥과 조사와 DB구축의 사업들이 주요한 내용임
- 4영역인 충남학 인식확산은 정책과제 1개와 실천사업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남학 확산, 홍보를 위한 미디어 및 축제 개최가 주요한 내용임

충남학 정책과제와 실천사업

1. 지원체계와 기반구축

▶ 지원체계와 기반구축 정책영역의 과제와 세부실천사업

- 지원체계와 기반구축 정책영역은 ① 충남학 통합관리주체 구축 운영 ② 충남학 제도적 기반강화로 구성됨

[표 44] 지원체계와 기반구축 정책영역의 과제와 내용

추진전략	세부실천사업	원칙요소
충남학 통합관리주체 구축 운영	충남학 통합관리조직 구축과 지정	정체성확립
	충남학 통합관리조직 운영	
	충남학 온라인 플랫폼 운영	
충남학 제도적 기반 강화	충남학 종합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생활세계기반 미래지향성
	충남학 지원을 위한 공공 지원조직 확대	
	충남학 민관 거버넌스 운영	

» 배경과 필요성

- 현재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충남학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진흥을 위한 통합관리주체가 부재한 상황
- 광역 차원에서 충남학 관련 정책이 교육중심으로 대학 및 청소년, 시군 등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 정책추진 주체가 필요

» 사업목표 및 내용

- 목표 : 충남학의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관리주체 구축과 운영의 지원
- 세부내용 :
 - ① 충남학 통합관리조직 구축 :
 - > 충남학 진흥정책을 위한 장기적 관점으로 교육, 홍보, 연구, 네트워크 등 총체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구축과 운영
 - > 지역학 진흥을 위한 핵심적 영역인 지역학 연구수행과 진흥, 자료 구축과 DB화, 지역학 확산과 교육, 홍보 등 종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 지정 필요
 - > 현재의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 중심의 활동이 특화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지역학 연구진흥과 자료구축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충남 기관지정이 효과적
 - > 지역 역사문화 및 종합정책 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충남학 진흥사업을 위탁하여 정책추진 컨트롤 타워를 구축
 - ② 충남학 통합관리주체 운영 :
 - > 충남학 통합관리주체는 연구 및 자료구축과 인식확산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
 - > 충남학의 온라인 기반 교육운영, 자료구축 및 DB화, 강사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온라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 ③ 충남학 온라인 플랫폼 운영 :
 - > 충남학 온라인 교육 및 조사연구자료 구축 및 제공의 종합적인 충남학 서비스 제공
 - > 충남학 관련 자료 DB의 구축과 사진 영상자료 등에 대한 접근, 충남학 온라인 강좌 및 관련기관들의 연계 등의 종합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운영

» 추진체계

- ① 충남학 통합관리조직 구축 :
 - > 충남학 정책추진과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관련 절차 수행
 - > 중단기적 관점에서 현재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통합관리 운영 유지
 - > 지역학 진흥과 정책추진을 위한 연구수행, 자료구축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충남학 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
 - > 통합관리주체는 충남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며 현재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역할을 관련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사업수행범위를 확대
- ② 충남학 통합관리조직 운영 :
 - > 충남학 진흥과 정책추진을 위해 운영 기관 대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충남학 지원을 위한 별도의 출연금 형태의 예산지원을 고려 추진
 - > 충남학 관련된 운영경비 지원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과 별도 편성 지원으로 추진이 필요함

> 통합관리조직은 연구수행 및 지원과 자료구축, 홍보의 활동 및 교육기능을 함께 수행함

③ 충남학 온라인 플랫폼 운영

- > 통합관리주체 구축과 함께 충남학 자료 구축과 운영 위한 플랫폼(누리집) 구축 운영
- > 통합 플랫폼(누리집)은 단계적으로 기존 플랫폼(LMS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며 중장기적으로 교육서비스, 자료제공 중심으로 충남학 DB와 연계된 충남학 전용 누리집 구축 운영
- > 현재 충남에서 운영중인 데이터포털 올담(<https://alldam.chungnam.go.kr/>) 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도 고려 필요
- > 통합 플랫폼은 충남학 콘텐츠를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여 탑재하고 다양한 충남학 관련 기관의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플랫폼 방향으로 운영

» 추진주체

- 실행주체: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및 관련 부서
- 협력주체: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및 지역학 연구진흥 관련 충청남도의 공공기관

»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충남학 진흥정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 인력 인건비 지원과 확대
- 2027년까지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추진하며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주체 확대
- 2024년부터 위탁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충남학 정책추진을 위한 출연금 편성하여 지원
- 운영 예산은 도비와 함께 시군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군예산을 활용하여 마련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	민자
충남학 종합관리조직 운영	600		-	100	150	150	200		600		
온라인 누리집 운영	90		10	50	10	10	10		90		
총사업비	690		10	150	160	160	210		690		

» 배경과 필요성

- 중장기적으로 충남학의 확대와 정책추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
- 충남학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을 위한 공공지원 조직 및 운영 거버넌스의 주체 마련이 시급

» 사업목표 및 내용

- 목표 : 충남학 정책추진과 진흥을 위한 조례 및 행정지원체계 구축 및 확대
- 세부내용 :
 - ① 충남학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
 - > 2021년 8월에 제정된『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충남학 교육, 강사지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미흡
 - > 중장기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학 종합지원센터 구축과 운영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 및 자료 구축, 인식확산 등 구체적 진흥활동을 명시하는 구체적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 ② 충남학 지원을 위한 공공 지원조직 확대 :
 - > 현재 충남학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은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1명이 전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원사업의 확대나 다변화에 제한이 많은 것이 현실
 - > 충남학으로서 충남지역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교육을 포함해 연구조사 및 자료구축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지역문화, 자치행정, 기획관실 등 관련 부서 협조와 연계 추진
 - > 중장기적으로 충남학 진흥을 전담으로 지원하고 정책기획 및 설계를 위한 충청남도청 내 팀단위의 전담조직 구축
 - ③ 충남학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운영 :
 - > 조례상 '충남학진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명수 및 분야, 운영사항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개정을 통해 명시가 필요
 - > 충남학 정책계획 수립 및 평가, 심의 및 자문활동 수행을 위해 민·관·학 중심으로 '충남학 진흥위원회' 구성 운영

» 추진체계

- ① 충남학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
 - > 2023년내 관련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충남학 지원조례 개정안을 구성하여 절차 수행
 - > 현재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 및 발의 수행
- ② 충남학 지원을 위한 공공 지원조직 확대 :
 - > 충남학 진흥의 종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연구조사 및 자료구축과 인식확산과 교육을 함께 지원하도록 활동영역에 부합하는 정책지원부서와 연계(문화유산과,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관 등)
 - > 충남학 진흥 업무 담당을 위해 충청남도 내 전담 팀(충남학 진흥팀) 구축
- ③ 충남학 운영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운영 :
 - > 2022년내 조례상 명시된 '충남학 진흥 위원회' 구성 위한 세부규칙 마련하고 민간 및 당연직 위원 추천 및 위원장 선출을 통해 위원회 구성
 - > 충남학 진흥을 위한 정책계획 심의 및 정책사업과 활동의 평가, 연도별 충남학 핵심 연구주제 발굴과 확산의 활동을 수행
 - > 위원회 소속의 분과형태로 충남학 사업운영기관과 연계협력 수행기관 중심의 '충남학 실무협의회' 운영

» 추진주체

- 실행주체: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 협력주체: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및 충남학 관련 충남 공공기관(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재단, 충남연구원)

»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제도적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과 충청남도 전담조직 구축은 비예산
- 충남학 진흥위원회 및 추진협의회의 민관거버넌스 운영 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충남학 민관거버넌스 구축 운영	90		15	15	20	20	20		90		
	90		15	15	20	20	20				

2. 충남학 교육 내실화

▶ 충남학 교육 내실화 정책영역의 과제와 세부실천사업

- 충남학 교육 내실화 정책영역은 ① 충남학 강사 양성 및 관리 ② 충남학 아카데미 고도화

[표 45] 조사 연구기능 강화 정책영역의 과제와 내용

추진전략	세부실천사업	원칙요소
충남학 강사 양성 및 관리	충남학 강사풀 확대 및 재교육 실시	정체성확립 미래지향성
	강사풀 권역별 관리와 평가체계 도입	
충남학 아카데미 고도화	도민 대상별 충남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체성확립 미래지향성 지역특성화
	충남학 대학 교육프로그램 전환	
	충남 로컬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 배경과 필요성

- 충남에서 충남학 평생교육 과정이 지속되면서 충남학 강사에 대한 질적 제고 및 역량강화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
- 충남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지역과 내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

» 사업목표 및 내용

- 목표 : 충남학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체계적 관리
- 세부내용 :
 - ① 충남학 강사풀 확대 및 재교육 실시
 - > 다양한 충남학 내용을 수용하고 지역별 충남학 강사자원의 확산을 위해 충남학 관련 연구자 등 후속세대 충남학 강사 양성 프로그램 실시
 - > 충남학 관련 신진연구자 및 시민아키비스트 교육과정 수료자, 은퇴자 등 관심 대상을 중심으로 충남학 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 강좌 개발 및 운영
 - > 충남학 신입강사와 별도로 매년 기존 충남학 강사의 재교육과정 운영하며 다음의 과정이 포함
 - > 지역학의 변화와 트렌드, 타 지자체의 지역학 사례, 충남학 조사연구 결과 및 발간물 공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법, 참여형 충남학 교육과정 설계와 실습
 - ② 강사 권역별 관리와 평가체계 도입
 - >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학 강사풀 관리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단순 사용자 만족도 이외 강의내용, 강의방법, 보교재 및 멀티미디어 활용, 다차원 만족도 평가활동 수행
 - > 현재 충남학 강사들의 전공 및 주요교육내용, 거주 및 활동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유형화 하여 강사풀 관리체계 구축
 - > 충남학 강의주제와 권역별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강사들을 배치하며 부족한 충남학 교육내용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 자율성 확대
 - > 강사 평가결과에 대해 충남학 종합지원기관 및 수행기관에 제공하며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강사 위촉이나 운영에 반영

» 추진체계

- ① 충남학 강사풀 확대 및 재교육 실시
 - > 기존 충남학 강사와 별도로 신규 충남학 강사의 발굴과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하며 매년 이론 교육과정과 답사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성
 - > 강사교육 수료자에게 충남학 강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강사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강사카드 발급 및 강사풀 시스템에 등록을 추진하며 충남학 교육 운영기관에 공지하여 해당 권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 기존 충남학 강사 대상으로도 연 1회 재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여 모든 강사가 격년 마다 수강할 수 있도록 통보하며 미수강자는 충남학 강사풀에서 제외
 - > 신규 강사교육 및 기존 강사 재교육은 충남학 통합관리주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 ② 강사 권역별 관리와 평가체계 도입 :
 - > 충남학 강사의 체계적 운영관리와 평가체계 관련 현재 실태의 점검과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평가 지표 마련과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용역 추진

- > 연구결과에 따라 충남학 강사의 평가지표를 도출, 다면적인 평가방법 마련을 구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현장(지역 교육수행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 현재 강사풀에 등록된 충남학 강사 대상 세분화된 강의내용과 전공 및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권역별로 충남학 강사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충남학 홈페이지 내 온라인 관리 시스템 구축

» 추진주체

- 실행주체: 충남학 교육운영기관, 충남학 지역·대학 교육운영 기관
- 협력주체: 충남학 통합지원기관, 충청남도

»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충남학 신규 및 기존 강사 교육운영
- 충남학 교재개발위원회 운영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충남학 신규 강사 교육운영	160			40	40	40	40		160		
충남학 강사 재교육 운영	100		20	20	20	20	20		100		
합계	260		20	60	60	60	60		260		

» 배경과 필요성

-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충남학의 반복적 교육내용에 대한 변화와 새로운 내용 및 수요자 지향적인 교육 과정과 학습내용에 대한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
- 과거와 기존 교육내용에서 벗어난 현 시류와 지역학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과정 발굴이 시급

» 사업목표 및 내용

- 목표 : 대상별 특성에 따른 충남학 교육 과정의 특화 운영

- 세부내용 :

① 도민 대상별 충남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충남학 교육 대상을 일반 도민 강좌와 계층별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계층별 강좌는 중고등학생(청소년), 다문화가정 및 유학생, 전입도민(대학, 직장 등 새로 유입된 주민), 신규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개설 운영
- > 일반 도민강좌는 10-15강 중심으로 운영하고 계층별 강좌는 계층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3-5강의 단기강좌 중심으로 운영
- >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시군 대상 교육프로그램 실시로 인해 예산부족과 교육프로그램 질적 저하로 인한 교육 과정 및 대상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반복적 요구 반영이 필요
- > 이에 일반 도민강좌는 권역별로 나누어 4개 권역(북부권, 서해안권, 중부권, 남부권)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권역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기초자치단체 및 대학 협조를 통해 교육 운영
- > 계층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은 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요파악을 통해 충남학 교육운영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며 점진적 확대

② 충남학 대학 교육 프로그램 전환

- > 충남학의 대학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충남학 도민강좌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 충남학 기초 교양교육과 함께 시민기록가 서포터즈 양성 및 마을유산활용 교육과정 운영
- > 충남학 이론 및 기초 교양교육을 현재와 같이 진행하며 심화과정으로 충남학 아카이브 활용, 마을기록, 마을유산활용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내용을 후반부에 배치
- > 학기말에는 실습을 통한 지역학 기록물 및 마을자원 활용방안 기획서 등의 결과물 제출

③ 충남학 로컬전문가(로컬크리에이터, 로컬스토리텔러) 교육과정 운영

- > 충남학 교육기관 및 충남학 거점대학 중심으로 로컬전문가(로컬크리에이터, 로컬스토리텔러) 교육과정 설치하여 일반 도민 및 대학생 중심으로 수강생 모집
- > 로컬크리에이터: 지역(local)중심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가(creator)로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가를 의미함

로컬크리에이터 사례

» 론드리 프로젝트 : 동네 활성화의 주축, 앵커 스토어

- 셀프 빨래방이면서 카페로 1인 가구 시대의 만남의 장소로 각광 받고 있는 해방촌 '론드리 프로젝트'나 강화에 자리 잡은 북스테이 공간 '책방 시점'은 기존 사업에 고객과의 소통, 콘텐츠를 매력적으로 접목한 앵커 스토어 사례임

» 버드나무 브루어리 : 지역 자원을 재해석한, 로컬 콘텐츠 비즈니스

- 강릉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버드나무 브루어리'는 30년 강릉탁주 건물을 개조해 만든 맥주 양조장으로 강릉의 양조 역사와 지역의 언어, 특색 등이 조화를 이룬 공간 운영, 제품 생산으로 관광객뿐 아니라 현지인에게 큰 인기임

로컬크리에이터 사례

» 더 페이퍼 : 재능에 문화를 입힌 로컬 인프라 비즈니스

- 수원 행궁동에 있는 '더 페이퍼'는 골목 잡지 '사이다' 발간을 9년째 꾸준히 하면서 수원의 동네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돈을 받지 않고 나눠주는 무가지이지만 잡지로 연결된 네트워크로 다양한 지역 문화 콘텐츠 사업을 진행

» 정부(중소기업벤처부)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 정부는 7가지 비즈니스 유형을 구분하여 혁신적 사업모델을 수립하거나 지역 고용창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여부로 지원자를 선정하며 최대 1억원 사업화 자금 지원
- 7가지 유형은 지역가치,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지역특화관광, 지역브랜드, 디지털문화역사체험, 자연친화적으로 구성

> 로컬스토리텔러: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기반의 이야기를 구성하여 들려주는 해설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스토리 중심의 관광기획 상품화를 도모하는 사람

로컬스토리텔러 사례

» 수원문화재단 '실버로컬스토리텔러' 사례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일환으로 시민과 협력하는 지역고유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해 수원 실버세대 이야기(수원 사람책)이라는 사업으로 실버로컬스토리텔러 양성과정 운영
-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수원 실버세대 기억이 담긴 지역고유문화콘텐츠 발굴, 수원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의 역사, 문화의 이해, '수원 사람책'제작과 참여자간 정보공유
- 수원시의 실버로컬스토리텔러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노인세대 중 지역의 이야기, 문화, 전설, 옛길, 생태자원 등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미해 전달하는 사람이며, 나아가 수원에서 인생기억을 나누고 이를 책으로 만드는 시민주체를 의미함



- > 로컬크리에이터나 로컬스토리텔러는 기본적으로 지역학의 관점과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하여 비즈니스활동을 하거나 해설, 출판 등 스토리들을 재생산하는 전문적인 문화인력
- > 충남학 기본강좌 및 교양강의를 수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으로 로컬전문가 교육과정을 수강하도록 하며 1학기 15강 기준으로 강좌 개설 운영

» 추진체계

① 도민 대상별 충남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현재 각 시군별로 운영중인 시군 충남학 프로그램을 4개 권역별로 통합하여 선택과 집종의 효과를 도모하고 권역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지원
- > 계층특성별 교육과정은 충남학 교육운영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며 각 계층 특성에 따른 충남학 강좌

의 수요를 파악하여 운영을 결정

- > 초기에는 각 계층별 1곳을 선정하여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대학의 연계협력을 통해 공간 및 프로그램을 충남학 교육운영기관에서 수행하며 이후 확산
- > 매년 일반도민 및 계층특성별 교육과정의 운영결과에 대해 충남학 진흥위원회에 보고하여 축소 및 확대 등의 피드백 수행

② 충남학 대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2022년 거점대학 교육과정에서 초기에는 일반 충남학 교양강좌를 수행하고 이후 심화된 3가지 특성화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강의 계획을 구성 운영(①아카이브 활용 ②마을기록가 프로그램 ③마을유산활용 프로그램)
- > 대학교육 프로그램 수강학생 대상으로 강좌종료 이후 심화된 프로그램 추천을 통해 아키비스트 및 충남학 강사와 연구자, 마을활동가 및 사회혁신가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연계협력 추진

③ 충남학 로컬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 > 충남학 교육운영기관 중심으로 로컬전문가 교육과정 강좌 운영
- > 로컬전문가 과정은 지역 역사문화자원 발굴과 함께 활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혁신, 스토리텔링 과정을 접목하여 관련된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연계를 통해 강좌를 운영
- > 수강생은 연초 1-2월에 모집하고 3월-11월까지 로컬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수강생은 충남학 관련 대학, 지역사회의 교육 수강생을 중심으로 한 심화과정으로 설계
- > 과정의 수료자에 대해 로컬전문가로 창업을 연계하는 관련 창업지원기관과 연계 협력

» 추진주체

- > 실행주체: 충남학 교육운영기관, 충남학 지역·대학 교육운영 기관
- > 협력주체: 충남학 통합지원기관, 충청남도, 15개 기초자치단체

»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 충남학 도민대상별 교육프로그램(15백만원×4권역/ 15백만원×4계층 기준) 이후 점진적 확대
- > 충남학 대학교육 프로그램 운영(10백만원×10개대학) 이후 점진적 확대
- > 충남학 로컬전문가 교육과정 운영(10개월)

(백만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도민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650	121	80	120	140	150	160		325	325	
대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590	105	90	100	120	130	150		590		
충남학 로컬전문가 교육과정	200	-	10	50	50	50	50		200		
합계	1,440	226	170	170	310	330	360		1,115	325	

※ 2022년(현재) 도민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시·군 충남학 교육지원예산 100,035천원(도 29,925, 시군 70,110)과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청소년 충남학 예산 16,000천원의 합산액

3. 조사 연구기능 강화

▶ 조사 연구기능 강화 정책영역의 과제와 세부실천사업

- 조사 연구기능강화 정책영역은 ①충남학 연구 및 개발 활동 수행 ②충남학 DB구축 운영

[표 46] 조사 연구기능 강화 정책영역의 과제와 내용

추진전략	세부실천사업	원칙요소
충남학 연구 및 개발 활동 수행	충남학 기초·정책연구 수행	정체성확립 미래지향성 지역특성화
	충남학 교육 콘텐츠 내실화	
	충남학 연구조사 자료 축적	
충남학 DB 구축 운영	충남학 주제별 미디어자료 수집	정체성확립 미래지향성 지역특성화
	충남 마을기록화 사업	
	충남학 아키비스트 양성 사업	

» 배경과 필요성

- 충남학 기초 연구과제 지원으로 충남학 관련 시의적절한 주제선정과 정책적 활용성이 높은 체계적 연구활동 수행 필요
- 충남학의 대중적 확산 및 교육 효능감 강화를 위해 충남학 강의에 활용될 지속적인 교재발굴과 개발 및 업데이트 필요

» 사업목표 및 내용

- 목표 : 충남학 학문적 영역 구축과 체계화 위한 연구활동과 교재개발 활동 수행

- 세부내용 :

① 충남학 기초·정책연구 수행

- > 충남학 학문적 기초 정립과 체계적인 자료구축을 위한 충남지역의 역사, 문화, 인물, 경제, 정치, 시민활동, 산업 등 지역학 기초 자료 수집과 자료 발간을 통한 지역학 축적의 활동이 필수적임
- > 지역학 기초자료 수집은 충남학의 기초자료들을 기반으로 하여 도민들의 지역학 접근제고를 위한 대중적 성격의 단행본으로 기획하여 발간
- > 기초연구와는 별도로 충남학에 대해 효과적 활용방안 및 교육·연구 정책지원 체계수립 등 충남학 진흥정책을 위한 연구용역활동 수행

지역학 관련 총서 발간 사례

» 부산학 연구센터의 연구자료 발간

- 부산학 연구센터는 직접 연구수행 및 외부연구자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생산하여 지역학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연구논총: 지역 전문연구자들의 학술논문을 비롯한 부산정체성 연구 발간
- 교양총서: 부산학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인문교양 성격의 단행본 발간(대중총서)
- 시민총서: 부산학의 시민이해도 증진을 위한 시민참여 기반의 부산연구 사업(대중총서)
- 기획연구: 연구원 차원에서 부산학 관련 주제 중심으로 자체적 연구보고서 발간

부산학 연구센터 5년간 주요 발간물

	교양총서	시민총서	연구총서	기획(미래)총서
2016년	부산 생활문화유산	부산을 알다, 서부산 낙동강 문화지도	6.25피란생활사	부산의 미래 키워드를 찾다
2017년	수다의 인문학	나를 찾아 떠나는 부산 순례길	6.25피란민의 자전 기록	
2018년	부산인의 장소 습관 -그곳의 기억	부산 도시공간 탐색-변방에서 해양	피란수도 부산의 문학 풍경	
2019년	마을시리즈 -재송마을 이야기	산복도로의 어제와 오늘	피란수도 부산의 주거환경	개항기 일본인의 부산이주와 경제적 지배
2020년	옛길 따라 만난 부산	부산학의 선구자들	마을시리즈-호반마을 회동 이야기	
2021년	부산의 골목길	부산갈매기의 야구 이야기	마을의 미래-부산기장 해안마을	

❖ 제주학 연구센터의 연구자료 발간

- 제주학 연구보고서는 매년 특정 주제를 통해 발간되며 건당 2,000만원 이내로 7개월간 연구기간을 거쳐 수행되고 심사를 거쳐 최종 발간

[표 47] 제주학 연구보고서 발간 목록

연도	제주학 연구보고서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가고시마현 아미미오시마 지역 전쟁 유적지 조사 연구 - 제주신화(일반신본풀이) 여신 관련 텍스트 분석 - 제주 육군훈련소 구술조사: 부대시설 위치를 중심으로 - 제주학교 역사 및 문화유산의 발굴에 대한 연구 - 4.3피해자 회복탄력성 연구 - 제주밭담농업 시스템 내 제주농업문화의 유산적 가치와 사회적 인식확산 - 선사인류의 제주도 정착 및 적응과정 복원 -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의 지오투어리즘 현황과 지속가능발전 기반 구축 연구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어 교육 실태조사 연구 - 정조의 제주통치론 - 이어도 설화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장소성을 중심으로 - 제주신화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 연구: 그리스 신화와 비교 - 제주도민의 생물지리학적 기원과 유전학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 - 성 이시돌 목장 테쉬폰 주택 생활문화 조사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현대 제주 사회의 변동과 제주인의 삶 - 섬성(islandness)과 5p를 반영한 제주의 발전정책 제언 - 제주 판옥에 관한 연구

② 충남학 교육 콘텐츠 내실화 :

- > 충남학 교육 콘텐츠 미흡에 대한 보완을 위해 충남학 교육 관련된 콘텐츠 발굴과 이를 활용한 충남학 교재 개발을 통해 운영 내실화 도모
- > 현재 충남학 교육활동 교재 개편을 위해 과거 충남학 교재의 내용을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의 충남학 영역, 이슈를 포괄하는 교재 발간과 교육 콘텐츠 개발
- > 교재 및 교육 콘텐츠 제작은 대중의 눈높이 맞게 내용을 구성하며 내용을 교과서 방식으로 기술하기 보다 교육활동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워크북 형식의 영역기반으로 제작
- > 충남학 내용의 교재와 함께 교육운영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기 위한 충남학 교육운영 매뉴얼 제작하여 함께 배포

③ 충남학 연구조사 자료 축적

- > 현재 연구활동을 통해 출간된 발간물과 개인 및 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충남학 자료 및 기초 사료와 문헌들에 대해 기증 매입 등 추진
- > 수집된 충남학 문서 및 텍스트 자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정리와 공간적 집적화 구축
- > 발간되거나 발간예정인 충남학 자료들에 대한 온라인 자료 구축과 함께 충남학 홈페이지에 기반한 온라인 DB 구축 운영

❖ 추진체계

① 충남학 기초·정책연구 수행

- > 충남학 진흥위원회 및 충청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충남학의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연구 및 자료구축의 주제 선정
- > 충남학 기초연구의 경우 연마다 충남학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 내외부연구자 중심으로 연구할

동 수행하도록 연구비 및 발간비용 지원하며 발간물의 내용은 대중적 내용 중심으로 총서 형태의 시리즈로 발간

- > 충남학 정책연구의 경우 위탁수행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충남학의 진흥, 인식확산, 지역사회 적용과 활용 등의 정책지원 및 활용 관련 주제의 연구활동 및 발간 수행

② 충남학 교육운영 내실화 :

- > 충남학 진흥위원회 중심으로 전문가 초빙하여 위원회와 함께 충남학 교육 콘텐츠 발굴과 교재 방향, 핵심영역, 교재 내용 등의 교재 발간 기획
- > 충남학 교재는 워크북과 충남학 교육운영 매뉴얼을 함께 발간하며 추진단 참여자를 중심으로 교재 내용을 구성
- > 2022년 교재 개발 위한 위원회 중심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2023년 교육콘텐츠 및 교재개발과정을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 충남학 교육 교재 및 콘텐츠는 개발 이후 매년 업데이트 및 개정활동을 수행

③ 충남학 연구조사 자료 축적

- > 충남도서관 및 시군 도서관 중심으로 도내 자료 아카이브가 가능한 전문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충남학(시군학 포함) 아카이브 공간 구축
- > 다양한 충남 내 공공기관, 및 대학과 연구기관, 개인 등 보유하고 있는 충남학 연구자료와 문서, 단행본 등에 대한 기증, 매입 추진하여 유형별 분류
- > 수집된 자료 및 발간예정 자료들에 대해 온라인 전자자료로도 구축하여 충남학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DB 구축 운영

» 추진주체

- 실행주체: 충남학 통합지원기관
- 협력주체: 충청남도 관련 부서, 충남도서관 및 박물관, 관내 대학교, 관내 문화원

»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충남학의 기초, 정책연구 예산(기초 1건, 정책 1건 기준)
- 충남학 교육콘텐츠 내실화(교재 및 콘텐츠 개발과 보완)
- 충남학 연구 및 문헌자료 수집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교육운영 내실화	200	-	-	50	50	50	50		200		
충남학 교육 콘텐츠 내실화	140	-	100	10	10	10	10		140		
충남학 로컬전문가 교육과정	40	-	-	10	10	10	10		40		
합계	380	-	100	70	70	70	70		380		

» 배경과 필요성

- 충남학 관심이 확대되어 충남내 다양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결과물들이 산발적으로 생산되지만 체계적인 축적과 통합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
- 충남학 관련 시민참여 중심의 자료생산과 축적활동을 지원하여 인식확산과 시민참여 중심의 지역학 증진의 도모가 필요

» 사업목표 및 내용

- 목표 : 충남학 체계적 자료구축과 시민참여활동을 통한 충남학 계승과 정체성 수립

- 세부내용 :

① 충남학 주제별 미디어 자료 수집

- > 충남학 전문 연구자료 및 텍스트 관련 자료를 제외한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 미디어 자료들에 대한 수집활동이며 매년 특정 주제에 대한 미디어 자료 공개 모집
- > 지역 및 개인 등 대중적 차원에서 충청남도 및 시군의 역사문화, 환경, 사회문화 등 다양한 형태 미디어 자료들에 대한 수집과 주제에 의한 분류
- > 자료들에 대한 온라인 DB구축을 통해 충남학 홈페이지에 자료 탑재 및 공개, 활용

제주도 제주학연구센터 DB 구축 사례

»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 영상 공개수집 사업

- 제주학연구센터는 2020년부터 시민들이 소장한 제주 관련 사진과 동영상 공개수집 실행
- 매년 특정주제를 선정하여 수집하며 2020년은 '제주의 마을제'를 주제로 하여 마을굿, 이사제, 영등굿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사진 4,500여점, 동영상 30여편을 출품하였음
- 2021년 제2회 공개수집에서는 '제주의 관혼상제' 주제로 사진과 영상을 모집하여 성인식, 혼례, 상장례, 각종 제례 등 일생의례에 대해 자료를 공개수집하였고 사진 600여점, 동영상 7편이 출품되었음
- 제주학 연구센터는 사진 영상 공개수집 사업을 통해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조를 안착시키고 제주의 공동체 문화 회복의 동력으로 기반 마련

② 충남 마을기록화 사업

- > 충남도민 및 전문 연구자와 함께 협력하여 인구과소 지역 중심으로 마을의 역사, 유래, 과거의 사건, 인물 등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화 사업을 수행
- > 충남도내 마을을 방문하여 자료수집 및 녹취를 통한 기록화를 수행하고 이에 대해 연간 수행한 기록화를 종합하여 단행본 발간

③ 충남학 아키비스트 양성사업

- >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학의 확산을 위해 시민참여형 아카이브의 활동으로 '충남학의 기록자' 발굴 위한 충남학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실시
- >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역학 아카이브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학의 인식확산과 충남학 자료들의 활용도 제고의 효과
- > 충남인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을 충남학 프로그램의 일부로 시군마다 개설하여 일반 시민대상 교육 실시하고 충남 마을기록화 사업에도 함께 참여

❖ 제주학연구센터 아키비스트 양성사업

- 제주도는 2021년 제1기 제주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개설하여 시민참여 중심의 아키비스트 교육과정을 실행하여 23명의 수료생 배출

제주학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프로그램

회차	강의 내용	강사
1	지역 역사문화 기록화(아카이빙)의 의의와 방법	제주문화재위원
2	민간기록물의 지역자산화와 미래전략화	국사편찬위원
3	기록발굴과 기억복원으로 제주역사 다시 쓰기	제주대 교수
4	생활사 기록의 가치와 활용 방안	생활사 연구가
5	미술 기록관(박물관)의 의의와 설립 방안	국립제주박물관 학예관
6	앨범을 활용한 자서전 만들기	동화작가
7	사진으로 기록하는 제주 역사와 문화	사진작가
8	구술채록을 활용한 보통사람의 삶 기록하기	제주학연구센터장
9	디지털 환경에서의 현장 기록화 방법	사진작가
10	기록 아이템 선정과 오픈 아카이브 활용방법	제주학연구센터 연구원

- 양성된 제주 아키비스트들은 2022년부터 수행된 제주도 마을기록화 사업의 수행주체로 참여하여 사전교육을 거쳐 실제 마을자원의 조사와 기록화 사업을 수행
- 제주도의 마을기록화 사업은 현재 마을별로 실존해 있는 해녀문화조사 사업과 병행하여 '마을주민 생애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주민들 대상으로 구술, 채록을 통해 마을 역사문화의 변화를 기록하고 정리하며 제주학 아카이브에 탑재하여 주민에게 제공

❖ 추진체계

① 충남학 주제별 미디어 자료 수집

- > 충남학 진흥위원회 중심으로 매년 대중 미디어 자료 수집과 관련된 특정 주제 선정
- > 선정된 주제 중심으로 충남학(시군학 포함) 관련 영상, 사진, 녹취록 형태의 미디어 자료의 대중적 내용으로 개인 및 기관, 지역기업 등이 소장한 자료의 공개 모집을 통한 수집
- > 저작권 등 문제가 없는 자료들에 대해 전자자료화 하여 충남학 홈페이지에 탑재 및 공개

② 충남 마을기록화 사업

- > 연초1-2월에 마을기록화 참여 도민 및 전문 연구자(기록전문가) 선정하여 팀을 구성하며 지역 대학 연계하여 학생중심 기록 서포터즈 구성하여 참여 유인
- > 충남 도내 인구과소 지역 중심으로 마을의 역사, 유래, 과거의 사건, 인물 등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화 활동 지원
- > 초기 2-3개의 인구과소지역 중심 시범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이후에 충남 원도심 및 농어촌 지역으로 확산
- > 매년 수집된 마을기록에 대해 종합화를 통해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자료 구축
- > 시·군에서 연관된 사업을 추진중이면 그 사업과 연계하여 실행하며 추진하지 않는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 운영

③ 충남학 아키비스트 양성사업

- > 연초 충남학 진흥위원회 및 충청남도과 협의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충남학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을 10회차 강좌개설과 함께 관련 전문가 초청하여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실시
- >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은 시군 충남학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함께 추진하되 일반 충남학 교육과정과 분리한 교육과정으로 개설 운영
- >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충남학 아키비스트'로 활동하며 마을기록화 사업과 충남학 자료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충남학 강사 과정으로 진입을 유인
- > 중장기적으로 충남학 아키비스트 중심으로 총서 및 정기간행물 발간의 자료화 구축 추진
- > 시·군에서 연관된 사업을 추진중이면 그 사업과 연계하여 실행하며 추진하지 않는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 운영

» 추진주체

- 실행주체: 충남학 통합지원기관
- 협력주체: 충청남도, 충남도서관, 시군도서관, 충남학 교육운영기관

»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충남학 연구자료 및 미디어자료 수립(20백만원+30백만원)
- 충남학 마을기록화 활동지원(1팀당 5백만원/ 연간 팀규모 확대)
- 충남학 아키비스트 양성지원(10강 강좌당 20백만원/ 연간 시군으로 규모 확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마을기록화 활동 지원	180	-	-	30	50	50	50		180		
아키비스트 양성 지원	70	-	-	-	20	20	30		35	35	
충남학 로컬전문가 교육과정	140	-	-	-	40	40	60		70	35	35
합계	390	-	-	30	110	110	140		285	70	35

4. 충남학 인식확산 강화

▶ 충남학 인식확산 강화 과제와 세부실천사업

- 충남학 인식확산 강화는 ① 충남학 미디어 홍보활동 지원 ② 충남학 영상제작 및 확산 지원 세부실천사업으로 구성

[표 48] 충남학 인식확산 강화 영역의 과제와 내용

추진전략	세부실천사업	원칙요소
충남학 인식확산 강화	충남학 미디어 홍보 활동 지원	정체성 확립 생활세계 기반
	충남학 영상 제작 및 확산 지원	

» 배경과 필요성

- 지역학이 전문가 및 연구자 중심의 향유가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지역학의 본질에 접근
- 지역학의 정책지원 근거와 지속가능한 진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정책효능감 향상 위한 인식강화 필요

» 사업목표 및 내용

- 목표 : 충남도민 대상 충남학 및 시군학 홍보를 통한 인식확산
- 세부내용 :
 - ① 충남학 미디어 및 홍보 활동 지원
 - > 충남학 연구성과, 교육활동 홍보 및 시민과 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기반 뉴스레터, 카드뉴스 제작하여 매월 제작 및 배포
 - > 뉴스레터의 경우 충남학 및 시군학 주요 행사 기사, 연구 및 자료구축 성과 소개, 행사 및 교육활동 홍보, 주요 기관 동정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
 - > 충남학 및 시군학의 주민 인식확산을 위해 지역학 연구, 교육 등 진흥활동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라디오 및 방송국 송출
 - > 미디어와 함께 충남학 콘텐츠 행사 홍보활동을 통한 도민 인식확산 강화 활동 수행
 - ② 충남학 영상 제작 및 확산 지원
 - > 충남학 및 시군학 연구자료 및 교육관련 5-10분단위 활동 홍보영상 제작
 - > 충남 지역소재 대학의 방송국 및 충남 내 마을방송국 중심으로 지역학 주요 내용과 활동에 대해 제작하며 관련 영상 자료는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하여 홍보활동 수행
 - > 제작된 영상에 대해 다양한 충남 도내 공공행사 및 이벤트 개최시 영상홍보, 공공기관의 TV 및 영상장비 송출, 주민자치회 및 지역공동체 주민교육시 홍보영상 제공 등 지역 내 인식확산 활동 수행

» 추진체계

- ① 충남학 미디어 홍보 활동 지원
 - > 충남학 통합지원주체 중심으로 매월 연구 및 교육성과와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기반 뉴스레터와 소식지 제작
 - > 충남학 온라인 플랫폼 참여인원 및 교육 등록·수강인원, 연계협력 기관, 교육관련 기관, 활동인원 중심으로 수신자 리스트 구축 발송
 - > 전문 영상제작업체를 통해 충남학 및 시군학 관련 연구, 조사, 교육 등 주요 활동에 대한 홍보 영상 제작과 TV의 공익광고 및 라디오의 대중매체를 통한 제작된 콘텐츠 송출
 - > 충남학 관련 청소년 인식확산 및 콘텐츠 공모 등의 홍보 활동 지원 수행
- ② 충남학 영상 제작 및 확산 지원
 - > 충남소재 지역 대학 및 마을공동체 방송국 중심으로 충남학 및 지역학 활동 영상 제작
 - > 영상은 5-10분 규모의 짧은 분량으로 제작하며 충남 도내 부서 및 공공기관에 제공, 홍보하여 관련 행사시 영상송출 업무 협조
 - > 충남 시군 소속 읍면동 업무협조를 통해 주민센터 영상송출 및 주민대상 교육활동에서 영상을 통한 홍보활동 수행

> 충남학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관련된 제작영상을 충남학 자료 DB와 연계

➤ 추진주체

- 실행주체: 충남학 통합관리주체
- 협력주체: 충청남도, 충남학 교육수행 기관(대학 및 시군)

➤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충남학 전문 홍보영상 제작 및 미디어 송출
- 충남학 활동영상 제작 점진적 확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전문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410	-	10	50	100	100	150		410		
지역학 활동영상 제작	130	-	-	-	30	50	50		130		
합계	540	-	10	50	130	150	200		540		

1. 충남학 정책 추진체계

▶ 충남학 정책의 추진 주체

- 향후 충남학 진흥정책을 추진할 주요한 주체는 충남학 진흥위원회,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 충남학 통합지원주체로 구성됨
- (거버넌스): 충청남도에서 충남학 진흥활동을 위한 자문과 정책의 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충남학 민관거버넌스 조직으로 충남학 진흥위원회가 구성되며 진흥위원회 내부에서 실행을 위한 소위원회 형식의 실무협의회 설치
- (추진주체): 충남학 정책진흥활동의 핵심주체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충남학 정책을 수립, 실행은 충청남도 담당부서인 교육법무담당관이 수행하며 사업의 집행 및 관리는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충남학 통합관리주체로 수행하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별도의 '충남학 종합지원센터'를 구축 운영
- (연계주체): 충남학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충남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활동이 필수적이며 대표적으로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재단,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연구원, 충남 소재 도서관 및 박물관이 대상
- (협력주체):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비롯한 실행의 협력 주체는 충청남도 소속 시군, 소속 대학교, 관내 문화원 및 시군학 운영기관을 거론할 수 있음

▶ 충남학 정책의 추진 체계

- 충남학의 정책추진은 추진주체를 비롯해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및 연계와 협력주체들의 상호보완의 활동을 통해서 종합적 관점에서 수행되는 체계를 구성
- 충남학 진흥정책의 주체별 관계를 추진체계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과 충남학 통합지원주체가 충남학 진흥정책의 핵심적 주체역할을 수행하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충남학 민관거버넌스 조직인 '충남학 진흥위원회'가 정책의 심의, 결정, 자문의 역할을 수행함
- 핵심주체들이 충남학 정책수행을 위해 도내 다양한 전문기관 및 교육실행기관들과 연계 협력 활동이 필수적이며 업무협력과 활동지원을 통해 충남학 진흥정책을 함께 수행하는 체계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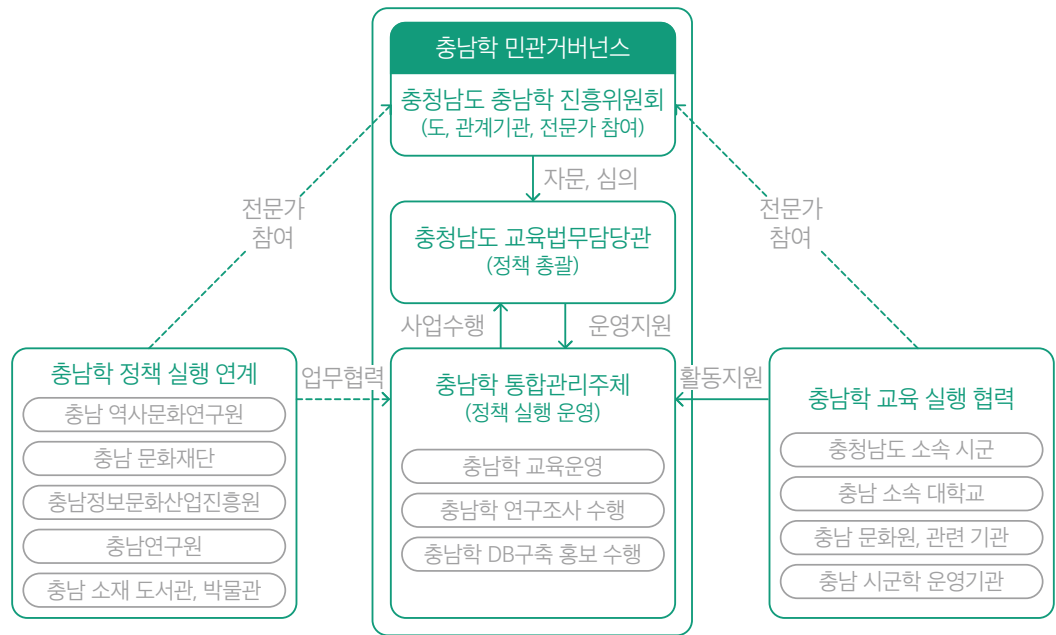


그림 Chungnam Academic Policy Implementation Subjects and System

2. Chungnam Academic Policy Implementation Roadmap

1) Policy Implementation Subjects and System

▶ Policy Implementation Subjects and System

- 향후 5년간 Chungnam Academic Promotion for 4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7 policy measures, Chungnam Academic Implementation Agency, related experts' perception survey results are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 Chungnam Academic Basic Construction part, the perception of importance and urgency is high, and experts are showing characteristics of important perception for research function strengthening

그림 Chungnam Academic Policy Implementation for Perception Survey

		Public		Implementation Agency		Expert		Summary	
		Importance	Urgency	Importance	Urgency	Importance	Urgency	Importance	Urgency
Support system and basic construction	① Chungnam Academic Management Agency Construction and Operation	중	하	상	상	중	상	중	상
	② Chungnam Academic Institutional Basic Strengthening	중	중	상	상	중	상	중	상
Chungnam Academic Education Implementation	① Chungnam Academic Teacher Training and Management	상	중	상	상	중	상	상	상
	② Chungnam Academic Academy Advancement	상	상	중	중	중	상	중	상
Research and research function strengthening	① Chungnam Academic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y Implementation	상	중	상	중	상	상	상	중
	② Chungnam Academic DB Construction and Operation	중	중	중	중	상	중	중	중
Chungnam Academic Awareness Enhancement	① Chungnam Academic Awareness Enhancement	중	중	상	상	상	중	상	중

- Chungnam Academic Policy Implementation roadmap is the same as the perception survey results, summarized and presented

2) 1영역: 지원체계와 기반 구축

- 충남학 진흥활동을 위한 실행 주체는 현재 충남평생교육진흥원내에서 수행하는 체제를 유지하되 2024년부터 별도 팀을 구성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를 제시하며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전담 컨트롤타워를 운영
- 충남학 민관거버넌스 조직인 진흥위원회는 내년부터 구성·운영하며 온라인 통합 플랫폼도 단기적으로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을 시작
- 충남학 정책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과 충청남도내 충남학 전담팀 구축은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

[그림20] 지원체계와 기반구축 영역 정책실행 로드맵

형성단계		발전단계				확산단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① 충남학 통합관리주체 구축 운영		진흥원 내 별도 팀 구성 운영				컨트롤타워 운영
		충남학 별도 보조금 지원				별도 예산편성
	통합 온라인 플랫폼 탑재	LMS 연동된 통합 플랫폼 운영				
② 충남학 제도적 기반강화			충남학 조례 제정			
				도내 전담팀 구축		
	충남학 민관거버넌스 구축 운영					

3) 2영역: 충남학 교육 내실화

- 충남학 교육 내실화 영역에서는 기존 강사 재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내년에 연구활동을 통해 권역별 강사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신규강사 양성과정은 2024년부터 수행
- 충남학 아카데미 고도화를 위해 기존 도민 충남학 교육 및 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변화된 방식을 활용하여 수행
- 또한 신규로 계층특성별 충남학 교육프로그램을 2024년, 로컬전문가 교육과정을 2025년부터 중장기적 관점에서 운영

[그림21] 충남학 교육 내실화 정책실행 로드맵

형성단계		발전단계				확산단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① 충남학 강사 양성 및 관리		충남학 신규강사 양성과정 운영				
		충남학 기존 강사 재교육 운영				
		충남학 강사 권역별 관리와 평가체계				
② 충남학 아카데미 고도화		권역별 도민 충남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층특성별 충남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충남학 대학 교육 프로그램 전환				
				충남학 로컬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4) 3영역: 조사연구 기능 강화

- 충남학 조사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기초 정책연구는 2024년부터 운영하며 교재를 비롯한 교육콘텐츠 개발은 2023년에 수행
- 충남학 연구조사 및 수집활동을 통해 축적된 자료들은 2024년부터 온라인을 통한 자료 DB화를 수행하고 사진 등 미디어 자료들도 2024년부터 수집과 DB구축활동을 함께 실행
- 이와 함께 도민참여기반의 충남학 활동 수행을 위한 충남학 마을기록화 사업 및 아키비스트 양성사업은 2025년 이후의 중장기적 시각에서 사업을 수행

5) 4영역: 충남학 인식확산 강화

- 도민 대상으로 충남학의 인식확산 강화를 위해 기존의 홍보활동을 미디어분야로 확대하여 수행을 지속하여 수행
-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역미디어를 중심으로 충남학 영상제작 및 확산을 통해 도민 인식강화 활동을 수행

그림 조사연구기능강화 / 충남학 인식확산 정책실행 로드맵

형성단계		발전단계				확산단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조사연구 기능강화	① 충남학 연구활동 수행	충남학 기초, 정책연구 수행				
			충남학 별도 보조금 지원			
	협력기반마련	충남학 연구조사 자료 축적(DB화)				
충남학 DB 기반 구축	② 충남학 DB 기반 구축	충남학 주제별 미디어 자료 수집				
				충남학 마을기록화 사업		
			충남학 아키비스트 양성 사업			
충남학 인식확산	① 충남학 제도적 기반강화	충남학 미디어 홍보활동 지원				
				충남학 영상제작 및 확산 지원		

3. 충남학 정책 예산계획

- 충남학 진흥을 위해 제시된 7개 정책과제와 19개의 실천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종합하면 다음 표-49와 같음(세부실천사업은 19개이며 그중 비예산을 제외한 예산투입사업은 16개임)
- 지원체계와 기반구축의 경우 충남학 정책을 추진할 통합관리주체를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가장 규모가 크고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과 민관거버넌스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함
- 충남학 교육활동의 내실화 영역에서는 도민대상 교육활동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가장 예산 규모가 크고 대학교육 프로그램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
- 신규사업인 신규강사 운영 및 로컬전문가 교육과정은 2024년 이후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들이 운영됨
- 충남학 조사연구기능 강화는 2023년에 교육 콘텐츠 개발의 예산이 투입되며 연구조사활동 및 DB구축활동은 2024년 이후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치됨
- 충남학 인식확산 강화는 홍보활동 예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활동영상제작은 2025년 이후 예산이 투입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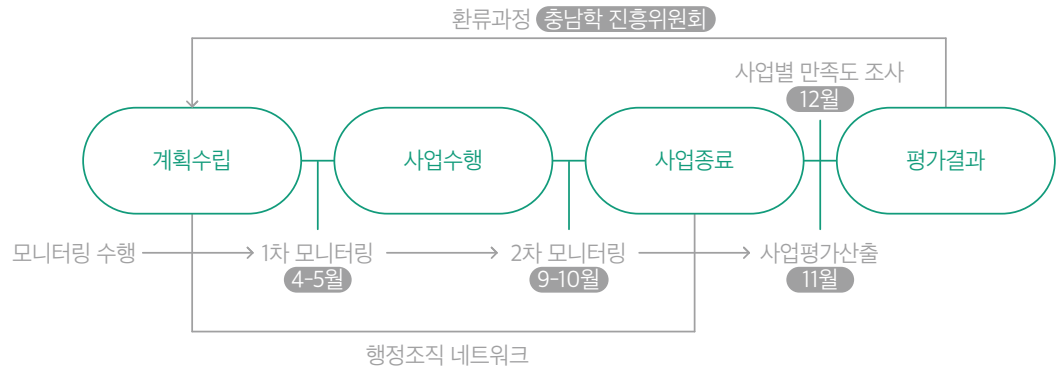
[표 49] 충남학 종합계획 정책과제 및 실천내용

추진전략	정책과제	세부실천사업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1] 지원체계와 기반구축	[1-1] 충남학 통합관리주체 운영	충남학 통합관리주체 운영	-	-	100	150	150	200	600
		충남학 온라인 플랫폼 운영	-	10	50	10	10	10	90
	[1-2] 충남학 제도적 기반 강화	충남학 민관거버넌스 구축 운영	-	15	15	20	20	20	90
	예산합계		-	25	165	180	180	230	780
[2] 교육활동 내실화	[2-1] 충남학 강사 양성 및 관리	충남학 신규강사 교육 운영	-	-	40	40	40	40	160
		충남학 강사 재교육 운영	-	20	20	20	20	20	100
	[2-2] 충남학 아카데미 고도화	도민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116	120	140	150	160	170	740
		충남학 대학 교육프로그램 전환	105	130	140	150	160	170	740
[2] 교육활동 내실화		충남학 로컬전문가교육과정 운영	-	-	50	50	50	50	200
	예산합계		221	270	390	410	430	450	1950
[3] 조사 연구기능 강화	[3-1] 충남학 연구 및 개발활동 수행	충남학 기초·정책연구 수행	-	-	50	50	50	50	200
		충남학 교육운영 교재개발	-	100	10	10	10	10	140
		충남학 연구문헌자료 수집	-	-	10	10	10	10	40
	[3-2] 충남학 DB 구축 운영	충남학 미디어자료 수집	-	-	30	50	50	50	180
		충남학 마을기록화 활동 지원	-	-	-	20	20	30	70
		충남학 아키비스트 양성 사업	-	-	-	40	40	60	140
	예산합계		-	100	100	180	180	210	770
[4] 충남학 인식확산	[4-1] 충남학 인식확산 강화	충남학 미디어 홍보활동 지원	-	10	50	100	100	150	410
		지역학 활동영상 제작 지원	-	-	-	30	50	50	130
	예산합계		-	10	50	130	150	200	540
예산총계			221	405	705	900	940	1090	4040
실행인력규모			1	2	2.5	4	4	5	-

4. 충남학 정책 평가와 환류

- 충남학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은 계획수립, 사업수행과 종료 이후 평가과정을 거쳐 차년도 정책 실행 계획 수립으로 환류되는 다음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충남학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업종료까지 정책사업 모니터링의 과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에는 충남학 진흥위원회의 실무협의회 중심으로 수행이 효과적임
- 충남학 사업종료 이후 모니터링과 계획 대비 집행 및 만족도의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충남학 진흥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차년도 충남학 진흥을 위한 실행설계에 반영하는 환류과정의 도입이 필요함

그림 충남학 정책의 평가와 환류 과정



참고문헌

- 김경수 외(2020). 충남학 교육운영 개편방안 연구.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김동영(2021). 전북학 연구센터 운영기본계획, 전북연구원.
- 김양식(2016). 충북학 활성화방안 연구. 충북연구원.
- 권기현(2012).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박영사.
- 권영재(2017). 장소기억기반 공간재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노영순 외(2018).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과 문화정책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노영순·이상열(2018).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과 문화정책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정화 외(2021). 국내 지역학 현황과 고양학 발전방안. 고양시정연구원
- 박승희(2016). 대구시사 편찬의 방향과 생활사, 구술사 구성방안. 대구경북연구원. 16(2).
- 박재환(2013). 지역의 문화, 지역의 정신, 제3차 한국지역학포럼 자료집.
- 박찬식 외(2016). 제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제주연구원.
- 설문원(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 손명철(2017). 한국 지역지리학의 개념 정립과 발전 방향 모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4).
- 송인호 외(2012). 서울학 연구 동향. 서울학연구. 4
- 오영규(2019). 한국학과 국내 지역학: 연구방법론의 모방과 변주. 지방사와지방문화, 22.
- 유영심(2016). 강원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체계정립 방안. 강원연구원.
- 정정숙(2014).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충청남도(2020). 「충남 사회조사」, (2020)
- 한기범 외(2014). 충남학 기본방향 및 교재개발 수립.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부록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8. 17.] [충청남도조례 제5029호, 2021. 8. 17., 제정]

충청남도(교육법무담당관), 041-635-3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학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역사·문화 등에 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여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남도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남학”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와 관련된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건축·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학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충남학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남학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충남학 관련 정책
2. 충남학 강사 역량강화 및 관련 연구
3. 충남학 관련 연구자료 활용 및 확산
4. 그 밖에 충남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충남학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충남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남학 강사의 역량 강화 및 관련 연구
2. 충남학의 영상제작 등 관련 홍보
3. 도내 충남학 정규교양과정 운영
4. 충남학 애플리케이션 개발, 웹툰 제작 등 콘텐츠 개발
5. 그 밖에 충남학 진흥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충남학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남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충남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
2. 충남학진흥계획 수립·시행
3. 그 밖에 충남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029호, 202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진

발주기관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수행기관	(재)충남연구원
연구총괄	전지훈 초빙책임연구원
연구진	고승희 연구위원 장창석 전문연구원 이홍택 전문연구원 목소리 연구원

